

경기옛길 의주길 특화사업  
의주길 스토리자원 조사연구 보고서

2017.7.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목 차

<b>I. 조사개요</b> .....	<b>1</b>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b>II. 고양의 문화유산 이야기</b> .....	<b>2</b>
1. 고양의 역사 이야기 .....	2
2. 고양의 대표적 문화유산 .....	11
3. 고양의 전설과 민담 이야기 .....	22
4. 근현대 고양의 이야기 .....	41
<b>III. 파주의 문화유산 이야기</b> .....	<b>43</b>
1. 파주의 역사 이야기 .....	43
2. 파주의 대표적 문화유산 .....	57
3. 파주의 전설과 민담 이야기 .....	98
4. 근현대 파주의 이야기 .....	108
<b>IV. 의주길 네트워크 구축</b> .....	<b>113</b>
1. 의주길 네트워크 구축(의주길의 확장) .....	113
2. 스토리보드 제작용 .....	153

## I. 조사개요

의주길 스토리자원을 추가 발굴하여 경기 옛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탐방로의 의의를 더욱 확고히 하며 의주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근·현대 문화유산조사를 통하여 경기 옛 길의 시대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1. 조사의 배경

- 경기 옛길 스토리보드 현황은 의주길 16개(56.5km), 삼남길 53개(100km), 영남길 61개(116km)로 삼남길과 영남길은 약 1.8km에 하나의 스토리보드가 설치된 것에 비해 의주길은 약 3.5km에 하나의 스토리보드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길에 비하여 스토리자원이 빈약한 상황임
- 이에 의주길과 의주길 주변의 아직 활용되지 않은 전 시대를 망라한 다양한 문화유산, 예술자원 등을 추가 조사하여 경기 옛 길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 2. 조사의 목적

- 의주길과 의주길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산, 유적,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화컨텐츠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별함
- 선별된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여 의주길 노선에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함

### 3. 조사의 범위

고양시, 파주시 의주길 구간 및 주변 지역 포함

### 4. 조사기간

2017년 4월 1일~7월 30일

### 5. 책임조사자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이윤희

## II. 고양의 문화유산 이야기

### 1. 고양의 역사 이야기

#### (1) 개관

동북쪽은 양주시, 동남쪽은 서울특별시, 서남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북쪽은 파주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6°40′~126°59′, 북위 37°34′~37°44′에 위치한다. 면적은 268.05km<sup>2</sup>이고, 인구는 현재 104만명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3개 구, 39개 행정동(53개 법정동)이 있다. 시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다.

#### (2) 자연환경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고양시는 동쪽은 높은 산지가, 서쪽은 낮은 구릉과 하천 퇴적지인 곡저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에 북한산(837m)이 양주시와 서울과의 경계를 이루고, 북쪽에는 우암산(329m)이 파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주요 하천은 서남쪽에 한강이 동남~서북향으로 흐르고, 북한산에서 발원한 창릉천은 서남진해 한강에 합류한다. 역시 북한산에서 발원한 공릉천이 서북진해 파주시로 흘러가며, 공릉천에서 나뉘어진 원당천은 서남진해 대장천과 합류한 뒤 한강으로 흐른다. 그리고 장월평천이 서남진하여 한강에 합류한다. 서남부는 한강의 범람원으로 넓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창릉천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에는 범람원과 하중도가 발달하였다. 1991년부터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높이 쌓고 신도시 개발에 착수한 이래 범람원은 대지로 바뀌었다.

지질은 남부는 화강편마암으로, 동부는 결정편마암으로 되어 있다.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11.8°C, 1월 평균기온 -4.9°C, 8월 평균기온 25.5°C이며, 연강수량은 1,214mm이다.

#### (3) 역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일산동구 백석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서 중기 구석기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최소한 1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대화동에서는 서기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범씨가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의 농경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일산 지역의 지명 동·가좌동·오부자동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2군데에 이르고 있다. 즉, 벽제·원당·신도·일산 지역에서 고인돌·동모주범·돌도끼·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문봉동이나 신원동에는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사동에서 출토된 동모주범은 고양 지역에서 청동기를 제작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게다가 이러한 선사 유적들이 창릉천과 공릉천 등의 작은 하천을

낀 마을 부근에서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의 영토였다. 그러나 475년(장수왕 63) 남진정책을 편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당함에 따라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고양 지역은 고구려 북한산주(北漢山州)의 영현인 달을성현(達乙省縣)에 편입되어, 551년(양원왕 7)까지 76년간 고구려의 남진기지의 구실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나제동맹군에 의한 북방 공략으로 백제가 잠시 수복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동맹을 파기하고 한강 유역에 속한 백제의 6군을 점령함으로써, 553년(진흥왕 14) 이후 신라 한양군의 속현인 고봉현(高峰縣)이 되었다.

이에 신라는 한강 유역 방위를 위해 신주정(新州停)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양 일대에 북한산성과 행주산성 등을 축성하고, 임진강을 북쪽 경계로 한 북방기지로서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후삼국시대에는 한강의 이남지역인 김포·강화 등지를 석권한 궁예(弓裔)의 후고구려 세력권 내에 있었다. 또한, 고려 초기까지는 계속 독립군현인 고봉현으로 불려왔다. 그 뒤, 1018년(현종 9)양주의 관할에 두어 지양주사(知楊州事), 숙종 때는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 충렬왕 때는 한양부사의 관리를 받아왔다.

여기에는 고려 말 위화도회군 이후 이곳으로 유배되었던 최영(崔瑩)의 묘가 있다. 또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고릉(高陵)이 원당동에 있다.

1394년(태조 3)서울을 한양부로 하고 양주를 별도로 둬으로써 고양시는 고봉현으로 독립되어 현감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행주(幸州)·부원(富原)·황조향(荒調鄉)을 폐합하였다.

1413년(태종 13)고봉과 덕양현(德陽縣)을 합쳐 고양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다. 그 뒤 1471년(성종 2) 경릉(敬陵: 덕종과 비의 능)과 창릉(昌陵)이 있어서 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 10)에 폐지되었고, 1506년(중종 1)에 복귀되었다.

1592년(선조 25)의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참전한 이여송(李如松)은 이듬해에 평양성을 탈환한 뒤 승승장구해 남하하다가 이 곳 벽제관전투에서 패전하였다. 그리고 지도면 행주내리의 행주산성에서는 권율이 왜장 우키타(宇喜多秀家)가 이끄는 왜병 3만여 명을 물리쳐 임진왜란 3대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이 양화진(楊花津: 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김정국(金正國)이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고향인 이곳으로 낙향해 학문에 전심, 후학을 가르쳤다. 또한, 조선왕조의 서오릉(西五陵)·서삼릉(西三陵)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고봉·덕양·부원·황조향·울악부곡(栗岳部曲) 등이 폐합되어 고양군으로 불려왔다. 그 뒤 1895년(고종 32)한성부의 소속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군면폐합으로 한성부로부터 8개 면, 고양군으로부터 1개 면이 편입되었다.

1919년 3월 9일 한지면 보통학교에서 300여 명이, 23일 용강면 관란교(觀瀾橋)에서 500여 명이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그 뒤에도 군내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

되었다. 1917년 이후 현재의 판도를 유지하면서 한강 이북에서 서울특별시를 두르고 있는 형상으로 변천되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전후 복구사업으로 회복되었다. 1961년 8월 서울특별시에 있던 군 청사를 원당읍 주교리로 옮겼으며, 1967년 3월 28일 신도면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신도면의 구파발리·진관내리·진관외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신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원당면이 읍으로, 이듬해 12월 1일에는 중면이 일산읍으로, 벽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군세에 맞추어 행정구역 조정과 변천을 계속하였다.

1985년 10월 1일에는 지도면이 읍으로, 신도읍 화전출장소가 역시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1일 일산읍 백마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9년 서울특별시의 주택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무소가 설치되어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 2월 1일 고양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과 동의 신설이 있었다. 1996년 1월 3일에는 일산4동·대화동·장항2동·행신2동이 신설되고, 3월 1일에는 구제가 실시되어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였다. 2005년 5월 16일에는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되어 현재 고양시는 3개 구로 늘어났다. 2005년 5월 16일에 일산2동을 일산2동과 중산동으로 분동하였으며,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6년 10월 29일 백석동을 백석1동과 백석2동으로 분동하였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접경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와 농촌이 병존된 수도권 위성 지역으로 발전과 변천을 계속하고 있다.

#### (4) 유물과 유적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봉고성지·행주고성지·고토성지(古土城址) 등이 있다. 그리고 산성으로는 행주산성(幸州山城, 사적 제56호),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등이 있다. 특히 역절산유적(경기도 기념물 제195호)에서는 최근 백제 초기 유물이 대량 출토되었다.

불교문화재로는 태고사원증국사탑(太古寺圓證國師塔, 보물 제749호) · 태고사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 및 북한산중흥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36호), 흥국사극락구품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3호) · 흥국사약사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7호) · 흥국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4호) 등이 있다.

유교문화재로는 고양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가 있어 춘추로 석전제(釋奠祭)를 올리고 있으며, 행주서원지(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1호), 민순(閔純) 등 고양8현을 제향했던 문봉서원(文峰書院) 터와 임진왜란 때의 도원수 권율(權慄)을 배향하는 기공사(紀功祠)가 있다.

월산대군사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 벽제관지(碧蹄館址, 사적 제144호)가 있다.

용두동의 서오릉(西五陵, 사적 제198호), 원당동의 고려공양왕고릉(高麗恭讓王高陵, 사적 제191호) · 서삼릉(사적 제200호), 북한동의 북한산성행궁지(경기도 기념물 제160호) 등도 있다.

묘비로는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4호)와 유형장군묘(柳珩將墓, 경기도 기념물 제50호),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7호),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 경기도 기념물 제23호) · 연산군시대금표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 등이 있다.

그리고 원흥동에는 신라말·고려초기 청와요(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4호)가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송포백송(松浦白松, 천연기념물 제60호)이 있고, 일산밤가시초가(草家, 경기도 민속자료 제8호)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로는 송포호미걸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와 경기소리휘몰이잡가(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1호) 등이 있다.

## (5) 교육과 문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는 고양향교가 있다. 1688년(숙종 14)에 세워진 문봉서원은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릴 때까지 많은 유생을 교육하였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909년 고양리에 고양초등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광복 후 많은 학교가 증설되었다.

2015년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41개교, 고등학교 40개교가 있고, 대학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농협대학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등이 있다.

문화시설로는 덕양구의 고양시문예회관(주교동) · 덕양어울림누리(성사동) · 고양아람누리(마두동) · 중남미문화원(고양동) · 목암미술관(벽제동) · 배다리주박물관(성사동)과 일산지역의 고양꽃전시관(일산동구 장항동) · 한국국제전시장 KINTEX(일산서구 대화동) 등이 있다. 영화관으로는 덕양구 화정동, 일산동구 장항동에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이 들어와 있다.

## (6) 민속

이 지방의 중요한 민속놀이로는 호미걸이가 있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두레이자 축제로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서 전해내려 오고 있다. 도당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 마을의 두레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서 구두레라 하였다.

이 호미걸이는 모를 심은 다음, 호미로 두 벌 김을 매고 손으로 또 두 벌 김을 훑치고 나서 피로를 풀 겸 해서 행하는 놀이이다. 음력 칠월 칠석 전후로 택일을 해 인근 동네의 네 두레를 초청해 논다.

사전에 동네 우두머리에게 건의해 대동회의를 열어 날짜와 절차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은 제각기 기구와 음식 등을 부담하고 준비를 서두른다. 당일 이 되면 네 두레가 나온 동네 사람들 수백 명이 한데 모여, 음식과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호미걸이는 상산제·대동제·유가제의 순으로 놀지만, 각 두레패별로 따로 놀기도 한다.

특히, 상쇠의 선도로 길군악을 비롯해 열두 가락으로 진행되는 흥겹고 멋있는 놀이이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널뛰기·연날리기·그네뛰기 등의 세시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산동구 마두동의 정발산에서는 3년마다 음력 3월경 마두동·장항동을 비롯한 10개 마을이 함께 산신제를 지낸다. 이 산신제는 꽤 연조가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봉우리 위에서 행해진다.

우선 신망이 두텁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당주로 뽑아 제관으로 삼는다. 그런 다음 돼지머리를 바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례가 집행된다. 그리고 농사의 풍년, 동민들의 안녕, 마을의 무사를 비는 축문을 읽고, 전체 주민이 함께 축원을 한다.

각 마을별로 음식을 마련해 제가 끝나면 꽃피고 새 우는 산에서 온 동민들이 축제를 벌인다. 행사가 모두 끝나면 인근의 무당들이 모여 당주의 집에 가서 동네곳과 당주 집 곳을 해 준다. 이 때 신수를 비는 사람들은 제각기 돈을 놓고 춤을 추며 밤새도록 논다.

그 밖에도 덕양구 화정동의 냉정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제를 지낸다. 또, 일산동구 백석동에서는 흰돌이 있는 데서 도당굿을 하고, 또한 흰돌의 작은집이라 일컫는 방터골도당산에서는 3리와 함께 산신제와 도당굿을 4년마다 지내고 있다.

## (7) 설화와 민요

고양시에 전하는 대표적인 설화는 「행주치마 유래전설」이다. 이 설화는 덕양구 행주내동의 덕양산에 쌓은 행주산성에 얽힌 이야기이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이끄는 2,300여 명의 군사가 이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왜군이 물밀듯이 닥쳐왔다.

산성에서는 남녀노소가 총 출동해 3만의 왜군을 세 번이나 격퇴하였다. 이 때 부녀자들이 덧치마를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다주어 석전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 때부터 부녀자들이 입은 덧치마를 행주치마라 하였다.

이 고장에서 구전되는 민요는 여요(女謠) 몇 편과 어희요(語戲謠)가 채록되어 남아 있다. 노동요는 「들노래」가 유명하고, 김매기소리로는 「방아타령」을 부르는 것이 특색이다. 자료가 적은 것은 서울과 근접해 있어 일찍부터 도시화되어 채집 시기를 놓친 까닭이다.

타령요류는 서울 근교지방이 그렇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잡가가 주류를 이룬다. 지금 전하는 여요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나물캐기노래」와 「어머니노래」를 들 수 있다.

「나물캐기노래」는 4·4조의 문답체이다. 가사는 나물을 캐서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와 우애하겠다는 교훈적 내용으로 소녀의 고운 마음씨가 잘 나타나 있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장아장 나물 가자/무슨 나물 가자느냐/개똥밭에 돌미나리/아식바식 도려다가/청강수물에 싹 데쳐서/한강물에 흔들어서/어머님은 은반상이요/아버님은 금반상이요/오라버니 꽃반상이요…….”



「어머니노래」 또한 4:4조의 문답체 노래인데, 젓 달라고 보채는 어린애를 달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사랑노래」가 전하는데, 남녀 간의 연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춘아춘아 옥단춘아/네 집으로 구경 가자/앞뜰에는 꽃밭이요/꽃밭에는 나비 놀고/뒤뜰에는 연못이요/연못 안에 초당 보게/초당문을 펼척 여니/이쁜 색시 았엇길래/분을 주련 연질 주련/분도 싫고 연지도 싫고/나무 인경 주십시오…….”

## (8) 산업과 교통

경지면적은 5,250ha 로, 그 중 논이 2,294ha, 밭이 2,956ha이며, 가구당 경지 면적은 논 0.51ha, 밭이 0.49ha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형적인 이유로 논농사가 많았으나 1990년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잠식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인데, 특히 쌀의 질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밭작물로 콩·감자·무·배추·파·고추·시금치·오이·상추, 특용작물로 들깨가 재배된다. 그리고 과실류로 배가 생산된다. 대도시 근교의 구릉지나 야산에서는 관상수·화훼 등을 기르는 수목원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계·양돈·젓소·사슴·노루 등의 목축업도 성하다. 임산자원으로 밤·도토리 등이 생산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2.3%인 2만 448명인데,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제2차산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인 1만 4467명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또한 용수개발도 부진해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주요 제조업으로 조립금속기계·비금속광물·종이인쇄업·섬유의류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 근교의 야산지역에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음식업·주류판매업·여관업 등이 발달해 있다. 원당·송포·능곡·일산·고양 등에는 아직까지 5일장이 열리고 있으며, 시 지역에 모두 21개의 시장이 개설되었다. 게다가 일산 신도시개발, 화정아파트단지 개발, 원당아파트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이 124개에 이를 정도로 금융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관광지로는 행주산성과 호수공원이 있다. 행주산성은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주변에 관광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철도는 경의선이 서남부지역을 지나 동남~서북진하여 고양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3호선이 서울과 이어져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지나고 있다. 국도는 국도 1호선이 서울에서 출발해 신도, 벽제를 거쳐 고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국도 33호선이 김포에서 원당~벽제를 지나 양주로 들어가고 있다. 지방도로 311호선이 삼송리에서 원당~일산을 거쳐 파주로, 307호선이 송포에서 일산을 지나 동북진한다.

398호선이 화전·지도·일산에 이르고, 349호선이 신도를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 고양은 서울 지역으로의 통근 인구가 많아 서울~임진각 간의 자유로, 서울·화정·일산간의 지방도로가 고속화도로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서울·벽제·봉일천·문산 간의 통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서울~고양 간에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다.

## (9) 관광자원

광주산맥의 발단부인 북한산을 주봉으로 많은 산들이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며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중앙에는 잔구성 산지가 구릉을 이루면서 곳곳에 관광지를 발달시켰다. 가볼 만한 관광지는 통일로와 경의선 철도를 중심으로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로의 동북쪽 일대 벽제지역 동쪽과 신도지역 동북쪽 지역은 추가령구조곡과 임진강 사이에 펼쳐진 고양~양주 구릉지대에 속하는 광주산맥의 발단인 북한산 중심의 노고산·개명산 등이 명승지이다.

이곳은 야산지대로 구릉성산지가 펼쳐지고 곳곳에 과수·관상수·화초·고등채소 등을 재배하는 관광농원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경의선 아래쪽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평야지대로 땅이 비옥해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다.

한때는 서울로 공급되는 근교농업이 발달했으나, 주거지역 확대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농경지는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사적, 보물, 천연기념물 등이 있어 서울시민의 일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태고사 원증국사탑비·행주산성·벽제관 터·북한산성·공양왕 고릉·서오릉·서삼릉·백송·정발산공원 등은 좋은 관광지가 되고 있다. 특히, 원당동에 있는 공양왕릉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그의 왕비인 순비 노씨의 능침으로 알려져 있다.

능역에는 두 쌍의 석인 석호 비석이 있는데, 비문에는 '고려공양왕고릉'이라 새겨져 있다. 이는 조선 고종 때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소박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행주산성은 서울과 접경을 이루는 한강 하류의 덕양산에 위치해 있다.

덕양산은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으로, 동남쪽은 한강으로 절벽을 이루고 서북쪽은 넓게 틈어 파주·문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혜의 요새다.

행주산성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해 쌓은 토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이룬 곳이다. 이곳에는 권율장군 동상을 비롯해 많은 기념비가 서 있으며, 해마다 행주대첩이 이루어진 2월 12일을 기려 행주대첩제가 거행되고 있다.

## (10) 행정구역

### 1) 덕양구(德陽區)

시의 동부에 위치한 구. 면적 165.44km<sup>2</sup>, 인구 44만 1988명(2015년 현재). 구청 소재지는 화정동이다.

본래 고양군의 원당·신철·하도·구지도·사리대·구이 등의 6개 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벽제(碧蹄)·신도(神道)·원당(元堂)·지도(知道) 등 4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67년신도면의 남부에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에는 신도면이, 1979년에는 원당면이, 1980년에는 벽제면이, 1985년에는 지도면이, 1985년에는 화전출장소가 각각 신도·원당·벽제·지도·화전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전 지역이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1996년고양시의 구제(區制) 도입에 따라 옛 벽제·원당·신도·지도·화전 등 5개 읍지역을 묶어 덕양구가 설치되었다. 지형은 대체로 동부와 북부가 높고, 중부에는 구릉지가 많으며 남부는 낮고 평평하다.

서울특별시와 경계를 지나는 동부는 북한산(837m)·남장대(716m), 파주시·양주시와 접하는 북부는 개명산(622m)·노고산(496m)·명봉산(248m) 등이 있어 높은 편이다. 중부 및 일산동구와 맞닿은 서부는 구릉이 곳곳에 자리하고, 한강에 접해 있는 남부는 총적지가 넓다.

주요 하천은 곡릉·창릉·대장천이다. 곡릉천은 북동쪽에서 흘러들어 북부를 관류하다 일산동구와 행정경계를 이루면서 북서쪽으로 빠져나간다. 창릉천은 북한산지에서 발원, 남서류하면서 서울시와 마주한 다음 동부를 관류한다.

남서부에는 남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드는 대장천이 있다. 토지이용을 보면 전체면적의 47%가 임야이며, 26%가 경지이다. 그 중 논이 밭 면적의 약 두 배이다. 임야는 북부에, 경지는 창릉천 및 한강에 접해 있는 남부에 넓게 펼쳐진다.

대지는 창릉천 중류와 대장천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장천 동쪽에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신도시(화정지구)가 조성되어 있다. 공업은 거의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미하며, 새로 조성된 시가지를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었다. 토지 이용상 눈에 띄는 특징은 곳곳에 자리한 공원묘지와 골프장이다.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경의선·서울교외선 철도와 함께 서울도심과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3호선도 개통되었다. 한강 북안을 따라 놓인 자유로·강변로와 중북부를 가로지르는 1번 국도 및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39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울의 시내버들도 운행된다.

문화유적은 북한동에 태고사원증국사탑비·태고사원증국사탑·북한산성·북한산성금위영이건비, 행주내동의 행주산성·행주대첩비, 벽제동의 벽제관지, 원당동의 고려공양왕고릉·서삼릉, 용두동의 서오릉, 지축동에 흥국사극락구품도, 대자동의 연산군시대금표비·최영장군묘, 행신동의 유형장군묘, 고양동에 고양향교, 행주외동에 행주서원지 등이 있다.

주교(舟橋)·성사(星沙)·원당(元堂)·신원(新院)·원흥(元興)·도내(道乃)·북한(北漢)·효자(孝子)·지축(紙楸)·오금(梧琴)·삼송(三松)·동산(東山)·용두(龍頭)·고양(高陽)·벽제(碧蹄)·선유(仙遊)·대자(大慈)·관산(官山)·내유(柵遊)·내곡(內谷)·대장(大壯)·신평(新坪)·토당(土堂)·화정(花井)·행주내(幸州內)·행주외(幸州外)·강매(江梅)·행신(幸信)·향동(香洞)·화전(花田)·덕은(德隱)·현천(玄川) 등 32개 동이 있다.

## 2) 일산동구(一山東區)

시의 서부에 위치한 구. 면적 59.94km<sup>2</sup>, 인구 28만 5658명(2015년 현재). 구청 소재지는 마두동이다.

본래 고양군의 중·사포·송산 등 3개 면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中)·송포(松浦) 등 2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중면이 일산읍(一山邑)으로, 1992년에는 전 지역이 고양시로 승격되었다. 1996년고양시의 구제(區制) 도입에 따라 옛 일산읍과 송포면을 묶어 일산구가 설치되었다. 2005년 5월 16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은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구릉지나 넓은 충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에 고봉산(209m)과 중서부의 황룡산(135m)이 주요 산지에 속한다. 구릉지는 덕양구와 맞닿은 동부와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강에 접한 남부에는 충적지가 넓게 발달했다. 이들 충적지와 구릉지가 만나는 곳에 동서방향으로 대략 3km 정도의 폭으로 일산신도시가 들어섰다.

하천은 공릉천과 장월평천이다. 공릉천은 북동부의 동남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며, 덕양구와 경계를 이룬다. 장월평천은 서남부의 넓은 충적지를 관류한 다음,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중앙부에 있는 낮은 산지와 구릉지들은 남쪽의 한강과 북쪽의 공릉천 물을 나누는 분수계가 된다. 공릉천은 파주시에서 한강하구로 흘러든다.

토지 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의 24%가 경지인데, 논이 밭보다 3배 넓다. 임야는 13%로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 이용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7%가 넘는 대지와 약 3%에 이르는 공원용지이다. 대지와 공원용지는 신도시개발 결과 크게 늘었다. 공원은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이 대표적이다.

일산신도시의 조성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비스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남부와 북부는 농업이 중심 산업이며, 공업은 미미하다. 특히 남부의 충적평야에서는 맛있는 쌀이 생산되고 화훼 재배도 활발하다.

교통은 서울에 접근이 쉬운 남부가 편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북부는 불편하다. 남부에는 경의선 철도와 수도권 전철(3호선) 및 한강 북안을 따라 뚫린 자유로가 동서방향으로 놓였다. 이 지역은 서울의 시내버스로 운행된다.

반면, 구릉지가 곳곳에 솟고 도로연장이 길지 않은 북부는 교통이 불편하다. 문화유적은 일산밤가시초가와 성녕대군 묘 및 신도비 등이 있다.

식사(食寺)·중산(中山)·장항(獐項)·풍(楓)·산황(山黃)·백석(白石)·마두(馬頭)·사리현(沙里峴)·지영(芝英)·문봉(文峰)·설문(雪門)·성석(城石)·정발산(鼎鉢山) 등 13개 동이 있다.

### 3) 일산서구(一山西區)

시의 서부에 위치한 구. 면적 42.56km<sup>2</sup>, 인구 29만 9900명(2015년 현재). 구청 소재지는 대화동이다.

본래 고양군의 중·사포·송산 등 3개 면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

(中)·송포(松浦) 등 2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중면이 일산읍(一山邑)으로, 1992년에는 전 지역이 고양시로 승격되었다. 1996년고양시의 구제(區制) 도입에 따라 옛 일산읍과 송포면을 묶어 일산구가 설치되었다. 2005년 5월 16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형은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구릉지나 넓은 충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에 고봉산(209m)과 중서부의 향룡산(135m)이 주요 산지에 속한다. 구릉지는 덕양구와 맞닿은 동부와 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강에 접한 남부에는 충적지가 넓게 발달했다. 이들 충적지와 구릉지가 만나는 곳에 동서방향으로 대략 3km 정도의 폭으로 일산신도시가 들어섰다.

하천은 공릉천과 장월평천이다. 공릉천은 북동부의 동남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며, 덕양구와 경계를 이룬다. 장월평천은 서남부의 넓은 충적지를 관류한 다음,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중앙부에 있는 낮은 산지와 구릉지들은 남쪽의 한강과 북쪽의 공릉천 물을 나누는 분수계가 된다. 공릉천은 파주시에서 한강하구로 흘러든다.

일산신도시의 조성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비스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남부와 북부는 농업이 중심 산업이며, 공업은 미미하다. 특히 남부의 충적평야에서는 맛있는 쌀이 생산되고 화훼 재배도 활발하다.

교통은 서울에 접근이 쉬운 남부가 편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북부는 불편하다. 남부에는 경의선 철도와 수도권 전철(3호선) 및 한강 북안을 따라 뚫린 자유로가 동서방향으로 놓였다. 이 지역은 서울의 시내버스도 운행된다.

반면, 구릉지가 곳곳에 솟고 도로연장이 길지 않은 북부는 교통이 불편하다. 문화유적은 덕이동의 송포백송이 있다. 이 밖에 대화동에 먹절산유적 등이 있다.

일산(一山)·탄현(炭峴)·주엽(注葉)·대화(大化)·법곶(法串)·구산(九山)·가좌(加佐)·덕이(德耳) 등 8개 동이 있다.

## 2. 고양의 대표적 문화유산

### 행주산성(幸州山城)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

사적 제56호. 지정면적 361,171㎡, 둘레 약 1,000m. 강안(江岸)의 돌출된 산봉우리를 택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內城)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外城)의 이중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연대와 목적은 알 수 없으나,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감싸안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과 부합된다.

이곳이 백제의 초기 영역에 속하여 서해안으로의 수운(水運)과 관계된 중요한 거점으로 추측되며, 특히 나당전쟁(羅唐戰爭) 때까지 남북교통의 요충에 해당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성벽은 산 정상부의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뿐이며, 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

성벽은 내성의 경우 정상부를 깎아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약 250m 정도의 토루(土壘)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동북쪽의 산등성이를 따라 외성의 자취가 남아 있는데, 이 외성은 자연능선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석심을 두고 판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곡 쪽의 성벽은 유구를 찾을 수 없으나 산 중턱을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른바 이중식산성은 삼국시대의 새로운 형식으로서 주목된다.

성안에서는 삼국시대의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어골문(魚骨文)·수지문(手指文)의 기와조각도 발견되고 있어 고려시대까지도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산성은 1593년(선조 26) 권율(權慄)의 전적지로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유명하다. 현재 성안에는 1603년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63년에 다시 세운 대첩비가 있다. 1970년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벌여 권율을 모시는 충장사(忠壯祠)를 건립하고 정자와 문도 세웠다.

### 북한산성(北漢山城)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사적 제162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68.12.05.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일원이다. 북한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과 서울시 강북구, 종로구, 은평구 경계의 북한산 정상 능선을 따라 위치하는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북한산성의 명칭으로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로서 북한산성의 명칭이 등장하나 삼국시대의 북한산성이 현재의 북한산성과 같은 곳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산성은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할 때 도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축성되었다. 이 때 백제의 주력군이 이 성에서 고구려의 남진 세력을 막았다. 그 후 근초고왕의 북진 정책에 따라 북정군의 중심 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개루왕 21년(475)에 강력한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7일간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성이 함락되자 백제의 도성도 유린되어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군에 잡혀 살해당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 백제는 공주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을 연합 전선으로 막았다. 진흥왕 14년(553)에 신라는 백제의 영토였던 한성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빼앗았다.

진평왕 25년(603) 8월 고구려 장군 고승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하자 신라 진평왕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였으며 무열왕 8년(661) 5월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말갈 장군 생개와 더불어 북한산성을 20일간 포위 공격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북한산성 성주 동타천은 성 내 주민을 합한 2,800명의 인원으로 필사

결전을 감행하여 이 산성을 방어하였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 곤란에 빠졌던 시기로 만일 북한산성이 고구려에게 함락되었다면 신라의 삼국통일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중요한 싸움이었다. 성주 동태천은 이 전공으로 대사에서 대내마에 승진되었는데 이 싸움을 삼국사기는 크게 기록하고 있다.

1232년 고려 고종 때는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고려 현종은 글안의 침입을 피하여 이 성에 고려 태조의 신궁을 옮겨왔던 일도 있었다. 이때 성의 중축이 있었고, 1387년 고려 우왕때 개축공사가 있었다.

북한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 숙종 37년(1711)이며,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그때의 것이다. 이 산성은 총 둘레가 9.5km에 이르는데, 성돌을 크고 네모 반듯하게 뜨고 면과 모서리를 잘 다듬어 정방형 또는 장방형 쌓기를 함으로써 성을 쌓는 뛰어난 기술 수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성의 규모는 대서문, 동서문, 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가 있었다. 숙종 때 군제를 보면 수성대장을 영의정이 겸하고 훈련 어영 금위의 삼군문이 모두 배치되었다.

지금도 대서문이 복원되어 남아 있고 성곽의 여장이 부분적으로 허물어져 있으나 성의 모습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다. 최근 대성, 대남, 대동문 등의 외곽성을 비롯해 내성인 중성문도 복원되었다.

### **북한산성행궁지**

북한산성행궁지(北漢山城行宮址)는 사적 제479호 지정(등록)일은 2007.06.08.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이다.

북한산성행궁은 도성 외곽의 전략적인 요지인 북한산성에 위치한 행궁으로서 남한산성 행궁, 강화행궁과 더불어 전란을 대비한 임시궁궐이며, 도성 방어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축조된 것으로 다른 행궁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행궁은 유사시 왕의 행재소가 되는 곳으로 북한산성이 축성을 시작하기 1달 전인 숙종 37년 5월 25일에 당시 산성의 공사를 주관하던 감동당상인 김우항에 의해 건립이 처음 제기되었다.

동왕 5월 왕의 윤허를 얻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위가 많고 지세가 험하여 공사에 큰 어려움을 겪자 조정에서는 영건청을 두고 호조판서 김수항과 공조판서 이언강을 주관당상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목재는 산성밖의 삼천동에서 얻어서 지었는데 동왕 37년 10월까지는 내전의 기와, 외전의 정초가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해 2월부터는 다시 내전의 창호·청판·토역 등의 수장공사와 외전의 입주상량 등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어 숙종 38년 5월에 낙성을 보게 되었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행궁 규모는 내전이 좌·우 상방 각 2칸, 대청이 6칸, 사면퇴 18칸을 합한 총 28칸이었다. 이 정전 외에 또 좌·우각방·청·대문·수라소 등의 부속건물이 35칸이나 되었다. 외전 역시 내전과 같은 규모의 정전 28칸, 내행각방 12칸을 위시한 루(樓)·청·고간(庫間)·대문 등 총 33칸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북한산성 행궁은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內殿) 구역과 임금이 거처하는 외전(外殿) 구역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수라소와 행각, 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보각(譜閣)이 있었다.

북한산성 행궁은 경사진 대지를 3단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터가 좁은 지형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내전을 외전보다 남서쪽으로 치우쳐 위치시키고 외곽에 담장을 둘렀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리하여 원형을 유지하여 왔으나 1915년 대홍수로 파괴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 다행히 일제 시대에 찍힌 사진이 남아 있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산성 행궁은 조선 후기 집권층의 국가의식과 애민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으로 현재는 행궁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지만 1999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행궁지의 과거 모습을 알 수 있는 유구들이 노출되고 지하에도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중요 유적이다.

### 먹절산유적

먹절산유적(먹절山遺蹟)은 경기도 기념물 제195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4.05.06.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740-22외3이다.

먹절산은 고양시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백제 한성도읍기 유적으로 경기도박물관이 2003년 유적의 범위와 성격파악을 위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유구는 수혈주거지 8기, 수혈구덩이 2기, 구상유구 1기, 적석유구 5기, 근래에 조성된 수혈구덩이 9기, 민묘 5기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고배, 삼족기, 호, 시루, 장란형토기 등 백제토기 1000 여 점과 철촉, 철도자, 철부 등 철기 25점 등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유구 외에도 먹절산 유적 전체에 백제토기편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먹절산 전체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강 하류에 위치한 점과 각 층위별로 출토된 다량의 유물로 볼 때,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중계역할을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 삼각산(三角山)

삼각산(三角山)은 명승 제1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3.10.31.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이다.

삼각산(三角山)은 북한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산봉으로서 백운대(白雲臺, 836.5m), 인수봉(人壽峰, 810.5m), 만경대(萬鏡臺, 787.0m)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쥐라기 말의 대보화강암(흑운모 화강암 또는 화강섬록암)으로 되어 있으며, 형상을 달리한 화강암 돔(granite dome)으로 되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돔을 형성하는 산 사면의 경사는 대체로 70°이상에 달하고 있다. 백운대의 정상에는 약 500m<sup>2</sup>의 평탄한 곳이 있어 많은 등반객 또는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만경대의 옛이름은 국망봉이라 호칭되었으며 정상부의 산세는 불규칙하다. 삼각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구려 동명왕의 왕자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가서 살 만한 곳을 정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니, 바로 이 삼각산을 말한다. 그리고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 후보지를 찾으러 순례할 때 백운대로부터 맥을 밟아 만경대에 이르러 서남 방향으로 가 비봉에 이르니 한 석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학이 길을 잘못 들어 여기에 이른다”는 비석이 있어서 길을 다시 바꾸어 내려가 궁성터(오늘의 경복궁)를 정하였던 곳이 바로 이 삼각산이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가면서 남긴 김상헌의 시귀에 있듯이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라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 태고사원증국사탑(太古寺圓證國師塔)

태고사원증국사탑(太古寺圓證國師塔)은 보물 제74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3.12.27.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97-20 (북한동)이다. 고려 후기의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으로, 3단으로 이루어진 기단(基壇) 위로 탑신(塔身)을 올린 후 독특한 모습의 머리장식을 얹었다.

원래 도굴로 쓰러져 있던 것을 1980년 10월 흩어져 있는 부재를 모아 복원하였다. 하대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단정하다. 문양과 조식이 고려 후기의 뛰어난 제작 솜씨임을 단적으로 알게 한다. 넓은 석단으로 이루어진 부도전에 세워졌는데, 기단의 맨 밑단이 되는 4각의 아래받침돌은 각 면마다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모양의 조각을 새겼으며, 그 윗면에는 굽은 선으로 연꽃무늬를 새겨 두었다. 8각의 가운데받침돌은 각 모서리에 원기둥을 새긴 후 면마다 큼직한 꽃무늬를 새겨 장식하였다. 원형에 가까운 윗받침돌은 굽은 선으로 연꽃을 새겼고, 꽃잎 안에 고사리무늬를 두었다. 탑신의 몸돌은 원형으로 위쪽이 좁아져서 지붕돌 밑면에 들어 맞게 되어있다. 지붕돌은 처마가 거의 수평을 이루며, 각 귀퉁이마다 꽃장식이 투박하게 솟아 있다. 지붕돌 위로는 머리장식이 있다.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의 건립이 고려 우왕 11년(1385)이므로, 이 사리탑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 태고사원증국사탑비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碑)은 보물 제61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7.08.22.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406 (북한동)이다.

구암봉 기슭의 긴 계단 위에 대웅전이 서향으로 서 있고, 그 옆에 1385년(고려 우왕 11)에 세운 높이 2.3m, 너비 1m, 두께 24cm의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611)와 비각이 서 있다.

원증국사(1301~1382)는 고려 후기의 승려로 13세에 출가하여 회암사의 광지선사에 세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배움에 전념하였다. 46세 때에는 중국에까지 다녀왔는데 이후 다시 중국에 갔을 때에는 순제(順帝)가 그 소식을 듣고 법의를 하사하였다 한다. 공민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였으나 곧 소설사로 들어가 지내었고, 우왕 8년(1382)에 이 절에서 입적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은 모습이다. 거북받침돌의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등에는 길쭉한 육각무늬를 채워두었다. 머릿돌에는 구름과 용의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비몸의 앞면 윗부분에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보우에 대한 내용을 해서체로 새겼다.

고려 우왕 11년(1385)에 세워진 비로, 비문은 당대의 문장가 이색이 짓고, 명필 권주가 글씨를 썼다. 전체적으로 조각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퇴화된 느낌을 준다.

## 북한산중흥사지

북한산중흥사지(北漢山重興寺址)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2.12.31.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이며 관리주체는 중흥사이다.

중흥사터는 북한산성내 장군봉과 구암봉 사이 노적봉 아래에 있는 옛 절터이다.

중흥사는 고려 전기에 지어졌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지은 시기는 알 수 없으며, 고려 말기에 고승 보우가 고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곳에 있던 유물로는 1103년작 금고(金鼓)와 1344년작 향완(香完)이 남아있어 12세기초 이전에 이미 이 사찰이 개창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지』에 의하면 이 절은 본래 30칸 정도의 작은 규모에 불과했으나 숙종 39년(1713) 외적에 대비하여 북한산성을 축성하고서 숙종 41년(1715)년에 늘려 지어 136칸의 큰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왕실에서는 8도의 사찰에 명을 내려 1년에 6차례 교대로 의승(義僧)을 뽑아 올리게 하여 11개 사찰에 주둔시켰다. 승군의 정원은 360명으로 11개 사찰에는 각각 수승(首僧) 1인과 승장(僧將) 1인을 두었으며 이들을 총지휘하는 본부로 승영(僧營)을 설치하고 승대장(僧大將) 1인을 임명하여 팔도도총섭(八道道摠攝)을 겸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승병의 주둔에 필요한 물품과 군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승창(僧倉)을 이 절을 비롯한 여러 사찰에 두었다. 중흥사는 승대장이 머물렀던 북한산성의 승영이었다.

그 후 1828년에 이르러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건하여 우수한 사찰로 존속하였다. 당시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누각인 만세루와 나한전을 두었고 동쪽에는 산신당이 있었다고 하며 대웅전 안에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 외에 '중흥동문'(重興洞門)이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 등도 있었다.

승군들이 주둔하였던 용암사, 노적사, 경흥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서암사, 태고사, 진국사, 중흥사를 관리하였던 중요한 곳이었으나 1894년에 화재,

다시 1915년에 홍수를 당해 석축이 허물어지고 유지(遺址)만 남아 현재에 이른다.

### 흥국사약사전

한미산흥국사약사전(漢美山興國寺藥師殿)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5.06.28.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이고 관리주체는 흥국사이다.

흥국사는 한미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 신라 문무왕 원년(661) 원효대사가 세워 흥서사라 하였다. 원효가 북한산의 원효대에서 수행하던 어느 날, 서쪽 산기슭에서 3일 동안 이상한 기운이 일어 찾아가 보니 현재의 약사전 자리에서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약사여래좌상이 솟아나 빛을 발하고 있었으므로 이 절을 건립했다고 전한다.

절을 세운 뒤의 기록은 1000여 년 동안 전하지 않는데, 조선 숙종 12년(1686)에 다시 세웠고 영조 46년(1770)에는 왕이 이곳에 행차하여 이 절의 약사불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하여 절 이름을 흥국사로 고치고 약사전을 보다 크게 짓게 하고 궁궐의 상궁들이 번갈아 머무르면서 선학을 공부하도록 허락했다. 현존하는 약사전의 현판은 영조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약사전은 흥국사의 중심 법당으로 지금 있는 건물은 고종 4년(1867)에 승려 뇌응(雷應)이 다시 지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수리해왔다.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이며, 약사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자지붕이다. 기둥은 흘림이 거의 없는 둥근 기둥으로 기둥머리에 창방(唱防)과 평방(平防)을 돌리고 그 위에 다포계 형식의 공포를 짜놓았다. 기둥 머리에는 용 조각의 안초공(按草工)이 결구되고 내부에도 총량머리의 용 조각과 공포의 조각이 어우러져 조선 후기의 화려한 장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천장은 전후 좌우 측면이 빗천장으로 경사져 올라가다가 대들보와 중도리의 수직선상에서 평천장과 만나는 격자천장이다.

안쪽에는 약사여래상을 모시고 있고, 불상 뒤로는 정조 16년(1792)에 제작된 약사후불탱화가 있다. 안쪽 공간은 화려한 조각들이 어우러져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 북한산 서암사지

북한산 서암사지(北漢山 西巖寺址)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7.08.13.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09번지 외 관리주체는 서암사이다. 서암사는 북한산성 축성 이후 승병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13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지』(北漢誌)에 의하면 승려 광현(光顯)에 의하여 133칸 규모로 창건되었으며 고려 문인공 민지(閔漬, 1248~1326)가 살았던 유지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민지사(閔

瀆寺)로 불리었으나 후에 사명을 고쳐 서암사라 하였다 한다.

북한도(北漢圖)에 전제된 서암사의 위치, 각종 문헌의 기록과 조사, 그리고 주변의 지형적인 조건등으로 볼 때 북한산성 내에 건립된 11개의 사찰중 하나인 서암사가 확실하며, 그 기능은 상번역(上番役)의 승병을 주둔시켜 산성의 경계와 수비임무에 종사했던 중요사찰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암사의 위상과 중요성,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서암사는 수문일대의 산성 수비 역할을 담당하다가 19세기 말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양향교(高陽鄉校)

고양향교(高陽鄉校)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5.09.20.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6이고 관리주체는 향교재단이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고양향교는 최초 건립 당시에는 관아가 있던 월당리 서삼릉터에 세워졌으나, 몇 번의 이전 끝에 1625년 현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명륜당, 전사청, 외삼문은 1984년에 새로 만들었고, 그 외 건물들은 여러 차례 보수되었다고 한다.

건물 배치는 교육 공간을 앞쪽에, 제사 공간을 뒤쪽에 둔 전학후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앞쪽에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있으며, 뒤쪽에는 대성전과 동무·서무, 전사청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전면 반칸은 전퇴를 두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방풍판을 설치한 구조이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연등천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청은 굽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세 살당판문을 달았다. 내부에 공자를 위시한 5성(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전사청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운 구조이다. 좌측 1칸은 부엌으로, 우측 2칸은 온돌방을 만들었으며 천정은 반자틀 위 합판으로 마감하였다. 부엌에는 통판문을, 온돌방에는 세살당판문을 달았다. 건물의 뒷면에는 온돌방에는 광창을, 부엌에는 살창을 달았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교관이 머물던 강당인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장대석 기단에 원형초석에 방주를 세운 구조이다. 중앙 3칸은 대청으로 우물마루로, 좌우 1칸씩은 온돌방으로 연등천정이다. 창호는 온돌방에는 세살당판문을, 대청 후면에는 당판문을 달았다. 단청은 굽기단청으로 칠했다.

동·서무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장대석 기단에 방형초석과 방주를 세운 형태이다. 내부는 우물마루에 연등천정의 구조이며 단청은 굽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중앙은 세 살당판문을, 좌우 상단에는 광창을 달았다. 내부에는 송조 2현과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동.서재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자연석 기단에 덩벙초석과 방주를 세웠다. 좌우 1칸은 온돌방으로 앞에 뒷마루를 두고 있다. 중앙은 대청으로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연등천정에 굿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세살당판문이고, 중앙 대청 후면에는 당판문을, 온돌 후면에는 광창을 설치하였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솟을삼문으로 장대석 기단에 방형초석과 방주를 세운 구조이다. 홍살이 설치되어 있고 단청은 굿기단청을 칠했으며, 통판문을 달았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솟을삼문으로 자연석 기단에 방형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홍살을 설치하였고 굿기단청에 통판문을 달았다.

### 행주서원지

행주서원지(幸州書院址)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5.09.20.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62-1이다. 권율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권율(1537~1599) 장군은 조선 중기 문신이며 임진왜란 때 활약한 명장이다. 특히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 전투에서는 1만명 미만의 군사로 3만의 왜군을 무찔렀다.

행주서원은 행주산성에서 서쪽, 산성 정문으로부터는 한강방향으로 약 400m 거리에 위치한다. (고양시청) 조선 후기 현종은 고양시 서삼릉(西三陵)에 행차할 때마다 (경기관광포털) 권율 장군의 제향을 지낼 건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현종 7년(1841)에 사당을 짓도록 하고 이름을 기공사(紀功祠)로 하였던 것이 행주서원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권율 장군을 제향하는 사당을 별도로 두고 이곳에서 후학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다. 가로 18m, 세로 20m의 담장터가 남아 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하였다. 그 안 뒤편으로는 약간 높은 대지에 사당이 있던 자리가 남아 있는데 건물터는 정면 8.4m, 측면 6.5m의 주춧돌 중 아래로는 장대석의 석축이 남아 있으며 석축 아래로 강당으로 쓰이던 건물이 남아 있다.(고양시청) 서원 현판의 글씨는 고종 때의 무신으로 글씨와 문장이 뛰어난 신현(申櫛)이 썼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 규모다. 강당의 정면 5칸 중 좌우 양끝의 1칸은 전퇴(前退)를 둔 온돌방으로 꾸며졌으며 중앙의 3칸은 우물마루로 꾸며진 전형적인 강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원 안에 있던 행주대첩비는 현종 11년(1845)에 세운 것으로, 1970년 행주산성 내에 새로 지은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 옆으로 옮겨 놓았다.

### 문봉서원(文峰書院) 터

문봉서원은 숙종 14년(1688)에 건립되어, 동왕 35년(1709)에 왕명으로 사액을 받은 고양시 최초의 서원이다. 이곳 서원에는 모두 8인의 현인(賢人)이 제향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고양 팔현으로 불리우는 남효온, 김정국, 기준, 정지운, 민순, 홍이상, 이신의, 이유겸 선생이다. 문봉서원은 고양 지역의 유생들을 교육시키고 선현들을 제향

하던 곳이었지만 고종 2년(1865)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으로 철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기공사(紀功祠)

행주산성 중턱에 있는 사우.

1841년(헌종 7)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건립한 뒤 현판을 '기공사'라고 사액했다가, 뒤에 '충장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남아 있었다.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세워졌다.

### 월산대군사당

월산대군 사당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1989.12.29.에 지정(등록) 되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27에 소재하며 관리단체는 전주이씨 월산대군종친회이다.

월산대군 이정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사당이 처음 건립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숙종 19년(1693) 이전에 건립된 것은 확실하며, 현재의 건물들은 정조 10년(1786)에 이미 있던 건물들을 중수한 것들이다. 네모난 담장 중앙에 삼문을 세우고 그 안에 사당을 모셨는데 담장은 개인 사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대석을 하단으로 축조하였고 석조 배수구까지 갖춘 특이한 구조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민도리 맞배기 와지붕 건물이다. 건물의 앞면은 재계행사(齋戒行事)에 알맞도록 1칸을 개방하였고, 영조가 직접 석광사(錫光祠)란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정조 순조 때에는 조정에서 신하가 나와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사당 내에는 신주를 옮길 때 사용하던 작은 가마인 요여(腰輿)가 남아 있다.

사후에 그의 묘는 연산군에 의해 수난을 당했다. 연산군이 꿈에 그를 보고 밭에 여겨 그의 묘에 긴 쇠기둥을 꽂게 했다고 한다. 사당은 묘소의 서쪽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 ■ 월산대군(月山大君)

생몰연대 1454(단종 2)~1488(성종 19).

월산대군은 조선 전기의 종실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미(子美), 호는 풍월정(風月亭). 추존왕 덕종(德宗)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소혜왕후(昭惠王后)한씨(韓氏)이다. 성종의 형으로 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中善)의 사위이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인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정에서 자랐다. 7세 때인 1460년(세조 6) 월산군에 봉해졌고, 1468년(예종 즉위년) 동생인 잘산군(紇山君 : 성종)과 함께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임명되었다.

1471년(성종 2)월산대군으로 봉해졌고, 같은 해 3월 좌리공신(佐理功臣) 2등에 책봉

되어 전지(田地)·노비·구사(丘史) 등을 왕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좌리공신의 책봉은 그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왕위 계승의 상실에서 나온 조치였다.

예종 사후에 왕세자인 제안대군(齊安大君) 현(瑁)과 월산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왕위에 즉위한 것은 어떤 정치적 내막이 깔려 있었다. 곧, 성종의 즉위는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세조의 유명을 받들어 시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최고 권신이자 성종의 장인인 한명회(韓明澮)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종의 즉위에 대한 종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종실의 대표자격이고, 당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던 구성군(龜城君) 준(浚)을 제거하고 권신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하나가 좌리공신의 책봉이었다.

당시의 왕위 계승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던 월산대군은 권신들의 농간에 의해 좌리공신에 책봉되는 비운을 맞자, 이로 인해 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 은둔해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만 하였다.

이 후 그는 서호(西湖)의 경치 좋은 양화도(楊花渡) 북쪽 언덕에 위치한 희우정(喜雨亭)을 개축해 망원정(望遠亭)이라 하고, 서적을 쌓아두고 시문을 읊으면서 풍류적인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 뒤 어머니인 덕종비 인수왕후(仁粹王后 : 뒤에 소혜왕후로 추존)의 신병을 극진히 간호하다가 병들어 35세로 죽었다. 적자는 없고, 측실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다.

1473년 이후 덕종을 추존하고 종묘에 부묘(祔廟)하기 이전에는 월산대군이 별묘를 세우고 봉사(奉祀)해 덕종의 말아들로서 행세할 수 있었다. 덕종이 종묘에 부묘되면서 그의 위치는 종실의 한 사람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일찍부터 학문을 좋아해 종학(宗學)에 들어가 배웠고,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두루 섭렵했다고 한다. 성품은 침착, 결백하고, 술을 즐기며 산수를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부드럽고 율격이 높은 문장을 많이 지었으며, 시문 여러 편이 《속동문선(續東文選)》에 실릴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저서는 《풍월정집》이 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 서오릉(西五陵)

사적 제198호.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5개를 합한 능(陵).

서오릉이 능지(陵址)로 선택된 계기는 1457년(세조 3) 세자였던 원자(元子) 장(璋 : 뒤에 덕종으로 추존됨)이 사망하자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라 능지로서 좋은 곳을 찾다가 이 곳이 추천되어 부왕인 세조가 답사한 뒤 경릉(敬陵)터로 정하여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뒤 1470년(성종 1)덕종의 아우 예종과 계비(繼妃) 안순왕후 한씨(安順王后韓氏)의 창릉(昌陵)이 들어섰고, 1681년(숙종 7)숙종의 비 인경왕후 김씨(仁敬王后金氏)의 익릉(翼陵)과 1721년(경종 1)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의 쌍릉(雙陵)과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仁元王后金氏)의 단릉(單陵)의 합칭인 명릉(明陵)과, 1757년(영조 33)영조의 비인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徐氏)의 단릉인 홍릉(弘陵)이 들어서면

서 큰 왕족의 능이 무리를 이루어 ‘서오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밖에 이곳에는 명종의 첫째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의 순창원(順昌園)이 경내에 있으며, 또한 숙종의 후궁으로 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희빈장씨(禧嬪張氏)의 묘가 1970년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서 이곳으로 이장되었다.

능의 총면적은 55만 3616평으로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東九陵) 다음으로 큰 조선왕조 왕실의 족분(族墳)을 이루고 있다.

### 서삼릉(西三陵)

사적 제200호. 덕양구 원당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정릉(靖陵)과 효릉(孝陵) 및 예릉(睿陵)을 합한 능(陵)

서삼릉은 조선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尹氏)의 능인 희릉지(禧陵址)로 택하여진 곳으로, 한 때는 중종의 정릉(靖陵)이 이 능역(陵域)에 있었으며, 그의 아들인 인종과 그의 비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朴氏)의 효릉(孝陵)이 이 곳에 자리잡아 중종과 인종의 2대의 능지(陵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근처에 왕실묘지가 이루어져 명종과 숙종 이후 조선 말기까지 역대 후궁을 비롯하여 대군(大君)·군(君)·공주(公主)·옹주(翁主) 등의 많은 분묘(墳墓)가 조성되었으며, 1864년(고종 1)철종과 그의 비 철인왕후 김씨(哲仁王后金氏)의 예릉(睿陵)이 들어 서면서 ‘서삼릉’이라는 능칭을 얻게 되었다.

### 고려공양왕고릉(高麗恭讓王高陵)

공양왕릉(恭讓王陵)은 사적 제19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0.02.28.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산65-6이다.

1394년(태조3) 축조된 고려 공양왕과 순비 노씨의 능으로 쌍릉형식을 이루고 있다. 공양왕은 이성계 등에 의해서 즉위한 이름뿐인 왕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 원주로 추방 되었다가 태조 3년(1394)에 삼척부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태종 16년(1416)에 공양왕으로 봉하고 고양현에 무덤을 마련하였다. 왕과 함께 묻힌 왕비는 노신의 딸로 숙녕·정신·경화 세 공주와 창성군을 낳았으나 고려가 멸망한 후 왕과 함께 폐위되었다.

무덤은 쌍릉 형식으로 무덤 앞에는 비석과 상석이 하나씩 놓여 있고, 두 무덤 사이에 석등과 돌로 만든 호랑이 상이 있다. 이 호랑이 상은 고려의 전통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왕릉인 태조와 태종 무덤의 것과 양식이 비슷하다.

무덤의 양쪽에는 문신과 무신상을 세웠다.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석물은 양식과 수법이 대체로 소박하다. 비석은 처음에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공양왕고릉(高麗恭讓王高陵)’이라는 글씨가 있는 무덤을 표시하는 돌은 조선 고종 때에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양왕릉은 이곳과 강원도 삼척시 두 곳에 남아 있는데 이곳의 능은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능이고 삼척의 능은 민간에 전승된 능이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공양



왕과 준비가 삼척이 아닌 이곳에서 피란 당시 살해되어 연못에 수장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곳 왕릉에 삽살개 모양 석물이 세워진 것도, 고양 사람들이 연못을 향해 짓는 삽살개를 보고 그들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설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 중 어느 곳에 진자 공양왕과 왕비가 묻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벽제관지(碧蹄館址)

벽제관지(碧蹄館址)는 사적 제144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65.02.02.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고양동)이다.

조선 성종 7년(1476) 11월에 세운 벽제관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사신의 공용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중국 사신들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예를 갖추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이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들도 여기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곤 했다. 국왕이 제릉(齊陵) 친제(親祭) 때 숙소로 이용하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중앙의 청사(廳舍)와 좌우의 익사(翼舍)로 구성되는데,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의 문지(門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원래 벽제관은 현재의 벽제관지에서 서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옷 고골(고읍)에 초축되었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훼손되고, 당시 고양군청이 1625년(인조3)에 이전하면서 고양향교와 함께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벽제관은 관서지방으로 가는 큰 길에 설치된 첫 역관이었으며, 또한 국왕이 중국 사신을 친히 배웅하고 맞이하던 모화관에 버금가는 곳이다.

한편, 벽제관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에 의해 그 원형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벽제관이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명나라 군을 이긴 승전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에 의해 벽제관의 부속건물인 육각정(六角亭)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 이와쿠니시(岩國市) 모미지타니(紅葉) 공원에 남아 있다.

이후 벽제관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60년대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삼문까지 허물어져 그 터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65년에는 벽제관의 역사적 의의와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사적 제144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건물자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 벽제관(碧蹄館)

벽제역은 고양시에 있었는데,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반드시 벽제역의 객사에 유숙하였다. 그리하여 벽제역의 객사를 곧 벽제관이라 하였다.

이 벽제관은 고려 시대부터 있었으나 조선 세종대에 크게 개축되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정이오(鄭以僞)의 기(記)에 의하면 “1426년(세종 8) 8월에 현감 하부(河傅)와 감사 심도원(沈道源)의 노력으로 허물어진 공관(公館)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428년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당시 벽제관에는 동헌(東軒)과 서헌(西軒), 문묘(文廟), 남별관(南別館)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벽제역은 고려 시대에는 청교도(靑郊道:驛道의 하나)에 속한 벽지역(碧池驛)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벽제역(碧蹄驛)으로 바뀌었다.

이 벽제역의 관할은 세종대에는 우도정역찰방(右道程驛察訪), 세조대에는 영서도(迎曙道)의 찰방의 관리 아래 있었으며, 따라서 벽제관은 결국 중국사신을 영송하는 중요한 역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 ■ 벽제관전투(碧蹄館戰鬪)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1월 27일 벽제관(경기도 고양시에 있었던 역관)에서 명나라 군사와 일본군 사이에 있었던 전투로, 벽제관에서 남쪽 3km 지점에 있는 여석령(礪石嶺 : 일명 숫돌고개)에서 일어났으므로 여석령전투라고도 한다.

평안도 방면으로 진격했던 일본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1월 이여송(李如松)이 거느린 명나라 원병과 조선 관군에 의해 평양성에서 대패하였다. 그리고 주장 고니시(小西行長) 등은 황해도로 나아간 구로다(黑田長政)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도망해 돌아왔다.

이때 개성수장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는 끝내 사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우키다(宇喜多秀家)의 철수권유 때문에 퇴각하기는 했으나 서울 성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였다. 대신 다치바나(立花統虎)와 같이 성밖에서 명나라군과 대결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의 총병력은 5만에 이르렀다. 함경도로 진격했던 가토(加藤清正) 등의 약 2만의 군사만이 아직 철수하지 못하였다.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은 패장 고니시와 오토모(大友吉統 : 鳳山守將)를 제외한 4만여의 장졸로 고바야가와를 선봉장으로 삼아 반격을 시도하였다.

한편 명나라군은 평양 승전의 여세를 밀고 나와 개성에 집결, 작전회의를 끝내고 1593년(선조 26) 1월 25일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 일본군의 주력을 격멸하고 서울을 수복하려던 것이었다. 이때 일본군은 명나라 병사를 요격하려고 북상중에 있었고 선봉은 여석령에 진을 치고 있었다.

명나라의 선봉장인 부총병 사대수(查大受) 등이 최초로 이 부대와 회전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 벽제역까지 퇴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여송은 혜음령(惠陰嶺)을 넘어 벽제관으로 급행, 망객현(望客峴)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양군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고바야가와가 거느린 일본군은 3대(隊)로 나누어 명나라군을 포위 공격하였다. 포병이 도착하지 않은 명나라군은 기병만으로 고전을 면하지 못했으며, 사방에서 조총의 집중사격을 받아 참패하였다. 이여송은 지휘사(指揮使) 이유승(李有昇)의 희생으로 간신

히 탈출할 수 있었다.

단, 늦게 도착한 부총병 양원(楊元)이 거느린 화군(火軍)의 맹활약으로 일본군은 혜음령을 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명나라군은 일본군의 추격으로부터 탈출, 파주로 후퇴하였다가 개성으로 물러났다.

이 싸움에서 조선의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등은 이여송이 적을 경시하고 무모하게 진격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명나라 원군의 뒤를 따라 떨어져 행동했으므로 조선군의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유성룡(柳成龍) 등은 이여송에게 재공격을 주장했으나 겁을 먹고 듣지 않았다.

이 후 함경도에 있는 가토의 군이 양덕(陽德)·맹산(孟山)을 넘어 평양을 기습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들렸다. 이에 명나라군은 부총병 왕필적(王必迪)을 개성에 머물게 하고, 조선의 제장에게도 임진강 이북에 포진할 것을 명한 다음 다시 평양으로 회군하였다. 결국 이 싸움에서의 패배로 인해 그 뒤 명나라군의 행동에는 적극성이 줄어들고 일본군을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 유형장군묘(柳珩將墓)

유형장군묘(柳珩將軍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5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8.10.10.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산698이다.

조선 중기의 무신인 석담(石潭) 유형(1566~1615) 장군의 묘이다.

사성(莎城)으로 둘러싸인 장군의 묘역은 총 30여평 규모로 봉분을 중심으로 석물이 갖추어져 있는데 봉분의 우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다. 봉분 앞으로는 상석(床石)과 향로석(香爐石)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방에는 좌우에 문인석이 있다. 묘역 근처에는 신도비(神道碑: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가 있다. 원 비문은 이정귀(李廷龜)가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쓴 것인데 현재의 비는 이정구가 지은 것을 정학교(丁學教)가 썼고 이남식(李南軾)이 전액을 쓴 것이다. 신도비는 규모는 총 높이 273cm, 비신 높이 174cm, 너비 75cm, 두께 47cm이며, 재료는 화강석이고 묘소 아래 길 옆에 있다. 신도비의 두전에는 ‘증영의정 보조공신 진산부원군 시충경 유공신도비명’(‘贈領議政 輔祚功臣 晉山府院君 諡忠景 柳公神道碑銘’)이라 되어 있고 승정기원후(崇禎紀元後) 오갑술(五甲戌)이라고 써 있어 1874년(고종 11)에 다시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장군의 묘는 현재 행신동 무원마을 진주류씨묘역의 길건너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장군의 묘소 옆에는 조부(祖父)인 유진동(柳辰同)의 묘소가 있다.

#### ■ 유형(柳珩)

생몰연대: 1566(명종 21)~1615(광해군 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 할아버지는 진동(辰同)이고, 아버지는 경원부사 용(溶)이며, 어머니는 선산임씨(善山林氏)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사 김천일(金千鎰)을 따라 강화에서 활동하다가, 의주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1594년 무과에 급제, 선조의 친유(親諭)를 받고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은혜를 갚겠다는 '진충보국(盡忠報國)' 네 자를 등에 새겨 스스로 맹세하였다. 신설된 훈련도감에서 군사조련에 힘쓰다가 해남현감으로 나갔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원균(元均)이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막료가 되어 수군재건에 노력하였다. 남해 앞바다에서의 전투에서는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이순신의 곤경을 구하기도 하였다.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도 전사한 이순신을 대신하여 전투를 지휘한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발탁되었다. 그는 이순신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1600년에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으며, 1602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다시 충청도병마절도사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함경도병마절도사로 회령부사를 겸하였다. 이어서 경상도병마절도사·평안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황해도병마절도사로 재임 중에 죽었다.

그는 용병(用兵)에 능하고, 특히 통제영(統制營)의 기계설비와 회령·경성의 축성 등 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해남의 민충사(愍忠祠)에 제향되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9.09.03.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32이다.

북한산성 내의 대성암이라는 암자 아래쪽 계곡에 놓여 있는 비로, 수비를 맡고 있던 금위영의 터를 옮긴 후 이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북한산성은 삼국시대 이래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백제 개루왕 5년(32)에 처음 지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와서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자 숙종 37년(1711)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되었다. 이 산성의 수비대장은 영의정이 겸하였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수비하였다.

형태는 옆으로 긴 장방형 비신(碑身) 위에 가옥의 지붕 형식을 취한 옥개석을 올렸다. 재료는 화강암이다. 뒷면은 땅에 묻혀 있고, 옥개는 장대석(長臺石)에 앞편에만 낙수면을 새겼다. 즉 와비(臥碑)의 형식이다.

비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 숙종 37년 4월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으로 하여금 백제의 고성인 북한산성을 나누어 개축하게 하여 금위영은 능암 동남쪽에서 보현봉 아래까지 2,821보(步)를 쌓았으며, 1,065개의 살밭이(타(埜))와 2개의 성문(대성문, 소동문)이 있었고, 성문 위에 누각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장대(將臺)·방실(房室)·성곽 등을 축조하니 그 해 10월에 성곽의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동문(小東門) 안에 있는 금위영은 그 지세가 높아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질 우려가 있어 보국사·보광사·용암사·태고사의 4개 사찰 중 하나인 보국사 아래로 옮겼는데 균영의 막사와 창고 90여 칸은 3월에, 공사는 8월에 준공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비에 새긴 "을미즉 대명송정 갑신후 칠십이년야 도제조이이명 지(乙未卽 大明崇禎 甲申後 七十二年也 都提調李餌命 識)"란 명문으로 조선 숙종 41년(1715)에 이 비를 세웠으며, 도제조 이이명이 비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는 경기도기념물 제2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5.09.05.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70-2이다.

고려 후기의 명장이며 충신으로 고려를 끝까지 받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처형된 최영(1316~1388) 장군의 묘소이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분으로 부인 문화 유씨와 합장하였다.

묘소에는 묘비, 충혼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장방형의 2단 돌레석을 두른 방형묘로서 주위에 곡장을 설치하였으며 묘 앞 좌우에 묘비와 충혼비가 있다. 조성 당시의 석물로는 영혼이 나와 제사를 받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묘지임을 알려주는 표지인 망주석, 묘비가 있다. 기타 다른 석물은 1970년에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전형적인 고려 양식의 방형묘이다.

위편에는 최영의 부친인 동원부원군 최원직의 묘가 있다. 묘역을 찾아가려면 대자산 입구 최영 장군의 묘표가 있는 곳에서 산길을 500여미터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 ■ 최영(崔瑩)

생몰연대: 1316년(충숙왕 3)~1388년(우왕 14).

본관은 창원(昌原). 평장사(平章事)유청(惟淸)의 5세손, 아버지는 사헌규정(司憲糾正)원직(元直)이다. 풍채가 괴걸하고 힘이 뛰어났다.

처음에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휘하에서 왜구를 토벌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워 우달치(于達赤 : 司門人)가 되었다. 1352년(공민왕 1)에 안우(安祐)·최원(崔源) 등과 함께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평정하여 호군(護軍)이 되었고, 1354년에 대호군이 되었다.

당시 원나라에서 고려에 원병을 청하자 유탁(柳濯)·염제신(廉悌臣) 등 40여 명의 장수와 함께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원나라에 갔다. 그 때 원나라의 승상(丞相) 탈탈(脫脫) 등을 쫓아 중국 가오유(高郵) 등지에서 싸웠다. 1355년에는 회안로(淮安路)에서 적을 막았으며 팔리장(八里莊)에서 싸워 용맹을 떨친 뒤 돌아왔다.

이듬해부터 고려가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게 되자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서북면병마사인당(印璫)과 함께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공격하여 파사부(婆娑府 : 九連城) 등 3참을 쳐부수었다. 1357년동북면체복사(東北面體復使)가 되어 배 400여 척으로 오예포(吾乂

浦)에 침입한 왜구를 복병을 이용해 격파하였다.

1359년 홍건적 4만 명이 침입하여 서경(西京)을 함락시키자, 여러 장수와 함께 생양(生陽)·철화(鐵和)·서경·함종(咸從)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듬해평양윤 겸 서북면순문사를 거쳐 그 이듬해서북면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었다.

1361년에 홍건적 10만 명이 다시 침입해 개성을 함락시키자, 이듬해 안우·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이를 격퇴하여 개성을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훈(勳) 1등에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이 되었고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올랐다. 이어 양광도진변사(楊廣道鎮邊使)를 겸하였다가 도순문사를 겸하였다.

1363년에는 김용(金鏞)이 공민왕을 시해하려 했던 흥왕사(興王寺)의 변(變)을 평정시켰다. 그 공으로 훈 1등에 진충분의좌명공신(盡忠奮義佐命功臣)이 되었고, 이어 판밀직사사 평리(判密直司事評理)를 거쳐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1364년 원나라에 있던 최유(崔濡)가 덕흥군(德興君 : 충선왕의 셋째아들)을 왕으로 받들고 군사 1만 명으로 압록강을 건너 전주(宣州 : 평안북도 선천)에 웅거하였다. 이에 서북면도순위사(西北面都巡慰使)로서 이성계(李成桂) 등과 함께 수주(隨州 : 평안북도 정주)의 달천(獺川)에서 싸워 물리쳤다.

또, 연주(延州 : 평안북도 운산)에 침입한 동녕로만호(東寧路萬戶) 박백야대(朴伯也大)를 장수를 보내 격퇴시켰다. 이듬해교동(喬桐)·강화(江華)에 왜구가 출몰하자 동서강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동강(東江)에 나가 지켰다.

이 때 신돈(辛旽)의 참소로 계림윤(鷄林尹)으로 좌천되었다가 귀양길에 올랐다. 1371년신돈이 처형되자 6년 만에 풀려나 다시 찬성사가 되었다. 1373년에는 육도도순찰사(六道都巡察使)로 있으면서 군호(軍戶)를 편적(編籍)하여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였다. 또,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들로 부터 쌀을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1374년경상·전라·양광도도순문사가 되었을 때, 육도도순찰사 시절에 6도를 혼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사헌김속명(金續命) 등의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도리어 김속명이 파면되고 진충분의선위좌명정란공신(盡忠奮義宣威佐命定亂功臣)의 호가 하사되었다.

그 해 명나라가 제주도의 말 2,000필을 요구하였는데, 제주도의 호목(胡牧)이 300필만 보내왔다. 이에 제주도를 치기로 하고,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가 되어 도병마사염흥방(廉興邦)과 함께 전함 314척과 군사 2만 5,600명을 지휘, 제주도를 평정하였다. 그리고 1375년(우왕 1)에는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

1376년연산(連山)개태사(開泰寺)에 침입한 왜구에게 원수(元帥)박인계(朴仁桂)가 패배하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 때 노구를 이끌고 출정하기를 자원하여 홍산(鴻山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으며, 그 공으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77년에는 도통사가 되어 강화·통진(通津)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한편, 왕

으로 하여금 교동·강화의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군자(軍資)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 무렵 왜구가 침입하여 개성을 위협하므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군사로서 굳게 지킬 것을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1378년 왜구가 승천부(昇天府 : 지금의 豐德)에 침입하자, 이성계·양백연(楊伯淵) 등과 함께 적을 섬멸하고 그 공으로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다.

1380년에는海道都統使가 되어 동서강(東西江)에 나가 왜구를 막다가 병에 걸렸다. 이 때 왕은 공을 기록한 철권(鐵券)과 공을 치하하는 교서를 내렸다. 이듬해 아버지에게는 순충아량염검보세익찬공신(純忠雅亮廉儉輔世翊贊功臣)·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판문하사(判門下事)·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상호군(上護軍)·동원부원군(東原府院君)이 증직되고, 어머니 지씨(智氏)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 되었다. 그 자신은 수시중(守侍中)이 되었다가 이어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지냈고, 1384년 문하시중을 거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올랐다.

1388년 다시 문하시중이 되어 왕의 밀령(密令)으로 부패와 횡포가 심하던 염흥방·임견미(林堅味)와 그 일당을 숙청하였다. 그 해 그의 딸이 우왕의 비(寧妃)가 되었다. 이 때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의 설치를 통고하고 철령 이복과 이서·이동을 요동(遼東)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이에 요동정벌을 결심하고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왕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였다.

한편, 좌군도통사조민수(曹敏修), 우군도통사이성계로 하여금 군사 3만 8,800여 명으로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으나,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하여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위화도회군을 단행하고 기세가 오른 이성계의 막강한 원정군을 막지 못하여 결국 도성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는 고려 말기의 군벌(軍閥) 대립에서 고려왕조를 수호하려는 구파 군벌이 고려왕조를 부정하려는 신진 군벌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직용맹하고 청렴했던 그는 이성계에게 잡혀 고향인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합포(合浦 :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충주로 옮겨졌다가 공료죄(攻遼罪 :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갇혔고, 그 해 12월에 참수(斬首)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개성 사람들은 저자의 문을 닫고 슬퍼하였으며,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성계는 새 왕조를 세우고 나서 6년 만에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려 넋을 위로하였다. 개풍군(開豐郡) 덕물산(德物山)에 있는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적분(赤墳)으로 불린다. 그 산 위에는 장군당(將軍堂)이 있어 무당들에게 숭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송포백송(松浦白松)

송포백송(松浦白松)은 천연기념물 제6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62.12.03.이고 소재

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번지이다.

백송은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져서 흰빛이 되므로 백송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고도 한다. 중국이 원산지로서 조선시대에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가져다 심은 것이다.

송포의 백송은 나이가 약 25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1.5m, 가슴높이 둘레 2.39m이다. 나무의 모습은 옆에서 보면 부채살처럼 퍼져 역삼각형으로 보이며, 다른 백송에 비해 나무껍질이 희지 않은 편이다. 이 나무의 유래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조선 선조(재위 1567~1608) 때 유하겸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사절로부터 백송 두 그루를 받아, 그 가운데 한 그루를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최상규(송포 백송의 소유자)의 조상에게 준 것을 묘지 주변에 심은 것이 크게 자란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할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던 최수원 장군이 고향에 오는 길에 가져다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나무라고 하여 한동안 이 나무를 당송(唐松)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백송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10여 그루뿐인 희귀종이므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알려주는 나무로 역사적·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일산밤가시초가(草家)

일산밤가시초가(一山밤가시草家)는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1.10.19.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13에 위치하며 관리주체는 고양시이다.

‘밤가시 초가’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집으로 정발산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약 170년 전에 건립된 조선 후기 중부지방의 전통 서민 주택으로 옛부터 이 마을은 밤나무가 울창해 밤가시나 울동이란 지명이 유래 되었다. 하지만 일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이런 전통가옥들은 거의 사라졌고, 이 초가만이 정발산 북동쪽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살아남아 조선 후기 일산 지역 서민들의 생활상을 전달하고 있다.

가옥 이름은 예전 이 마을에 많았던 밤나무를 주요 구조재인 기둥, 대들보, 문지방, 문설주 그리고 마루와 서까래뿐만 아니라 가구나 주요 생활용품들에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다.

파리집이며 파리집은 평면 구성이나 지붕모양이 파리(또아리:머리 위에 짐을 얹을 때 고이는 물건 모양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외통집에 속하며, 안동(安東)지방의 뜰집과 유사한 평면구성이지만 칸수는 다르다. 파리집은 좌우 각각 4칸이며 안마당을 중심으로 담장없이 사방으로 방들이 배치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는 개성(開城)과 경기도의 서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량문(上樑文)의 ‘歲在丙戌三月十九日立柱上樑家主庚辰生(세재병술삼월십구일입주상량가주경진생)’이라는 글에서 1886년(고종 3)에 건립됨을 알 수 있다.



문에 들어서면 안마당 가운데 지붕에 하늘 구멍을 뚫어 놓았고 그 아래 마당을 한단 낮추어 꾸미고 있다. 이는 비나 눈이 올 때 떨어지는 낙숫물이 다른 곳으로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채는 안방·대청·건넌방·부엌으로 구성되어 ㄱ자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 마당을 지나 정면이 1칸인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안방, 왼쪽이 건넌방이다. 안방에서 ㄱ자로 꺾여 자리잡고 있는 부엌은 대문과 마주하고 있어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벽을 설치하여 통로를 이루었다. 안채의 지붕가구는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그 위에 4개의 도리를 가로지른 평사량구조이다. 초가지붕은 기와지붕과는 달리 중심에 뾰족한 용마루를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사량구조를 사용하였다. 대공은 판대공이고 종도리와 장여가 지붕재를 받치고 있다. 기둥은 162 162cm, 보는 200 230cm의 크기이고, 서까래는 장단연을 채용하였다. 굵기는 95, 간격은 340cm, 내밀기는 500cm이다. 도끼나 자귀로 거칠게 다듬고 서까래도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서민가옥의 소박하면서도 튼튼한 느낌을 준다.

건넌방 앞에는 마루바닥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툇마루가 있으며, 그 아래에 함시아궁이가 있다. 헛간채에는 소쿠리, 항아리 등 허드렛물건을 보관한다. 외부공간은 안마당, 바깥마당, 뒤뜰로 구성되었다. 안마당에는 수도, 바깥마당에는 우물, 부엌 뒤쪽에는 장독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서민 가옥의 소박한 느낌을 주는 건축물로 조선 후기 지방 농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집이다.

### 고양송포호미걸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주교동

‘호미씻이’·‘공굴(共屈)’·‘공회(公會)’·‘백중놀이’·‘두레놀이’·‘머슴놀이’·‘술메기’로도 불린다. 이 놀이는 농기에 호미를 걸어둠으로써,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고 피로를 푸는 잔치의 의미를 지닌 놀이이다. 이 놀이는 고양시 송포의 김매기소리와 고양 두레 12채 가락으로 구성된 농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8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송포(松浦)는 한강 하류의 벼농사지역으로 곡창지대가 발달한 곳으로서, 두레문화의 형태를 띠고 공동체적인 노동과 놀이가 발달해왔다. 이 지역에서는 음력 7월 7일경 두벌 또는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시점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호미걸이를 연행했다.

농기는 그 마을 공동체의 두레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농기의 버릿줄(또는 벌이줄, 버릿줄이라고도 함)에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것은 공동체의 휴식을 상징하면서 풍년을 염원하는 마을공동체적 신앙과도 연결된다.

1931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1977년 김현규(金鉉圭, 1942~2004)에 의해 발굴되어 재현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후 1998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에서 보존·전승하고 있으며, 2004년 작고한 김현규의 뒤를 이어 전수조교 조경희가 활동하고 있

다.

###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5.08.07.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2이다.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

대자동 간촌마을 금천군 묘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비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는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 빛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8m 폭 0.54m 두께 22.5cm이다. 대좌 위에 비신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하단의 좌측 부분은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신의 앞면에는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울처참’(‘禁標內犯入者 論棄毀制書律處斬’)이라 표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조 연산군 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울에 의해 처참한다.’는 것이다. 이 금표비는 금천군 이변의 묘역 안에 세워져 있는데 1995년 묘역의 보수 작업 중 묘역 앞에서 출토되었다.

연산군은 149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으로 있으면서 성균관 유생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모아 유흥장을 차리고, 선종(禪宗)의 본산인 흥천사(興天寺)도 마구간으로 바꾸고, 민간인이 한글로 연산군의 행동을 문제삼는 글을 올리자 이를 계기로 한글의 사용을 엄금한 일 등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로 결국 중종반정으로 임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후 강화도 교동(喬桐)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세상을 떠났다.

비가 서 있는 고양은 연산군 10년(1504)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이 되었다.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 비석은 금석문으로 희귀한 예일 뿐만 아니라 문헌의 사실을 고증해 주는 귀중한 예이다.

### 행주성당

행주성당은 등록문화재 제455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10.02.19.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행주외동)이다. 관리주체는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이다.

1910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으로 1928년 현 위치로 이축하면서 상량 목부재를 포함하여 당시 사용하였던 기초 부재를 대부분 재활용하였고, 1949년 증축하면서 기록한 상량 목서도 남아있어 건물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건물 뼈대를 구성하는 목조가구의 경우 최초 건립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잘 남아 있는 등 역

사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 행주대첩비(幸州大捷碑)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조선 중기의 비.

높이 178cm, 너비 82cm, 두께 18c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4호. 1593년(선조 26) 권율(權慄)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602년(선조 35)에 설립하였다.

대리석재의 비로서 기단부는 문혀 있다. 앞면의 상부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측면에는 상부에서 하단까지 약 3cm 정도로 쪼개져 있으며, 마멸이 매우 심하여 부분적으로 수십자밖에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비문은 최립(崔崧)이 짓고 한호(韓濩)가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元帥權公幸州大捷碑(원수권공행주대첩비)’ 9자를 두전(頭篆)하였다. 비음은 사위인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비문에는 막료와 사병들이 그의 공적을 사모하여 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동기를 적고 있다. 즉, 1593년 2월 권율이 정예군 2,300명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에 주둔,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육박전으로 승리하고 적군의 깃발·투구·갑옷·무기 등을 노획한 혁혁한 전공을 밝히고, 권율의 가문과 같이 좋은 가문에서 비롯된 인격과 덕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이를 기리지 않을 수 없어 비를 세운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 3. 고양의 전설과 민담 이야기

### 고봉산 한씨미인 이야기

『삼국사기』에도 수록된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고봉산 한씨 미녀 이야기’.

안장왕은 고구려 21대 문자명왕의 장남으로, 이름은 흥안이였다. 그런데 흥안이 태어난 시기는 삼국 중에서도 백제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였다. 지금의 고양시 지역도 그때는 백제가 다스리고 있었다.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지만, 백제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당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기에 고구려는 이곳을 어떻게든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태자였던 흥안을 백제에 몰래 잠복시켰다고 한다. 신분을 숨긴 채 스파이가 되어 백제의 약점을 파악하고 다니던 흥안은, 어느 날 백제의 여인인 한주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아, 어쩌면 운명은 이리도 가혹하단 말인가!’

흥안은 탄식했다. 첫눈에 반한 여인이 하필이면 적국의 사람이라니, 흥안은 안타까워했다. 더구나 둘 사이에는 신분 차도 있었다. 하지만 흥안은 한주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한주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한주 역시 남자답

고 늠름한 흥안에게 첫눈에 반해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지만, 흥안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신분과 백제에 잠입한 목적 때문이다.

‘나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적국에 잠입한 몸!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흥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한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컸기에 그런 다짐은 결국 소용이 없었다. 원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법. 흥안과 한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덧 흥안이 고구려로 돌아가야만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마음 같아서는 한주를 데리고 고구려로 떠나고 싶었으나, 혼자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탈출할 수는 없었다. 그건 한주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흥안은 고구려로 떠나는 날, 한주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오. 나는 사실 고구려의 태자 흥안이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백제의 약점을 알아내,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함이었소.”

갑작스런 고백에 한주는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신과의 이별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제 나는 고구려로 돌아가야만 하오. 내 약속 하겠소.

고구려로 돌아가는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이곳을 되찾고,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오.”

아름다운 달빛으로 물든 처마 밑에서 흥안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한주는 눈시울을 적셨다.

“저의 지아비는 당신뿐입니다. 제가 죽어 백골이 된다 한들 저는 당신만 바라볼 것입니다.

바라건대, 고구려로 돌아가시는 길에 부디 옥체保重하시고,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고구려에 돌아온 흥안은 얼마 후 고구려 22대 안장왕이 되었다. 그리고 한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하지만 백제는 너무도 강했고, 고구려는 거듭 패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주는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흥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둘은 금방 서로를 만나게 될 거라 믿으며 그리움을 달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태수가 한주의 아름다움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태수는 사람을 보내 한주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한주는 자신에게는 이미 장래를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며 청혼을 거절했다. 청혼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난 태수는 한주를 강제로 잡아들였고, 정혼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정혼자가 고구려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한주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태수는 ‘적의 첩자와 내통한 것이 틀림없다’며 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까지 했다. 한주의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에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 한주를 구해 오는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말했다. 그러자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수인 을밀이 앞으로 나섰다. 사실 을밀은 안장왕의 동생인 안학공주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한주를 구해 오면 상으

로 안학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는 그대가 용맹하고 지혜로운 장수임을 알고 있네. 만약 모두가 실패한 일을 그대가 성공한다면, 고구려 제일의 용사임을 증명하는 것.

그렇다면 안학공주의 짝으로 그대만 한 자도 없겠지. 한주를 구해 온다면 그대의 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겠네.”

을밀은 안장왕에게 요청해 스무 명의 병사들과 함께 백제로 떠났다. 마침 백제 태수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를 준비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을밀은 병사들과 함께 광대로 분장해 생일잔치에 참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편 태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한주에게 거듭 청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주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저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태수는 성대하게 자신의 생일잔치를 벌였다. 한창 잔치의 흥이 올랐을 때, 태수는 옥에 갇혀 있던 한주를 그 자리로 끌고 오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었다.

“오늘 내 생일을 맞이하여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내 아내가 되겠느냐?”

모진 옥살이와 고문에도 한주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대답 역시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다.

“저는 이미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분뿐입니다.”

생일잔치에 흥이 올라 있던 태수는 공개된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에 불같이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한주의 목을 치라고 명했다. 그때였다! 광대로 분장해 있던 을밀과 부하들은 숨겨뒀던 무기를 꺼내 들고 삼시간에 그곳을 장악했다.

“모두들 행복하라! 이미 이곳에는 고구려의 대군이 포진해 있다! 살고 싶다면 행복하라!”

그곳에는 백제의 병사들도 있었으나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미처 대응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대군이 포진해 있다는 말에 모두 무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했다. 을밀은 그 혼란을 틈타 한주를 구했다.

“아씨, 저는 고구려의 장수 을밀입니다. 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면 안장왕께서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점령할 것입니다. 어서 봉화를 올리십시오. 여긴 저희가 맡겠습니다.”

한주는 을밀의 말대로 고봉산에 올라 봉화를 올려 자신이 구출됐음을 안장왕에게 알렸다. 애가 타게 한주의 소식을 기다리던 안장왕은 봉화가 오르는 것을 보고 뿔 듯이 기뻐했다. 그렇게 안장왕과 한주는 다시 만나게 됐다. 안장왕은 한주를 고구려로 데려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물론 을밀에게 한 약속도 지켰다. 게다가 안장왕은 이때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강 지역을 되찾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의 「지리지」에 실려 있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고양 밥할머니(북한산 정경부인 오씨 이야기)

‘밥 할머니’라 불리기도 하는 ‘북한산 정경부인 이야기’는 나라를 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불광동(현재 연천마을)에 살고 있던 오 씨 부인입니다. 오 씨 부인은 지혜롭고 현명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워낙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 무슨 문제든 척척 해결해내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오 선비’라고 불렀어요.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때, 나라는 전쟁에 휩싸여 있었어요.

선조 25년(1592년),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땅을 탐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1592년을 ‘임진년’이라고 하는데, 임진년에 일어난 ‘왜(일본)’와의 전쟁이라는 뜻에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이듬해인 1593년에는 오 씨 부인이 살던 마을도 전쟁의 피해를 입었어요. 안타깝게도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에 밀려 거듭 후퇴했고, 그러다 보니 왜군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오 씨 부인의 마을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요. 왜군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창릉천에 진지를 치고 머물렀어요. 조선과 명나라의 병사들은 북한산에 갇힌 채,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가고 있었지요. 다친 병사가 많았지만 치료는커녕 끼니도 잇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 씨 부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병사들이 굶고 있다니,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 왜군들에게 이 마을이 짓밟히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오 씨 부인은 병사들을 위해 창고의 쌀을 꺼내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주먹밥을 바꾸니 가득 담아 왜군의 눈을 피해 북한산에 올랐어요. 깊은 밤에 산을 올라본 적이 있나요? 달빛조차 비추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 보면 나무 위에서, 바위 뒤에서 무서운 산짐승이나 귀신이 나타날 것만 같아 여간 무서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남자들도 겁을 집어먹기 쉽지요. 더구나 왜군에게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오 씨 부인은 그 무서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오 씨 부인이 목숨을 걸고 전해 준 주먹밥은 며칠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굶주렸던 병사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오 씨라 하옵니다. 장군님을 뵙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병사들이 주먹밥을 먹는 동안, 오 씨 부인은 병사를 이끌고 있던 장군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신에게 왜군을 무찌르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 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장군들은 모두 그 지혜에 탄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오 씨 부인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선의 병사들은 밤마다 북한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노적봉을 뿔뿔이 감쌌어요. 오 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은 왜군 몰래 병사들에게 뿔뿔과 음식을 전해줬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노적봉이 거의 뿔뿔이 가려지자, 오 씨 부인은 빈 광주리 하나를 들고 북한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왜군을 피해 밤에 오른 것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

올랐답니다. 평범한 아낙이 산에 오르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었으니 왜군들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하지만 산에 올랐던 오 씨 부인이 다시 내려올 때, 왜군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빈 광주리를 들고 갔던 오 씨 부인이 내려올 때는 광주리 가득 흰 쌀을 담아 온 거지요.

“넌 누구냐? 그리고 그건 웬 쌀이지? 사실대로 말하라!”

“저는 요 아랫마을에 사는 아낙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산속에서 병사들이 쌀을 나누어준다고 해서 받아 오는 길입니다.”

“그게 사실이나? 조선군에게 쌀이 남아 있다고?”

“남아 있다 뿐이겠습니까? 내 살다 살다 그렇게 많은 쌀이 쌓여 있는 건 처음 봤지 뭐예요?”

오 씨 부인의 말을 들은 왜군들의 눈에도 저 멀리 곡식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물론 그건 진짜 곡식 더미가 아니라, 오 씨 부인의 말에 따라서 병사들이 벗짚으로 가려둔 노적봉이었지요. 하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정말 곡식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때마침 평소에 맑았던 창릉천에 뿌연 물이 흘러왔어요. 그걸 본 오 씨 부인은 왜군들에게 그 뿌연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 많은 병사들이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니 이렇게 뿌연 물이 흘러 오는 것 아니겠어요?”

산속에서는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걸 본 왜군들은 정말로 조선군이 밥을 짓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지요. 그 모습에 왜군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왜군들도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힘들 거라 생각했던 적군에 쌀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충격이 컸던 거지요. 왜군들은 어찌나 굶주렸던지, 쌀을 씻은 물이라도 마시겠다고 달려들어 뿌연 물을 마구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모두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어요. 왜군이 들이마신 뿌연 물은 쌀을 씻은 물이 아니라, 사실은 석회를 뿌린 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왜군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고, 손쉽게 왜군을 물리쳤답니다. 이 모든 것이 오 씨 부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이었던 거지요. 이때의 활약으로 오 씨 부인은 ‘밥 할머니’라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오 씨 부인은 전쟁이 날 때마다 배고픈 병사들에게 밥을 지어서 먹이고, 부상을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 오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그녀를 ‘정경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어요. 그리고 노적봉이 잘 보이는 곳에 그녀를 기리는 석상을 세웠습니다. 바로, 지금의 창릉 모퉁이 공원에 있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인 ‘밥 할머니 석상’이 선조가 세운 오 씨 부인의 석상이랍니다.

## 원당 아기장수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고양시 국사봉이 있는 곳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뿐이었죠. 그 마을에서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본 아빠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겨드랑이에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아기는 힘차게 날개를 펼치더니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어른 남자 셋이서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혼자서도 번쩍 들었어요. 아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날아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했어요. 국사봉에도 자주 놀러갔는데, 하루는 쉬가 마려워 바위에 오줌을 싸더니 바위에 오줌자국이 생겼다고 해요. 정말 전설 속의 장사들처럼 힘이 셨던 거죠. 그리고 아기가 가는 곳이면 다섯 마리 말이 꼭 함께 따라 다녔다고 해요. 사람들은 장수처럼 힘이 세다고 하여 이 아기를 ‘아기장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장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더 세졌어요. 점점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호신으로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기장수가 있어서 든든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무렵 왜군이 이 마을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마을에 힘이 센 아기장수와 다섯 마리의 말이 있다는 소문이 왜군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렇게 힘이 세다면 앞으로 우리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어.”

왜군은 아기장수가 자신들이 마을을 침략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군은 아기장수를 없앨 계략을 세웠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아기장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기장수가 커서 어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려 들 거다!”

“왕의 귀에 아기장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려 할 것이다.”

물론 아기장수는 힘이 세고 날개가 있다는 점만 빼면 그냥 평범한 아기였어요.

하지만 힘없고 가난했던 마을 사람들은 왜군의 소문에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아기장수를 보면 자기들끼리 수군댔습니다.

“아기장수가 크면 우리를 해칠지도 몰라.”

“아기장수를 죽여야 우리 마을이 살 수 있어!”

“왕의 귀에 아기장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면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지도 몰라.”

“어서 빨리 아기장수를 죽여야 해!”

이런 나쁜 소문이 계속 돌자 마을 사람들은 아기장수를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아기장수 가슴에 돌을 올려 도망가지 못하게 했죠. 힘이 어찌나 세던지, 바위처럼 큰 돌을 몇 개나 올린 다음에야 아기장수가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아기장수는 자기 덩치보다 큰 바위에 깔려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아기장수의 날개를 불로 지져 없앴어요. 그러자 아기장수는 죽고 말았답니다. 아기장수의 죽음을 슬퍼한 다섯 마리 말들도 서글프게 울다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박고 죽었지요.

“하하하! 멍청한 놈들. 이제 이 마을은 우리 땅이다!”

아기장수가 죽자, 그때를 노리고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



석은 행동을 했는지 후회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유일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던 아기장수는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 없앤 후였으니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왜군의 칼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 효자 박태성 이야기

조선 말, 한양 인근에 효심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효자였는지, 한양 근방 주민들 중 박태성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세월이 흘러, 박태성의 아버지인 박세걸이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옆에 막을 짓고 3년간 사는 걸 시묘(侍墓)라고 하는데, 박태성은 아버지의 장례 후 시묘(侍墓)를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시묘 이후로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안을 드리곤 아버지 묘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무악재 박석고개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 인왕산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도 오르기를 꺼리는 곳이었지만, 박태성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 매일 오르내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던 박태성 앞에 그 유명한 인왕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박태성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아직도 나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에 박태성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호랑이님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자식 된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고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겠다.”

그러자 박태성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박태성을 비웃었습니다.

“제법 용감한 놈인 줄 알았더니 한심하게도 눈물을 흘리다니, 죽음이 그토록 두렵더냐!”

박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죽으면 더 이상 아버지께 문안인사를 올리질 못할 테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박태성의 깊은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벌벌 떨면서 우는 사람을 많이 봐왔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목숨이 아까워서 울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효심을 잃지 않는 박태성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너처럼 효심이 깊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타거라. 네 아버지의 묘까지 데려다 주겠노라.”

그러면서 박태성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박태성은 깜짝 놀랐지만, 우선은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려 정말로 박태성을 아버지의 묘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날 이후로도 호랑이는 매일 무악재 고개에서 기다리다가 박태성을 아버지의 묘 앞까지 태워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박태성과 호랑이가 처음으로 만난 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어요. 박태성도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태성은 아버지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박태성의 묘 앞에서 숨을 거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40년간 박태성과 우정을 쌓아온 바로 그 인왕산 호랑이였지요. 사람들은 박태성과 호랑이의 우정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박태성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박태성과 이에 감동한 인왕산 호랑이의 우정 이야기는 현재 덕양구에 있는 효자동의 유래가 됐어요. 지금도 북한산 아래쪽인 고양시 제청말 마을에는 박태성과 그 아버지인 박세걸, 그리고 인왕산 호랑이의 묘가 함께 있습니다.

## 고봉산과 심학산

아주 옛날에 좋은 땅을 가지려고 서로 싸운 산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고봉산과 심학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고봉산은 널찍하고 좋은 터를 보고 그곳에 자리를 잡기로 했어요. 지금의 고양시에 있는 땅이었지요.

“저기 아주 좋은 땅이 있구나! 그래, 나는 저기에 터를 잡아야겠다!”

그런데 심학산 역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싶어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고봉산은 심학산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심학산! 저기는 내 땅이야! 내가 점찍어둔 곳이니까 꿈도 꾸지 마!”

심학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무슨 소리야! 거기는 내가 훨씬 오래 전부터 봐둔 곳이라고! 그러니 네가 포기해!”

결국 고봉산과 심학산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움을 하게 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덩치가 더 큰 고봉산이 심학산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점찍어둔 곳에 터를 잡게 됐답니다. 고봉산이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산 백운봉이 놀러 왔어요. 둘은 예전부터 친구였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고봉산은 밤새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근처에 흐르던 한강에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고봉산이 잠결에 엄청난 양의 오줌을 쏘고, 아래쪽에 터를 잡았던 심학산 근처에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학산 근처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마을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이에 화가 난 심학산은 고봉산에게 호통을 쳤어요.

“야, 고봉산! 너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봤잖아!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도 화가 덜 풀린 심학산은 고봉산에게 바위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술이 덜 깬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위에 맞자 고봉산도 화가 났지만, 자기가 잘못된 건 알고 있었으니 대꾸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학산이 던진 돌 때문에 고봉산 근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돌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주던 개성의 송약산은 더 이상 이대로 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송약산에게는 정발산과 오두산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중 정발산을 고봉산에게, 오두산을 심학산에게 시집보내기로 한 거지요.

고봉산과 심학산은 아름다운 신부가 생기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툼 일도 없었고, 서로 더 친해지게 됐답니다.

시간이 흘러 정발산과 오두산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자 고봉산이 심학산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심학산. 우리가 또 다투면 안 되니까, 우리 자손들을 이 근처에서 살게 하는 게 어때?”

심학산이 보기에도 좋은 생각이었어요.

“좋아. 우리 두 산 사이에 자손들을 살게 하자고.”

그래서 고봉산 밑에는 고봉산과 정발산의 자손인 고(高) 씨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심학산 밑에는 심학산과 오두산의 자손인 심(沈) 씨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됐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짝을 만나고 자손들까지 낳은 고봉산과 심학산은 지금도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4. 근현대 고양의 이야기

###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고양의 명산 북한산

북한산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五嶽) 중 하나. 30개가 넘는 봉우리 중 백운대, 인수봉, 노적봉, 영봉, 비봉,문수봉, 보현봉 등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 모든 봉우리는 하나하나마다 모두 저만의 매력이 있지만, 시간에 모두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백운대에 오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백 명이 앉아 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백운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북한산 전경과 고양시의 풍경이 일품입니다. 암벽 등반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 각광받는 암벽 코스인 인수봉에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산책을 즐기려는 사람이라면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가을날 돌길을 따라 노적사(露積寺)를 찾아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대한민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전시장, 킨텍스

국내 전시·컨벤션 센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설립한, 아시아 4번째 규모이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장. 다양한전시회와 컨벤션,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리며, 국제회의 시설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과 전시회도 자주 열리며, 그중에는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단위로 찾기에 좋습니다. 또한, 유명 맛집과 카페가 입점해 있어서 공연이나 전시 관람과 식사 후에 차 한잔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 **아이와 가도 좋은 힐링타임,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 첫 개최 이후 회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운영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 2016년 제10회 박람회까지 누적 관람객 수 600만 명을 넘기며 명실상부 국제적인 꽃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외 수백 개의 업체가 참가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고양을 수놓습니다. 시각과 후각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박람회로 유명합니다. 연인과 혹은 부부끼리, 또는 가족 단위로, 그 누구와 함께 찾더라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다양한 문화예술의 터, 어울림누리과 아람누리**

공연부터 문화예술 교육, 체육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는 고양어울림누리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전문공연 예술센터인 아람누리. 특히 아람누리는 리처드 스미스 「뉴스위크」前 회장이 2007년 방문 당시 세계 최고의 공연장인 ‘카네기홀’이나 ‘링컨센터’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뮤지컬부터 연극까지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도 운영 중이고 유명 맛집들이 입점해 있으니 꼭 공연 관람 목적이 아니더라도 언제 방문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먹거리와 볼거리 가득한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스트리트형 테마 쇼핑몰’로 유명한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사람과 도시와 자연이 만나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신개념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라페스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있는 이 두 곳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두 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라페스타에서 쇼핑과 구경을 즐긴 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웨스턴돔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면 완벽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 Ⅲ. 파주의 문화유산 이야기

#### 1. 파주의 역사 이야기

##### (1) 개관

동쪽은 양주시, 서쪽은 남부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와, 북부는 임진강을 경계로 개풍군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고양시, 북쪽은 연천군에 접하고 있다. 동경 126°41'~127°01', 북위 37°42'~38°07'에 위치한다. 면적은 672.78km<sup>2</sup>이고, 인구는 42만 3321명(2015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4개 읍, 9개 면, 7개 행정동(22개 법정동), 246개 행정리(104개 법정리)가 있다. 시청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있다.

##### (2) 자연환경

마식령산맥의 말단부에 속하고 북서쪽에는 임진강이 서남류하고 있어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에는 감악산(紺嶽山, 675m)·노고산(老姑山, 401m)·금병산(錦秉山, 293m)·팔일봉(464m)·앵무봉(622m)이 양주시와, 남쪽에는 황룡산(135m)·명봉산(248m) 등이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평산(坡平山, 496m)·봉서산(鳳棲山, 216m)·월룡산(月籠山, 229m)·박달산(368m) 등이 남쪽으로 가면서 낮게 펼쳐져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서쪽과 서쪽 경계를 흐르는 임진강과 서남쪽을 흐르는 한강이 있다. 임진강 지류로 서남류하는 남월천과 북서류하는 문산천, 서류하는 곡릉천 등이 있는데, 이들 하천이 지나가는 시의 서쪽에는 해안 평야가 넓게 전개되어 곡창지대를 이룬다.

임진강 하류지역은 만조 때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탄현면과 장단면의 하안가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고 있다. 해수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홍수시에는 만조시기와 겹치면 문산읍까지 해일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나 인공방조제의 건설로 피해가 많이 감소되었다.

지질은 시생대에 속하는 운모편마암·편마암 그리고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10.5°C, 1월 평균기온 -4°C, 8월 평균기온 25°C이며, 연강수량은 1,300mm 내외이다.

##### (3) 역사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여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과 술이홀현(述爾忽縣)이 설치되어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757년(경덕왕 16) 지방제도 개편 때 파해평사현은 파평현(坡平縣)으로 개칭되어 내소군(來蘇郡)의 영현으로 되고, 술이홀현은 봉성현(峰城縣)으로 개칭되어 교하군(交河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파평현과 봉성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018년(현종

9)에 파평현은 장단현(長湍縣)의 속현이 되었고 봉성현은 양주(楊州)의 속현이 되었다. 그 뒤 1062년(문종 16)에 파평현이 개성부(開城府)에 내속(來屬)되었으며, 1106년(예종 1)과 1172년(명종 2)에 각각 파평현과 봉성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387년(우왕 13)에는 봉성현이 서원현(瑞原縣)으로 개칭되면서 감무 대신 현령이 파견되었다.

조선 초인 1393년(태조 2) 서원현이 이민(吏民)들의 청원에 의해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398년에는 파평현과 서원군이 합해져 원평군(原平郡)으로 개편되었다. 1414년(태종 14)에 교하현이 내속해옴으로써 1,000호(戶) 이상이 되어 다음해에 원평도호부(原平都護府)로 승격되었다.

1418년에는 교하현이 다시 독립함에 따라서 1,000호 미만이 되어 마땅히 군으로 강등되어야 할 것이나 이민들이 호소하여 그대로 도호부로 남게 되었다. 1460년(세조 6)에는 왕비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의 고향이라 하여 파주목(坡州牧)으로 승격되었으며, 1504년(연산군 10)에 이곳이 유행지소(遊幸之所)로 되어 파주목이 폐지되고 이웃 고을에 분속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파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13년(광해군 5)이의신(李懿信)에 의해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 :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에서 파주의 교하로 서울을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1895년(고종 32) 부군제 실시에 따라 파주군으로 고쳐져 한성부 관할이 되었으며, 다음해 13도가 설치되면서 경기도 관할로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하군 전역과 양주군·고양군·적성군(積城郡) 일부가 각각 파주군에 폐합되어 주내·천현·월룡·광탄·조리·임진·파평·와석·청석·탄현·아동 등 11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1934년에는 청석면(靑石面)과 와석면(瓦石面)이 합쳐져 교하면으로 되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종래 연천군 관할이었던 적성면과 남면이 이 군에 편입되었으며, 다음해남면은 다시 양주군으로 편입되었다. 1963년에는 전 장단군 군내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 임진면에 편입됨에 따라 이웃 연천군과의 행정구역 조정이 대폭 이루어졌고, 1972년에는 전 장단군의 장단면·진서면·진동면이 이 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아동면(衙洞面)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각각 승격되었으며, 1979년군내면 백련리통일촌(統一村)에 군내출장소(郡內出張所)가 설치되었다. 1980년주내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3년에는 파주읍으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영장리가 광탄면에, 파평면 이천리가 문산읍에 편입되었으며, 광탄면영장출장소(靈場出張所)가 설치되었다.

1987년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양주군 백석면으로 편입되었다. 1989년교하면 상지석리의 일부가 조리면에 편입되었고, 천현면이 법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0년장단면 정동리가 설치되었다. 비옥한 평야와 관광 명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으로서 1996년 3월 1일금촌읍 전체가 동으로 되고 군 자체가 시로 승격되었다. 2002년 4월 1일교하면과 조리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 (4) 유물과 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가월리·주월리구석기유적(사적 제389호), 덕은리 주거지 및 지식묘군(사적 제148호), 다울리·당하리 지식묘(경기도 기념물 제129호) 등이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오두산성(坡州烏頭山城, 사적 제351호), 칠중성(사적 제437호), 덕진산성(사적 제537호), 월룡산성지(경기도 기념물 제196호)가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용미리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보광사송정칠년명동종(普光寺崇禎七年銘銅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보광사대웅보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 용상사(龍床寺), 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 등이 있다. 이외 혜음원지(사적 제464호)가 있다.

유교문화재로는 파주이이유적(사적 제525호), 파산서원(坡山書院,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교하향교(交河鄉校,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 파주향교대성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3호), 적성향교, 용주서원(龍洲書院) 등이 있다.

능과 묘로는 조선 인조와 인조 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의 능인 장릉(長陵, 사적 제203호), 조선 예종 비 장순왕후(章順王后)와 성종 비 공혜왕후(恭惠王后), 영조의 장자 효장세자(孝章世子 : 眞宗)와 그의 비 효순왕후(孝純王后)의 능인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소령원(昭寧園, 사적 제358호) · 수길원(綬吉園, 사적 제359호)이 있다.

이 밖에 윤관장군묘(尹灌將軍墓, 사적 제323호), 황희선생묘(黃喜先生墓, 경기도 기념물 제34호), 정연묘(鄭淵墓, 경기도 기념물 제139호), 황희선생영당지(黃喜先生影堂址,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이세화선생묘(李世華先生墓, 경기도 기념물 제60호)가 있다. 또한 이회선생신도비(李懷先生神道碑,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성혼선생묘(成渾先生墓,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윤곤선생묘(尹坤先生墓, 경기도 기념물 제106호), 신사임당묘(申師任堂墓) · 이이선생묘, 허준선생묘(許浚先生墓,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이 있다.

그리고 김덕함(金德誠) 묘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44호), 심지원(沈之源) 묘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37호), 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명등(보물 제1323호) 등이 있다. 이외 춘곡정탁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73호), 유향 한수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87호), 사재 김정국묘역(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호) 등이 있다.

고건물로는 반구정(伴鷗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화석정(花石亭,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등 황희, 이이가 만년에 자연을 벗삼아 학문을 논했던 정자가 있다.

근대문화유적으로는 6·25사변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임진각(臨津閣) · 통일공원(統一公園) · 판문점(板門店)과 자유의 다리(경기도 기념물 제162호) 등이 있다.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 분단된 국토의 남북을 잇는 가교로서 길이는 약 83m이다. 이외에 장단면 동장리에 구장단면사무소(등록문화재 제76호) · 구장단역지(등록문화재 제77호) · 경의선증기기관차화통(등록문화재 제78호), 장단면 도라산리에 경의선죽음의다리(등록문화재 제79호)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와 적성면의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 교하물푸레나무(경기도 기념물 제183호)가 있다.

무형문화재로는 궁시장(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와 금산리민요보존회(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가 있다.

## (5) 교육과 문화

옛 교육기관으로는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가 파주·교하·적성 등 세 곳에 있는데, 이는 파주군이 조선시대에는 파주목·교하현·적성현의 셋으로 독립되어 각기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향교는 국가에 소속된 학교로서 지방에 있는 양반자제들을 가르쳤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 용주서원(龍州書院)·파산서원(波山書院)·자운서원 등이 설립되면서부터 관학인 향교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하여 서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됨으로써 근대교육 이전에 있어서의 교육기능은 향교와 서원이 거의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현재의 교하초등학교가 1907년 사립 선성학교(宣城學校)로 가장 일찍 개교하였고, 1909년파주보통학교와 적성보통학교가, 1914년문산보통학교가 각각 개교하였다.

2015년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7개교, 특수학교 2개교와 응지세무대학교가 있다.

문화시설로는 군립도서관이 있어 교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문화원에서는 매년 10월 중에 울곡문화제(栗谷文化祭)를 개최하고 있다.

## (6) 민속

파주시의 중요한 민속놀이로는 원평민속농악놀이(原平은 파주의 옛 이름)를 들 수 있다. 농악놀이는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전래되어오는 독특한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옛날에는 어느 지방에서나 성행했으나 이 고장에서는 한동안 소멸되었던 것을 10여 년 전부터 일으켜 경기농악의 원형을 재연하게 된 것이다.

농악놀이는 음력정월과 팔월 한가위·사월 초파일·오월 단오·백중날 등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이나 뜻있는 날에 노는 것으로 평소에는 농사에 종사하면서 두레패를 꾸며 공동작업으로 능률을 올리고 또한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계절적으로 놀기도 한다. 가을의 수확이 끝나면 동네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걸립농악(乞粒農樂)을 꾸며 골고루 갖추어 동네를 돌기도 한다.

이때에는 우선 기를 앞세우고 풍물잡이·영좌 등 20~30명으로 편성되며 12채가락을 치며 동민들과 함께 어울려 흥겹게 노는 것이 보통이다. 놀이가 끝나면 집집마다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고사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멋진 덕담으로 축원을 해준다.

동제로서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패동심학산(尋鶴山) 산신제는 이 산이 영험한 곳이라 하여 3년마다 못자리가 끝나는 음력 3월에 날짜를 택해 밤 12시에 행해진다.



산 상봉에 있는 넓적한 바위를 제단으로 하여 이곳을 북바위라고 하며, 쇠머리를 바치고 제물을 올려 축문을 읽는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엄숙히 진행된다. 제를 지내기 전에 동네 어른 중에서 제관을 뽑아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일이 없게 근신함은 물론,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이 엄격히 규제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산신제는 5개 리가 합동으로 지내는데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사람들은 동네별로 음식을 장만하여 먹으며 각각 포장을 치고 함께 어울려 논다. 이 때 무당들이 3일간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 소원성취를 빌며 굿을 하는데 굿이 끝나는 대로 하산하게 되어 있다.

### (7) 설화와 민요

파주시에 전해 내려오는 「소개비냥의 전설」은 자신의 힘을 믿고 행패를 부리다가는 더욱 힘이 센 장사를 만나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이다. 탄현면 대동리의 소개비냥은 과거에 절벽으로 되어 있었고, 아래는 수심이 깊었으며, 비냥 위로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소로가 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이 고을의 장사 김승경은 주먹으로 내려치면 바위가 갈라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근 마을을 드나들면서 행패가 무척 심했다고 한다. 김승경이 하루는 소개비냥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역시 말을 타고 오는 젊은 초립동이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 길을 비키라는 시비 끝에 김승경이 화를 내며 젊은 초립동이를 발로 걷어차니, 초립동이는 말과 함께 벼랑 밑 강물로 떨어졌다. 그러나 사람과 말이 수면에 닿는 순간, 이 초립동이는 말을 안고 그 높은 벼랑을 단숨에 뛰어올라 왔다.

초립동이는 놀라서 도망치는 김승경을 잡아, 몹쓸 짓을 많이 한 김승경의 한쪽 팔과 다리를 부숴 더 이상 행패를 못하게 하였다. 이에 크게 깨달은 김승경이 성격이 불량하고 행패가 심한 세 아들을 엄히 훈계하여 착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설화는 적성면 두지리 앞강에 마치 말이 머리를 물에 대고 있는 듯한 형상의 용머리(龍頭山)에 얽힌 전설이다. 옛날 이 용머리 근처에 살았던 구두쇠노인에게 시주를 하러 왔다 거절당한 중이, 용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켜 명당이니 묘를 쓰면 큰 부자가 되리라고 하였다. 이 말을 믿은 구두쇠노인이 그곳에 묘를 쓰자, 혈을 끊게 되어 핏물이 솟아오르고 노인은 망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적성면 장좌리의 「장자못전설」, 파평윤씨의 시조 윤신달이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말라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여음탄전설(如飲灘傳説)」, 윤관이 죽자 그의 여진족 첩인 웅(熊)이 몸을 던져 순사하였다는 「곰소전설[熊潭傳説]」, 3,000명의 도둑이 웅거하여 그 이름이 되었다는 월룡산 뒤편에 있는 삼천도둑골의 지명유래담 등이 이 고장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고장에 구비전승되는 민요는 노동요와 타령요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지방의 일반적 특징이다. 노동요 중에는 「모내기소리」가 대다수인데 이는 이 고장이 평야지대로 논농사가 주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허나허나」(모내기소리)인데 이는 선창중답식의 노래로 후렴이

‘허나허나’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와음으로 모를 하나하나 심어간다는 뜻이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천하만민들 농민들 들어보소/ 허나허나 한알기로구나(후렴)/ 한톨종자 땅에 묻어 공력들여 길러서(후렴생략)/ 허나소리 나기를 연달아 들어보소(후렴생략)/ 여기저기 꽃아도 마늘모로만 심어라…….”와 같다.

가락이 단조롭고 느리나 일의 속도에 따라 변화된다. 선창자가 가사를 부르면 다른 여러 사람들은 후렴을 합창하면서 모를 낸다. 가사는 모를 가지런하게 잘 심어서 풍년을 맞자는 내용이 일반적이고 더러는 쉬 늘어가는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기도 한다. 「범벅타령」은 4음2보의 운율이 정연한 가창민요로 가락은 단조롭고 느리며 가사는 셋서방을 둔 아내의 불륜장면을 목격하여 셋서방을 쫓아내는 극적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설화적 민요이다. 민요와 소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는 노래이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 이도령이 내려와서 여보여보 문을 여오/ 계집년의 거동보소 문열랜 소리에 깜짝 놀래 김도령 주체를 어찌할까/ 삼대사대 내려오던 뒤편 속에 다 집어넣고/ 금거북 자물쇠로 어숙비숙 채워놓고/ 문열러 나가면서 계집년이 하는 말이/ 외방 장사 나간다드니 아닌 밤중에 웬일이오/ 이도령 하는 말이/ 고개고개 넘어가서 돌팔일 만났거늘/ 일년신수를 보니까는 삼대사대 내려오는 뒤편로 해서/ 안된 다기에 뒤편을 캐러 들어왔소/…….”와 같다.

문답형식과 해학성이 뛰어난 희곡적인 내용은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오락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 (8) 산업과 교통

전 토지의 41.3%가 임야이고 경지는 19.3%이며 하천 7%, 도로 2.6%, 공장용지는 0.9%이다. 임진강과 한강 하류의 유역평야에 입지한 파주시는 기름진 곡창지대의 하나인데 경지 중 논은 8,848ha, 밭은 4,558ha이다. 이들 농경지에 연풍·오산·곡릉저수지 등이 관개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감자·콩 이외에 채소류로 배추·무·파·마늘·호박·오이·참외·수박 등이 생산되고, 특용작물로는 인삼·참깨·들깨, 과실류로 사과·배 등이 생산된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인 2만 7132명인데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인구는 전체인구의 10.6%인 3만 3056명이다. 수도권 개발유보지역에 속해 있고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접해 있어 2·3차 산업의 발달이 부진했으나 통일로와 자유로의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소규모의 공장이 계속 집중하고 있다.

주요 광산물은 규석과 석회석이 생산되고 제조업은 조립금속공업·섬유공업·식료품공업·비금속공업·종이인쇄공업 등이 발달하고 있다. 최근 LG CD단지가 조성되면서 최첨단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다.

상업시설로 정기시장·상설시장 등이 있다. 금촌장이 1·6일, 문산장이 4·9일, 법원장이 3·8일, 봉일천장이 2·7일, 신산장과 적성장이 5·10일에 열린다. 이곳에서는 나물류와 채소류, 그리고 토산품·생활필수품이 거래되고 있다. 상설시장으로는 금촌시장·문산시

장·선유시장·파주시장·연풍시장·자유시장·봉일천시장·광탄시장이 있다.

도로는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는데 이 도로는 1972년 4차선으로 직선화되어 통일도로로 명명되었다. 이 도로의 개설로 서울~파주간의 지역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문산읍에서 국도 37호선이 동북진하고 있다. 1993년 4차선 도로가 한강과 임진강변을 따라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개통되었는데 이 도로는 자유로라고 불린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일산~문산읍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 (9) 관광자원

이 지역에는 광주산맥의 영향을 받아 저산성 산지들이 기복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임진강이 한강으로 흘러들면서 주변에 많은 관광요소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월롱면 덕은리에서 발견된 고인돌 무리는 이곳에 서기전 7~8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동양에서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하리와 다울리를 비롯한 곳곳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남과 북을 잇는 서부 교통의 중심지이었으므로 역과 원이 많은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광탄원이다. 특히, 파주는 서울~개성거리가 거의 같은 지점에 위치하여 나그네가 많이 머무르던 곳이며 안성장 다음가는 파주장은 쇠전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파주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사람과 문물이 거쳐 지나가는 길목으로써의 구실이 더 컸던 지역이다. 또한, 파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임진강 주변은 자연경관이 빼어나 관광지가 발달되어 있다. 하상은 물살이 빠르고 강변에는 층층이 톱날 모양으로 깎인 바위가 늘어서 있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 외의 주요 관광명소로는 용미리의 부처돌입상, 덕은리의 옛주거지와 고인돌군, 갈현리의 장릉, 조리면의 공·순·영릉, 교하동한강 하류의 재두루미도래지, 파주읍 봉서리의 통일공원, 탄현면오두산의 통일전망대 등이 있다.

또한 법원읍 동문리의 자운서원, 광탄면 부수리의 윤관장군묘와 영장리의 보광사, 문산 마정리임진각 전면에 있는 반공전시관, 사목리의 반구정, 파평면 울곡리의 화석정, 파주향교 등이 있어 서울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관광코스이다.

## (10) 행정구역

### 1) 문산읍(文山邑)

시의 중북부에 위치한 읍. 면적 47.23km<sup>2</sup>, 인구 4만 8014명(2015년 현재). 읍 소재지는 문산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칠정면이라 하여 당동·창내·이천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마정면(馬井面)·칠정면(七井面)·신속면(新屬面)·운천면(雲泉面)·오리면(烏里面)의 각 일부 리가 병합되면서 임진강의 이름을 따서 8개 리로 개편되었다.

1963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장단군 군내면의 7개 리가 편입, 1972년에 백련·조산·읍내

등 7개 리가 군내면으로 이관되었다. 1973년에 월롱면 내포리 일원이 편입되었고, 임진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문산읍으로 개칭되었다.

1979년에 군내면에 군내출장소가 개설되어 이 구역에 관한 행정권을 이관하였다. 1983년에 파평면 이천리가 편입되었다.

동북 방향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평야지대에 가깝다. 임진강 물줄기가 동북쪽에서 남서 방향에 이르기까지 면 경계를 이루며, 그 지류인 운천천이 중앙을 가로지르며 흐른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갖춘 까닭에 예로부터 농업과 어업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임진강 연안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메기·뱀장어·잉어 등이 잡힌다. 축산업으로 한우·돼지·닭·오리 등이 사육된다.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관련 업체가 분포한다.

자유로의 종착지점이자 1번 국도인 통일로와 각종 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이자 남북교류의 길목에 해당하며,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전원도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문산역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 북서쪽에서 중앙 남단을 지나는 37번 국도, 이 외에도 315번 지방도가 읍 서부를 연결하고 6·23번 등의 시도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편리하다.

문화유적은 사목리에 반구정과 황희선생영당지, 마정리에 자유의 다리가 있다. 특히, 사목리에 국민관광지 임진각은 북한관·망배단·철도중단점과 미국군참전비·임진강지구 전적비 등 다양한 한국전쟁 관련 시설물이 있다.

문산(汶山)·선유(仙遊)·이천(梨川)·당동(堂洞)·사목(沙木)·마정(馬井)·운천(雲泉)·장산(長山)·임진(臨津)·내포(內浦) 등 10개 리가 있다.

## 2) 파주읍(坡州邑)

시의 중앙에 위치한 읍. 면적 32.26㎢, 인구 1만 3651명(2015년 현재). 읍 소재지는 파주리이다.

조선 후기까지 오랫동안 파주목에 속했던 곳으로, 1895년 부군제의 실시 이래 파주군의 몇 개 면으로 분할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내면(州內面)·백석면(白石面) 대부분, 자곡면(紫谷面) 도내동(都內洞) 일부, 칠정면 향양리가 합쳐져 7개 리로 편성되었고 주내면이라 하였다. 1980년에 주내면이 주내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83년에 파주읍으로 개칭되었다. 1996년 3월 시로 승격될 때 편입되었다.

중앙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봉서산(鳳棲山, 216m)이 읍 전체를 굽어보고 있는 형세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평지이다. 북부에 향양천, 남쪽 경계에 문산천이 관류한다. 전체면적 중 경지면적이 넓은 편은 못 되고,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우세한 지역이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 이외에 무·배추 등의 채소류, 복숭아·사과 등의 과실류가 생산된

다. 축산업으로 젓소·돼지·닭·사슴·오리 등의 사육이 활발한 편이다.

오랫동안 서비스업이 활발했던 곳인데, 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군사기지였던 관계로 연풍리 일대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은 경의선 철도가 서부를 종단하면서 파주역을 지나고, 이와 평행선을 그으면서 1번 국도가 남에서 북으로 이어진다. 307번 지방도가 서부를 관통하고, 7·9·31번 시도가 읍의 사방에서 뻗어나와 중심부에서 모아진다.

문화유적은 향양리에 성훈(成渾)선생묘, 연풍리에 조선 세종대의 문신인 윤곤(尹坤)선생묘, 파주리에 파주향교, 백석리에 김석몽처(金石夢妻)열녀문, 봉서리에 충신열녀문 등의 향토유적이 있다.

통일로변에 위치한 봉서리의 통일공원에는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념비, 육탄십용사 충훈탑 등 한국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념물이 많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파주(坡州)·연풍(延豊)·부곡(釜谷)·백석(白石)·봉암(烽巖)·봉서(鳳棲)·향양(向陽) 등 7개 리가 있다.

### 3) 법원읍(法院邑)

시의 중동부에 위치한 읍. 면적 71.30km<sup>2</sup>, 인구 1만 2341명(2015년 현재). 읍 소재지는 법원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천현의 이름을 따서 천현면이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에 천현내패면(泉峴內牌面)·천현외패면(泉峴外牌面) 으로 나누었다. 천현내패면은 웅담·직천 등 5개 리를 관할하였고, 천현외패면은 동막1원기 등 10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면 전체, 파평면 지천리(智川里) 일부가 병합되어 10개 리로 재편되었고 다시 천현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89년에 천현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법원읍으로 개칭되었다.

북서쪽에 파평산(坡平山, 496m), 남동쪽 경계에 노고산(老姑山, 401m), 남쪽 면계에 금병산(錦屏山, 293m), 중앙 남부에 자웅산(雌雄山, 250m) 등이 읍 전체를 감싸고 있다. 서쪽에서 중앙쪽으로 관류하는 동문천과 읍 하단의 삼방천과 연풍지 주변에 가늘고 긴 하곡(河谷)평야가 발달해 있으나, 농업기반시설은 미흡한 반면 산지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조 등과 참외·수박 등의 과일 및 채소재배가 이루어진다. 공업으로는 섬유와 식품가공 관련업체가 있다. 축산업 분야가 활발한 편으로 한우·젓소·돼지·닭·산양·사슴 등이 사육되며, 특히 한우·젓소·산양·사슴의 사육량은 시에서 제일 많다. 교통은 읍소재지인 법원리를 중심으로 307·316·350번 지방도가 사방으로 뻗어있고, 남부의 13번 시도 등 지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문화유적은 동문리에 자운서원·자운서원묘정비와 신사임당묘·이이묘 등이 있다.

법원(法院)·갈곡(葛谷)·오현(梧峴)·직천(直川)·웅담(熊潭)·금곡(金谷)·동문(東文)·가야(加野)·대릉(大陵)·삼방(三防) 등 10개 리가 있다.

#### 4) 조리읍(條里邑)

시의 남부 중앙에 위치한 읍. 면적 27.42km<sup>2</sup>, 인구 3만 1079명(2015년 현재). 읍 소재지는 봉일천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조리동면이라 하다가 조리면이 되어 죽원·장산·노조 등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군 아동면 등원리·아동리와 지식면(支石面)의 일부, 고양군 사리대면(沙里大面) 일부가 병합되어 6개 리로 되었다. 1989년에 교하면 상지석리의 일부가 편입되어 능안리가 신설되었다. 2002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남동쪽 경계에 솟아 있는 명봉산(鳴鳳山, 248m)을 제외하고는 높은 봉우리를 찾기 힘들다. 곡릉천(曲陵川)이 면 하단을 흐르고, 동쪽에 고산천(古山川)이 관류하여 주변 일대에 평야지대를 형성하였다.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으로 주곡 이외에 월예농업이 성하다. 축산업으로 일부 농가에서 한우·젓소·돼지·닭 등을 사육한다. 식품가공업 및 전자공업 관련 업체가 다수 소재한다.

교통은 1번 국도가 중앙에서 서쪽을 통과하고 307번 지방도가 남서쪽에서 북동쪽 지역을 연결한다. 그 밖에 9번 시도가 북부를, 2번 시도가 서부를 잇는다. 서울 도심부와 통근권에 있는 지리적 잇점 때문에 대단위 고층아파트 건립 등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적은 봉일천리에 공릉·순릉·영릉, 장곡리에 이회신도비가 있다.

봉일천(奉日川)·죽원(竹院)·뇌조(駭造)·오산(梧山)·장곡(獐谷)·등원(登院)·능안(陵案) 등 7개 리가 있다.

#### 5) 광탄면(廣灘面)

시의 남동단에 위치한 면. 면적 65.51km<sup>2</sup>, 인구 1만 2298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신산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광탄의 이름을 따서 광탄면이라 하여 분수원·호미·구룡 등 9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주군(楊州郡) 백석면(白石面) 마장리 일부, 조리면 화산리(花山里)가 병합되어 7개 리로 개편되었다. 1983년에 양주군 백석면의 기산리·영장리가 편입되었으며, 동시에 영장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7년에 기산리의 일부가 다시 양주군 백석면으로 이관되었다.

북쪽 경계에 금병산, 동쪽 끝에 앵무봉(鸚鵡峰, 622m), 남서쪽 경계에 명봉산(鳴鳳山, 248m), 중앙에 박달산(朴達山, 369m) 등 산지가 넓게 분포해 있다. 이러한 산지에 광범위한 묘역이 집중되어 있다. 하천으로 비암천(比巖川)·분수천(汾水川)·문산천·보광천 등이 면의 곳곳을 관류하며, 주변 일대에 약간의 평야지대가 있다.

주요 농산물은 미곡을 비롯하여 고추·마늘 등의 작물이 많이 재배된다. 축산업으로는 젓소·돼지·닭·산양·사슴·오리 등이 사육되며, 이 가운데 돼지·오리 등의 사육량이 압도

적이다. 분수리에 금·은·아연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다. 제조업으로 식품·지류(紙類) 등의 가공업체가 있다.

교통은 307번 지방도가 면 서부를 종단하고 4·11·13·15·33번 시도 등이 산지 사이 사이에 그물망을 조성하여 인접한 양주군과 고양시를 연결하고 있다.

문화유적은 용미리에 석불입상, 분수리에 윤관묘, 영장리에 소령원·수길원·보광사대웅보전·파주보광사송정칠년명동종 등이 있다. 이 밖에 청룡사(靑龍寺)·용암사(龍巖寺) 등의 사찰이 있다.

신산(新山)·용미(龍尾)·분수(汾水)·창만(倉滿)·마장(馬場)·발랑(發郎)·방축(防築)·영장(靈場)·기산(基山) 등 9개 리가 있다.

## 6) 월룡면(月籠面)

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면. 면적 27.14km<sup>2</sup>, 인구 1만 3032명(2015년 현재). 면소재지는 위전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월룡산 및 골짜기가 되므로 자실면 또는 자곡면이라 하여 용·은·덕옥 등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리면(烏里面)과 백석면(白石面) 현암리·오라리 일부, 광탄면(廣灘面) 두만리 일부, 교하군 아동면(衙洞面) 아동리 일부가 병합되면서 월룡산의 이름을 따서 월룡면이 되었다. 1973년내포리가 문산읍으로 이관되었다.

동쪽 경계에 월룡산(月籠山, 229m) 자락이 면내로 뻗어 있고, 남동부 지역에도 일부 산지가 분포한다. 문산천이 북쪽에서 동쪽에 걸쳐 면 경계를 이루며, 남부에 금촌천과 삽교천이 흘러든다. 논농사가 밭농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형적인 평야지대이다. 과일류 재배가 활발하며, 특산물로 왕골이 있으나 과거의 명성에 불과하다. 축산업으로 돼지·닭·사슴 등의 가축이 사육되나 활발한 편은 아니다. 제조업으로 화학·제과·식품가공업 관련 업체가 다수 소재한다.

교통은 경의선 철도가 면의 중앙을 종단하고 1번 국도가 이와 병행하여 남북으로 달리고 있다. 이 밖에 3번 시도가 면의 서부를, 9번 시도가 동부를 연결하는 등 사방으로 도로망이 뻗어 있다. 문화유적은 덕은리에 용주서원과 백휴암선생유허비·주거지 및 지석묘군이 있다.

위전(葦田)·덕은(德隱)·영태(英太)·도내(都內)·능산(陵山) 등 5개 리가 있다.

## 7) 탄현면(炭縣面)

시의 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61.72km<sup>2</sup>, 인구 1만 3753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축현리이다.

본래 교하군 지역으로 탄포의 이름을 따서 탄포면이라 하여 낙하·금승·문지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내면(縣內面)·신오리면(新五里面) 대부분, 교하군 청암면(靑巖面) 송촌리 일부, 파주군 오리면 능동리 일부, 자곡면(紫谷面) 덕옥리 일부가 병

합되면서, 탄포와 현내의 이름을 따서 탄현면이 되었다. 1939년에 면 소재지가 오금리에서 축현리로 이전하였다.

높지는 않지만 동쪽 끝의 기간봉(旗竿峰, 246m)과 월룡산 자락이 길게 뻗어 있다. 서쪽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합류지점으로, 남부의 곡릉천과 대위지천(大葦只川)이 흐르면서 갈현평야라는 드넓은 곡창지대를 만들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미곡 생산량이 많고, 그 밖에 감자를 비롯한 채소류가 산출된다. 축산업으로 한우·젓소·돼지·닭·산양·사슴의 사육량이 많은 편이다.

법흥리·낙하리·금승리 일대에 대규모 공장인 시그네틱스가 완공되고 미디어밸리 등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교통은 자유로가 서쪽 한강과 임진강 경계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고, 310·315번 지방도가 각각 중앙과 서부를 종단한다. 3·5번 시도가 서부를 연결하고 19번 시도가 남서쪽의 교통편의를 돕는다.

문화유적은 갈현리에 장릉, 성동리에 오두산성(烏頭山城), 금승리에 황희묘, 이밖에도 성동리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관광객이 찾는다.

축현(축縣)·금승(金蠅)·낙하(洛下)·문지(文智)·오금(吾今)·금산(錦山)·만우(萬隅)·대동(大洞)·성동(城洞)·법흥(法興)·갈현(葛峴) 등 11개 리가 있다.

## 8) 파평면(坡平面)

시의 중북부에 위치한 면. 면적 41.85km<sup>2</sup>, 인구 4,142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금파리이다.

본래 파주군 지역으로 옛 파평현이 있었으므로 파평면이라 하여 풍덕·천천·놀로 등 12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칠정면(七井面) 이천리 일부, 신속면(新屬面) 일부, 적성군 서면(西面) 식현리·도장리 일부가 병합되어 7개 리로 개편되었다. 1973년에 적성면 장파리가 편입되었고, 1979년에 울곡리에서 금파리로 면소재지가 바뀌었다. 1983년에 이천리가 문산읍으로 이관되었다.

동쪽에 파평산(坡平山, 496m)과 광평산(鑛平山, 262m) 자락이 면내로 향한다. 임진강이 서쪽 경계를 따라 굽이쳐 흐르고, 북부에 답곡천·놀로천과 북서에서 중앙으로 관류하는 두포천(斗浦川) 유역에 평야가 분포한다. 논과 밭의 경지면적이 좁은 편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을 비롯하여 채소류와 복숭아·밤 등의 과수재배가 이루어진다. 축산업으로는 젓소·돼지·닭·산양 등의 사육이 많은 편이다.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발달은 미진하다.

교통은 37번 국도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다. 323번 지방도가 북부를, 8번 시도가 남부를 연결한다. 문화유적은 울곡리에 화석정과 이세화묘, 놀로리에 파산서원·미타사(彌陀寺) 등이 있다.

이 밖에 두포리에 몽구정지(夢鷗亭址)가 있다. 특히, 덕천리 일대의 임진강폭포어장은



가족단위의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금파(金坡)·울곡(栗谷)·두포(斗浦)·마산(麻山)·눌로(訥老)·덕천(德泉)·장파(長坡) 등 7개 리가 있다.

### 9) 적성면(積城面)

시의 북동단에 위치한 면. 면적 88.88km<sup>2</sup>, 인구 8,035명(2015년 현재). 면 소재지는 마지리이다.

본래 적성현 지역으로 적성읍내가 되므로 현내면이라 하여 읍내·관동·가월 등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면·서면의 대부분, 마전군(麻田郡) 군내면 삼화리와 장단군 고남면(古南面) 장좌리, 양주군 영근면(嶺斤面) 하월리와 파주군 파평면 천천리 일부가 병합되어 19개 리로 개편되면서 연천군(漣川郡) 적성면이되었다. 1945년 다시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63년에 늘목리·삼화리가 연천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장파리가 파평면에 편입되었다.

산지로 동쪽에 연천군·양주시와의 경계 지점에 감악산(紺嶽山, 675m)이 있고, 북부 중앙에 중성산(重城山, 148m), 북서부에 국사봉(國事峰, 150m)이 있다.

임진강이 북쪽 경계를 길게 통과하고, 그 지류들인 간파천(干坡川)·장현천(牆峴川)·가월천(佳月川)·설마천(雪馬川)·답곡천(答谷川) 등이 북쪽에서 중앙 전체를 관류하면서 하천 연안에 취락이 분포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구읍리가 중심지였으나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남서쪽인 마지리가 중심지로 되었다.

지형이 중산간지역으로 수도작에 의존했으나, 전작(田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군납을 목적으로 무·배추 등의 채소는 물론 특용작물 등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직거래와 계통출하로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6년근 인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군사요충지인 이 지역은 파주시 최북단에 위치하여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까닭에 군인가족이 상권을 형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업으로 한우·젓소·돼지·닭·산양·토끼·칠면조 등의 사육이 활발하며, 특히 칠면조의 사육은 시 전체의 압도적인 지위를 점한다.

교통은 37번 국도가 동쪽에서 중앙을 거쳐 북서쪽으로 횡단하며, 349번 지방도가 북쪽에서 중앙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종단한다. 이 밖에 10·29번 시도가 북부의 교통을 연결해 준다. 문화유적은 가월리와 주월리에 구석기유적, 무건리에 물푸레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구읍리에 적성향교·칠중성(七重城), 적암리에 아미성(阿未城), 주월리에 육계토성(六溪土城) 등이 있다.

마지(馬智)·구읍(舊邑)·객현(客峴)·가월(佳月)·주월(舟月)·두지(斗只)·설마(雪馬)·무건(武建)·식현(食峴)·장현(牆峴)·적암(赤巖)·울포(栗浦)·어유지(魚遊池)·자장(紫長)·답곡(答谷)·장좌(長佐) 등 16개 리가 있다.

## 10) 운정(雲井)1·2·3동, 교하동(交河洞)

본래 시의 남서단에 위치한 읍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동, 운정1·2·3동으로 바뀌었다.

본래 교하군 지역으로 고인돌이 있으므로 지식면이라 하여 읍내·상지석 등 5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와동면의 당하·와동 등 5개 리와 현내면의 일부, 아동면의 일부, 청암면의 일부가 병합되어 와동과 지식의 이름을 따서 와석면이라 하여 7개 리로 개편되었다. 1934년와석면과 청석면이 병합된 후, 교하군의 이름을 따서 교하면이 되었다. 1989년에 상지석리의 일부가 조리면으로 이관되었다. 2002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북부 중앙에 장명산(長命山, 102m)을 비롯하여 남동부에 황룡산(黃龍山, 135m), 남서부에 심학산(尋鶴山, 194m)이 있다.

서쪽 면계를 따라 황해로 흘러드는 한강의 물줄기가 접하고, 북쪽에 곡릉천이 구불구불 흘러가 면계를 형성한다. 그 지류들인 청룡두천(靑龍頭川)·장진천(長津川)·소치천(巢雉川) 등이 면 곳곳을 관류하여 시 전체에서 제일 넓은 평야지대를 조성해 놓았다. 벼농사가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요 농산물은 쌀 이외에 보리·옥수수·호밀·감자·인삼 및 배추·오이 등 채소의 산출량이 많다. 특히, 장명산(長命山)에서는 약용식물인 구절초(九節草)가 많이 난다. 이와 함께 인접한 일산 신도시를 겨냥한 각종 작목재배 및 농산물 유통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축산업 또한 많은 종류가 사육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우·젓소·돼지·닭·사슴·토끼·오리 등이며, 닭·토끼의 사육량이 특히 많다.

대표적인 공업단지로 문발동 자유로변의 넓은 대지 위에 대규모 첨단산업이 진출해 있고, 파주LCD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수도권 경제개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하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파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이 되었다.

교통은 경의선 철도가 동부를 남북으로 달리는 가운데 운정역을 경유한다. 특히, 행주대교 북단과 일산 신도시를 거쳐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자유로(自由路)가 서쪽 한강변을 따라 시원하게 뚫려 있어, 서울과 30분대의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310번 지방도가 면 중앙을 종단하고, 이 밖에 1번 시도 등 각종 도로망이 교차하는 등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다.

문화유적은 산남동·송촌동 등 4개 리에 걸쳐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울동에 지식묘, 당하동에 지식묘군이 있다.

교하(交河)·상지석(上支石)·하지석(下支石)·연다산(煙多山)·당하(堂下)·와동(瓦洞)·목동(木洞)·야당(野塘)·동패(東牌)·서패(西牌)·문발(文發)·산남(山南)·신촌(新村)·송촌(松村)·오도(吾道)·다울(多粟) 등 16개 법정동이 있다.

## 11) 군내면(郡內面)

시의 북서부에 위치한 면. 면적 43.23km<sup>2</sup>, 주민 미거주지역이다.백연리 통일촌에 군내 출장소가 있다.

면사무소는 없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오랫동안 장단군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현내면(津縣內面)·진동면(津東面)·중서면(中西面)·진북면(津北面)의 각 일부와 개성군 동면(東面) 백동음리(白冬音里) 일부가 합쳐져 7개 리로 개편되면서 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한다 하여 군내면이라 하였다. 1963년에 전 지역이 파주군 임진면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72년에 장단군의 장단·진서·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될 때 함께 이관되었다.

이 지역에 민간이 거주하게 된 것은 제대장병들이 1972년 4월에 영농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1979년백연리에 군내출장소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조산리·백연리의 대성동(臺城洞)·통일촌(統一村) 2개 마을을 포함하여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

경제활동으로 임진강 북안의 낮고 평평한 평야지대에 기계화영농을 통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축산업으로 사육량이 많지는 않지만 한우·젓소·돼지·닭 등이 사육된다. 지역 특산물로 통일촌의 천마주와 인삼주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최북단 접적지역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도로사정은 1번 국도가 면 중앙을 지나 판문점을 향해 종단하고, 이 밖에 25번 시도가 있다. 문화유적은 읍내리에 장단향교, 정자리에 덕진산성(德津山城), 조산리에 대성동토성 흔적 등이 있다.

백연(白蓮)·조산(造山)·정자(亭子)·읍내(邑內)·송산(松山)·점원(點元)·방목(芳木) 등 7개 리가 있다.

## 2. 파주의 대표적 문화유산

### 혜음원지(惠蔭院址)

혜음원지(惠蔭院址)는 사적 제464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5.06.13.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234-1이다.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혜음원지는 고려 전기 때 국가에서 설립했던 숙박시설이 있던 곳이다. 혜음원은 파주시와 고양시를 잇는 혜음령 고개 동쪽 능선 아래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산세가 웅장하고 준엄하여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역사적으로는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으로 중국 사신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임진왜란 시 벽제관 전투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혜음원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동문선(東文選)》 64권 김부식의 《혜음사신창기(惠蔭寺新創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동남방 지역에서 수도로 들어오는 길목인 혜음령은 사람과 물산의 왕래가 빈번하여 언제나 봄비는 길이었다 한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고 수목이 울창하여 호랑이와 도적들이 때때로 행인들을 해치기가

일쭉여서 일 년에 수백 명씩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이에 예종이 개경과 남경(서울) 사이에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종16년 2월에 착공, 동왕 17년(1121) 2월에 완공한 것이 바로 혜음원이다.

또 임금의 순행에 대비해로 별원(別院) 한 개소를 지었으며, 혜음원의 창건으로 “깊은 숲 속이 깨끗한 집으로 변하였고 무섭던 길이 평탄대로가 되었다”고 《혜음사신창기》는 적고 있다. 또한 왕과 비가 여행자들에게 무료급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식량을 지급하고 파손된 기구를 보충해 주었다고 적고 있어 혜음사가 왕실의 각별한 관심 하에 사찰과 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혜음령이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그 위치가 추정되어 오다가 1999년 주민의 제보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서 「惠蔭院」이라고 새겨진 암막새가 수습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경역은 원지, 행궁지, 사지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동서 약 104m, 남북 약 106m에 걸쳐 9개의 단(段)으로 이루어진 경사지에 27개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연못지, 배수로 등의 유구와 금동여래상, 기와류, 자기류, 토기류 등의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록에서 보이는 행궁지로 추정되는 건물이 파악되었으며, 전체 건물의 구조가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 행궁지의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과 각종 조경시설 등이 드러났다. 또한 발굴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고려시대 유물로 혜음원 건물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짐작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혜음원지는 문헌과 유구, 유물을 통해 원(院)의 구조와 형태, 운영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실, 귀족, 평민 등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전해주는 유적으로서 고려 전기 건축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漢江下流 재두루미 渡來地)는 천연기념물 제25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5.02.21.이다.

재두루미는 중국, 일본, 몽고, 한국 등지에 분포하는데 두루미가 몸에 흰색을 띠는 것과 달리 회색을 띠어 재두루미라고 부른다. 암수의 구분 없이 몸길이는 약 1.2m이며, 머리와 목은 흰색, 몸은 회색이다. 몸의 회색부분은 목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눈 바로 아래에서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눈앞의 노출되어 있는 피부는 붉은색이며 부리는 황록색이다. 어린 새의 뒷머리는 붉은색을 띤 갈색이다. 4월경이 면 물가의 작은 섬에 둥지를 만들고 2개의 알을 낳으며 논이나 개 풀, 늪지 등에서 가족단위로 생활한다.

재두루미는 세계적으로 4,500~5,00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멸종위기의 진귀한 새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1980년 초까지는 해마다 10월 하순경부터 이듬

해 3월 중순경까지 재두루미 약 2천여 마리가 규칙적으로 도래하여 일부는 이곳을 거쳐 가고 또 다른 무리는 이곳에서 월동하기도 하였다.

자유로가 지나는 교하읍 산남리·문발리·신촌리·송촌리에 걸쳐 위치한 재두루미도래지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이루어진 드넓은 삼각주 일대의 갈대밭과 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재두루미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73년 주한미군 벤킹(Ben King)이 미국의 두루미학자 월킨쇼(Wal Kin Shaw)에게 “1961년 11월 약2,3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한강하구 개펄에 도래한다.”고 보고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재두루미가 이곳에서 겨울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농지를 넓히는 계획에 따라 수문(水門)설치와 군의 석축(石築)공사 등에 의해 물의 높이와 소금의 농도가 변하면서 수송나물, 칠면초, 매자기 등 재두루미의 먹이가 감소되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소금농도에 강한 갈대와 갯개미취 또는 띠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한강 하구 삼각주에서 겨울을 지내던 재두루미 집단은 점차 일본으로 옮겨가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개리(천연기념물 제325호)가 도래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한강하류의 재두루미 도래지는 우리나라에서 재두루미가 겨울을 지내는 대표적인 지역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용미리마애이불입상(龍尾里磨崖二佛立像)

용미리마애이불입상(龍尾里磨崖二佛立像)은 보물 제93호 이다.

지정(등록)일은 1963.01.2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9번지이다.

마애이불입상은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에 위치한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위치하여 있다.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불상을 우람하게 새겼는데, 머리 위에는 돌갓을 얹어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까닭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점에서 불성(佛性)보다는 세속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지방화된 불상이다. 왼쪽의 둥근갓을 쓴 불상(원립불, 圓笠佛)은 목은 원통형으로 당당한 가슴을 드러냈으며 몸체는 법의(法衣)로 감싸고 있는데 양쪽으로 내려진 옷자락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비록 바위의 제약으로 목과 가슴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못하나 사각형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안동마애석불(安東磨崖石佛)과 비슷하다. 오른쪽의 네모난 갓을 쓴 불상(방립불, 方笠佛)은 합장한 손 모양만 다를 뿐 조각된 수법은 왼쪽의 불상과 비슷하다.

지방민의 구전에 의하면, 둥근 갓의 불상은 남상(男像), 모난 갓의 불상은 여상(女像)이라 한다. 고려 선종이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까지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자가 없었다. 이것을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날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道僧)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꿈을 깬 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왕께 아뢰었더니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어 알아 오게 하였는데,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은 즉시 이 바위에다 두 도승을 새기게 하여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는데, 그 해에 왕자인 한산후(漢山侯)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으로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탄생설화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 **무건리 물푸레나무(武建里 물푸레나무)**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坡州 武建里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86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2.11.04.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번지이다.

물푸레나무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파랗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나무는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만주,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지치기를 싫어한다. 보통 크게 자랐을 때의 높이가 3m, 직경 50cm에 달하는데 이곳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같은 나무과로는 보기 드문 노거목(老巨木)이다. 특히 높이가 무려 13.5m에 달하고 굵은 줄기를 가지고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물푸레나무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줄기가 위로 자라 마치 2층으로 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굵은 줄기 때문에 약 500년 정도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나이는 1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수작골'이라는 옛지명이 있으며, 이곳 언덕에 있다. 예전에는 경작지 한 가운데 있어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자목의 구실을 하여, 옛날부터 인근의 농민들이 들일을 하다가 점심식사 후에 이 나무의 그늘에 누워 낮잠을 즐겼다고 한다. 지금은 민가가 없어지고 군 사격장으로 바뀌었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생활에 많이 사용된 물푸레나무로는 드물게 규모가 크고, 정자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학적·민속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 **가월리·주월리 유적(佳月里 舟月里 遺蹟)**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佳月里와 舟月里 遺蹟)은 사적 제38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4.12.2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번지 외, 주월리 309외이다.

가월리·주월리 구석기유적(佳月里·舟月里 舊石器遺跡)은 임진강 하안단구 일대에 형성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1988년에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후 5년이 지난 1993년 유적의 일부 지역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유적은 연천 전곡리 유적과 이어지는 한탄강-임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란 처음 인류가 등장한 때부터 약 1만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이후의 일이다. 가월리·주월리 구석기유적은 전곡리, 금파리 등 임진 -한탄강 유역의 다른 유적과 기본적인 성격을 같이한다.

가월리 주월리 유적의 범위는 수천 평이 넘는 대규모로 밝혀졌다. 출토 유물은 대표적인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가로날도끼, 찌개, 여러면석기, 톱니날석기 등 큰 석기가 대부분이지만, 격지로 만든 작은 석기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이 유적의 연대는 열형광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4~5만 년 전으로 밝혀졌다. 이 유물들은 무엇보다 당시 도구 제작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이곳은 석기가 집중해서 발견되는 문화층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곡리 유적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구석기시대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곳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물은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찌개, 몸돌, 격지 등 주로 대형석기이며 발굴과정에서는 망치돌, 소형석기, 사용된 석재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무엇보다 당시 도구 제작과정을 알 수 있게하는 자료들이다. 현재 이 지역 화층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1993년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천 평이 넘는 대규모 유적으로 밝혀졌다. 45만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되며, 이 지역 구석기 시대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99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 윤관장군묘(尹瓘將軍墓)

윤관장군묘(尹瓘將軍墓)는 사적 제32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8.02.27.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분수리)이다.

고려 중기의 문신인 윤관(?~1111)의 무덤이다. 그는 고려 문종(재위 1046~1083) 때 문과에 합격하였고, 숙종 9년(1104)에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이 되어 국경을 침입한 여진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후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편성해 예종 2년(1107)에 여진을 정벌한 후 9성을 쌓았다.

고려의 문신이었던 윤관의 묘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것은 매우 특수한 예이다. 고려 시대의 묘들은 대부분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지금의 개성)이나 평양 근처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관의 묘역은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의 묘역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윤관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조선 영조 23년(1747) 후손들이 지금의 자리임을 주장, 1764년(영조 40)윤관의 구비파편(舊碑破片)이 발견된 후 영조가 봉분을 새로 조성하고 치제(致祭)하게 함으로써 윤관의 묘소임이 공인되었다. 묘역의 규모는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 잡고 있다. 봉분아래는 장대석 모양의 호석(護石)을 두르고 봉분 뒤로 담장을 둘러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봉분 정면에 상석(床石)이 놓여있으며 왼쪽에 묘비가 서있다. 한 계단 아래에 양쪽으로 망주석과 상석전면에 사각의 장명등이 세워져 있다. 이들 석물 중 상석, 장명등,

동자석, 양석, 마석은 후대에 묘역을 정비하면서 새로 추가 설치한 것이다.

위패는 예종의 사당에 함께 모셔졌고, 고려 태조와 충의공신을 모신 송의전에서 함께 배향되었다. (문화재청) 묘역 아래에는 윤관장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여충사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0일 윤관장군의 제사를 지낸다.

#### ■ 윤관(尹瓘)

생몰연대 : ? ~ 1111(예종 6). 고려 중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고려태조(太祖)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莘達)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지낸 집형(執衡)이다.

문종(文宗) 때 과거에 급제하여 습유(拾遺)·보궐(補闕)을 지냈다. 1087년(선종 4)합문지후(閤門祗候)로서 출추사(出推使)가 되어 광주(廣州)·충주·청주를 시찰하였다. 1095년(숙종 1)좌사낭중(左司郎中)으로 형부시랑임의(任懿)와 함께 요나라에 파견되어 숙종(肅宗)의 즉위를 알렸다. 1098년(숙종 3)동궁시학사(東宮侍學士)로서 조규(趙珪)와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숙종의 즉위를 통고하였다.

1099년 우간의대부 한림시강학사(右諫議大夫翰林侍講學士)가 되었으나 당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임의와 친척이어서 간원(諫院)인 어사대(御史臺)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중서성(中書省)의 상서에 따라 직에서 물러났다. 1101년에는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이굉(李宏)과 함께 진사시(進士試)를 주관했으며 이어 어사대부가 되었다. 1103년이부상서 동지추밀원사(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를 거쳐 지추밀원사 겸 한림학사승지(知樞密院事兼翰林學士承旨)가 되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104년(숙종 9) 2월동북면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이 되어 여진정벌의 임무를 맡을 때부터 1111년(예종 6) 죽을 때까지의 약 7년간이다. 고려가 처음으로 동여진을 대규모로 정벌하기 시작한 것은 1080년(문종 34)이었다. 이때 여진의 세력을 크게 꺾었다.

그러나 새로 일어난 동여진 완안부족(完顔部族)은 부족장 영가(盈歌)의 지휘아래 차츰 성장해 나갔고 1103년(숙종 8) 우야소(烏雅束)가 뒤를 이었을 때에는 그 세력이 함흥 부근까지 미쳤다. 이리하여 고려군과 우야소의 여진군은 충돌 직전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완안부의 기병이 정주관(定州關) 밖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다.

숙종은 무력으로 여진 정벌을 결심하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임간(林幹)에게 평정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여진에게 크게 패하였다. 이때 윤관이 왕명을 받고 여진에 대한 북벌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1104년(숙종 9) 2월 21일 당시 추밀원사로 있던 그는 동북면행영병마도통이 되어 3월에 여진과 싸웠다. 그러나 여진의 강한 기병에 부딪혀 그 태반이 죽고 적진에 함몰되는 패전을 당하였다.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화친을 맺고 일단 철수하였다.

여진의 기병을 고려의 보병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간파한 그는 왕에게 전투력의 증강과 기병의 조련을 진언하였다. 이에 12월부터 여진 토벌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별무반(別武班)이라는 특수부대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1107년(예종 2) 여진족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변장(邊將)의 보고를 접하자 원수(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지추밀원사오연총(吳延寵)과 17만 대군을 이끌고 정주로 출발하였다. 한편, 여진 추장에게 거짓통보를 하여 고려가 앞서 잡아둔 허정(許貞)·나불(羅弗) 등을 돌려보낸다고 하자 여진족이 400여 명을 보내왔다. 이때 이들을 유인해 거의 섬멸시키고 사로잡았다.

5만 3,000천명을 거느리고 정주에 도착한 뒤 중군(中軍)은 김한충(金漢忠), 좌군(左軍)은 문관(文冠), 우군(右軍)은 김덕진(金德珍)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수군(水軍)은 선병별감(船兵別監)양유송(梁惟諫) 등 2,600명으로 도린포(都麟浦: 함경남도 정평군과 함주군에 걸쳐 있는 호수. 광포호 혹은 도린포라 불린다)의 바다로부터 공격하였다. 막강한 고려군의 위세에 눌린 여진이 동음성(冬音城)으로 숨자 정예부대를 동원해 이를 격파하였다. 여진군이 숨은 석성(石城)은 척준경(拓俊京)을 시켜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태반을 섬멸하였다.

여진의 전략거점을 무찌른 곳은 135개 처이고 전사자 4,940명, 생포 130명의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조정에 전승 보고를 올리고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 국토를 획정하고 9성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백성을 이주시켜 남도지방의 이주민들이 이곳을 개척해 살게 되었다.

새로 성을 구축한 곳은 함주(咸州)에 이주민 1,948가구, 영주(英州)에 성곽 950칸과 이주민 1,238가구, 웅주(雄州)에 성곽 992칸과 이주민 1,436가구, 복주(福州)에 성곽 774칸과 이주민 680가구, 길주(吉州)에 성곽 670칸과 이주민 680가구, 공험진(公嶮鎭)에 이주민 532가구였다. 이 6성 외에 이듬해에는 송녕(崇寧)·통태(通泰)·진양(眞陽)의 3성을 더 쌓아 이른바 윤관의 9성 설치가 완결되었다.

특히 함흥평야의 함주에 대도독부(大都督府)를 두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삼았다. 이렇게 함경도 일대를 석권하자 그곳에 웅거하던 우야소가 반발해 1108년(예종 3) 초에 군사를 이끌고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고려군은 가한촌(加漢村) 전투에서 포위당했으나 척준경 등의 활약으로 겨우 구출되었다. 영주성의 공방전에서도 역시 척준경의 용맹과 기지로써 여진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또 여진군 수만 명에게 웅주성이 포위되었을 때에도 척준경의 활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해 3월 30일 포로 346명, 말 96필, 소 300두를 노획해 개경으로 개선하니 추충좌리평응척지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에 봉해졌다.

그러나 서쪽에 강력한 요나라와 접경하고 있던 여진이였기에 고려와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었고 더욱이 윤관의 9성 축조와 농업이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농경지를 빼앗겼으니 토착여진족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진족은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 아래 성을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여진은 적극적으로 강화교섭을 개시했으며 이에 예종(睿宗)은 육부(六部)를 소집하여 9성 환부를 논의하였다. 평장사(平章事)최홍사(崔弘嗣) 등 28명은 찬성하고, 예부낭중

(禮部郎中)한상(韓相)은 반대했으나 고려조정의 대세는 화평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이유는 여진을 공략함에 있어 당초에 한쪽 통로만 막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근거를 잃은 여진족의 보복이 두려웠고 개척한 땅이 너무 넓고 거리가 멀어 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도 화평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9성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를 동원할 경우 백성들의 원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었다.

결국 1109년(예종 4) 7월 3일 회의를 열고 9성 환부를 결의해 7월 18일부터 9성 철수가 시작되었다. 윤관이 장병들과 더불어 생명을 걸고 경략했던 9성 일대의 땅이 다시 여진에게 환부된 것이다. 그렇지만 매우 역설적인 것은 훗날 아쿠타(阿骨打)가 금나라를 세워 강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때 찾은 9성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9성의 환부로 여진 정벌이 실패로 돌아가자, 패장의 모함을 받고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과 공신호 조차 삭탈 당하였다.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했다 하여 처벌하자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회군해서는 왕에게 복명도 못한 채 사제(私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처벌을 주장했던 재상·대간(臺諫)들을 물리치며 비호한 예종의 덕으로 1110년 다시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 상주국 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가 내려졌으나 사의를 표하였다.

1130년(인종 8)예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묘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사적 제323호)에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오두산성(烏頭山城)

오두산성(烏頭山城)은 사적 제35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1.08.24.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번지 외이다.

오두산성(烏頭山城)은 탄현면 서울에서 문산 방향으로 자유로(自由路)를 달리다 왼쪽으로 보이는 오두산의 정상부분과 산사면에 띠를 두르듯이(테피식) 축성된 석성(石城)이다. 오두산성의 명칭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동지지에는 조두성, 여지도서에는 오두산성,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조성으로 나타나 있다.

오두산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주변으로 높은 산이 없어 서쪽으로는 북한 지역이, 남쪽으로는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 산성은 임진강과 접해 있으나 임진강을 건너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기보다는 서해안에서 한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여겨진다.

산성은 현재 정상에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가 들어서 있는 그 규모와 원형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한강과 인접해 있는 가파른 북쪽절벽위에 약 10여m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대략 1.2km 정도로 삼국 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

한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토사에 덮여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 곳은 6곳 정도이다. 성벽은 해발 80~100m 선을 따라 가며 축조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북쪽을 뒤편으로 하여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산 정상부근에는 여기저기에 성벽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오두산성은 한국전쟁 이후 거의 유실되고 파손되었으나 1990년 9월부터 1991년 11월 사이의 발굴조사 결과 일부 보존이 잘된 남아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인되었다. 확인되어지는 유물은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土器), 백자(白磁), 기와(器瓦), 철촉(鐵鏃) 등으로 발굴되어진 성과를 토대로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일부구간을 보존·정비하여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성벽 쌓기 수법을 보면 밖으로는 위로 올라가면서 돌을 안으로 들여 쌓고, 성벽 내부는 돌로 채웠다. 이러한 성곽의 형태는 백제 성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광개토대왕릉비와 『삼국사기』백제본기에 나오는 관미성이 이 바로 오두산성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이곳을 관미성이라 기록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백제의 북방전초기지였던 관미성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수군이 백제의 아신왕(阿辛王)을 치고 수도 위례성(慰禮城)을 함락시키기까지 고구려의 남하경로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 성을 백제의 관미성이나 고구려 성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가능성 외에는 관련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확증하기 어려우며, 앞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영국군 설마리전투비는 등록문화재 제40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8.10.0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2-2번지이다.

이 비는 한국전쟁 당시 설마리전투에서 고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혈전을 벌이다가 전사한 영국군들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하였다. 주변의 돌들을 채석하여 쌓아올리고, 상하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비(碑)를 부착하여 만들었다. 위쪽에 있는 비 2개 가운데 왼쪽에는 유엔기를 새기고, 오른쪽에는 희생된 영국군의 부대 표지를 새겼으며, 아래쪽의 왼쪽 비에는 한글로, 오른쪽 비에는 영문으로 당시 전투 상황을 기록하였다. 유엔군의 참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1951년 4월 22일 설마리 고지에 주둔하던 영국군 글로스터셔연대 제1 대대소속 2개 중대는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3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분패하였다.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제 1대대 소속 2개 중대는 이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돼 59명이 전사하고 1백 80명이 부상했으며 5백 20여명이 포로로 북한에 끌려갔다. 당시 이 전투는 한국전쟁 중 영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전투였지만, 영국군 6백 50여명의 병력으로 2만 5천명의 중공군과 3일간 맞서 싸워줌으로써 유엔군이 중공군의 서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특히 이 설마리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치른 대표적인 전투 중의 하나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투로 기록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57년 6월 29일에 추모비가건립된 이후로 매년 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영국여왕도 자유를 위해 싸우다 간 자국의 장병을 추모하기 위하여 직접 설마리전투비를 다녀갔다.

#### ■ 적성전투(積城戰鬪)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설마리에서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받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방어한 전투이다.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은 글로스터(Gloucester) 글로스터(Gloucester) 연대 제1대대(이하 글로스터 대대)를 적성 부근에, 푸실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이하 푸실리어 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배속 받은 벨기에 대대를 금굴산에 배치하고, 얼스터 소총(Royal Ulster Rifles)연대 제1대대(이하 '얼스터 소총대대')를 봉암리에 예비로 확보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영국군 제29여단의 정면인 임진강 주변에서는 1951년 4월 22일 아침부터 여단의 정찰대와 중공군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22일 22시경 글로스터 대대 정면의 가여울 일대로 중공군 1개 연대가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제63군은 임진강 남쪽에 일부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나 영국군 제29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감악산 점령이 지연되자 예비사단을 투입해 공격제대를 재편성한 후 23일 자정 무렵부터 좌전방 글로스터 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밀려 적성~신산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235고지(일명 '설마리 고지')에 집결해 사주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24일 새벽에는 글로스터 대대가 중공군 제63군에 의해 포위당하는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영 29여단은 적중에 고립된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4월 24일 7시 30분에 필리핀 제10대대와 영 제8전차대대 C중대를 이용한 보전 협동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미 235고지 남쪽 4.8km까지 진출한 중공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사기막 고개 부근의 도로 폭이 협소해 전차의 통과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보전 협동 공격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 칸(J. P. Carne) 중령에게 자력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여 증원부대와 연결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대장은 그간의 전투로 대대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어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여단장에게 현 위치에서 증원부대와 연결과, 바닥나기 시작한 탄약과 식량 등의 추가 보급을 요청하였다. 글로스터 대대는 이날 밤에도 수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여단장은 글로스터 대대장에게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철수하든가 또는 중공군에 투항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 설마리 전투에서 글로스터 대

대는 26일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원이 포로가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병력의 1/3가량이 손실을 입었다. 글로스터 대대의 설마리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 전사에 기록되고 있다.

###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德隱里 住居址와 支石墓群)**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德隱里 住居址와 支石墓群)은 사적 제148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66.03.22.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 산46번지이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 지상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돌로 고이거나 판석만을 놓은 바둑판식(남방식)이 있다.

월릉면 덕은리 옥석동 마을의 높이 82m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은 동쪽의 문산천에서 서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정상에 이르기까지 2~3기씩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구릉 정상상부에서 서쪽으로 약 30m쯤 지점에 규모가 가장 큰 고인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주변을 중심으로 구릉의남사면에 걸쳐 약 1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 이 유적의 중심지역을 이루고 있다.

가장 큰 고인돌의 덮개돌 길이는 3.3m, 너비 1.9m로 조개날돌도끼(양인석부)와 숫돌 등이 나왔다. 그 아래에서는 선사시대 긴 네모꼴의 움집터가 나왔는데 깊이 40~90cm, 길이 15.7m, 너비 370cm에 이른다. 벽을 따라 작은 기둥 구멍이 있고, 화덕자리가 2개가 있다. 벽이 불에 탄 자국과 바닥의 재로 보아 집이 불에 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집안에서는 구멍무늬토기(공열토기), 간돌칼(마제석검), 돌도끼(석부), 가락바퀴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긴 네모꼴 집터는 서울 역삼동, 파주 교하리 유적에서도 보이는 형태이다.

약 20여기가 넘는 이곳의 고인돌은 발견 당시 대부분이 무너져 땅에 묻혀 있던 것을 학술조사 이후 몇 기만을 제 모습으로 복원하여 보존하게 되었다. 수도권 인근에서 발견된 지석묘군으로는 강화도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 유적 다음가는 큰 규모이다. 고인돌 유적지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바둑판식과 개석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덕은리의경우 모두가 탁자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집터의 연대는 B·C 7세기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인돌이 B·C 7세기 이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恭孝公 朴仲孫墓 長明燈)**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恭孝公 朴仲孫墓 長明燈)은 보물 제132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1.09.2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879번길 172-34 (오금2리)이다. 공효공 박중손과 정경부인의 묘 앞에 있는 2기의 장명등이다. 박중손(1412~1466)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천문을 관찰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의 부인인 정경부인 남평 문씨는 공조정랑 문승조의 딸이다.

이 곳 묘역에는 박중손묘와 부인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문씨(南平文氏)의 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있으며, 우측 아래쪽으로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장명등은 신도비 건립연대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기의 장명등은 각각 2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받침대인 대좌와 불을 밝히는 화사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지붕돌인 옥개석과 그 위에 연꽃봉우리 모양의 보주로 구성되었다. 공효공 박중손 묘 앞 장명등의 앞면과 뒷면 화창 모양은 사각형이나 동쪽의 화창은 동그란 원형이며 서쪽의 화창은 반달모양으로 화창의 모양이 매우 특이하다. 화창의 사각형은 땅(地)을, 원형은 해(日)을, 반달모양의 화창은 달(月)을 각각 상징한다.

두 개의 장명등 높이는 서로 비슷하나 박중손 묘 앞의 것이 조금 더 둔중해 보이고 부인 묘 앞의 것은 세장한 모습을 하고있어 마치 남녀를 구분하는 듯하다. 화창은 4면 모두 사각형으로 만들어 서로 비교가 된다. 부인묘 앞의 장명등은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관계로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명등은 화사석과 대좌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고, 특히 화창의 모양이 각각 땅과 해, 달을 상징하여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 박중손(朴仲孫)

생몰연대 : 1412(태종 12)~1466(세조 12).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경운(慶胤), 호는 묵재(默齋). 침(枕)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찬성사(贊成事) 강생(剛生)이고, 아버지는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 절문(切問)이며, 어머니는 왕고(王高)의 딸이다.

1435년(세종 1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박사가 되고, 홍문관의 부수찬(副修撰)·지제교(知製敎)를 거쳐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지병조사(知兵曹事)·동부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한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응천군(凝川君)에 봉해지면서 병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세종의 아들로 영빈 강씨(令嬪姜氏) 소생인 사위 화의군 영(和義君璿)이 수양대군을 반대하다 귀양가게 되어 한때 난처한 입장에 빠졌으나, 이어 한성부윤에 임명되었다.

그 뒤 대사헌, 공조·이조·형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밀산군(密山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세조초에 좌찬성에 승진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고시관이 되어 많은 인물을 등용시켰다. 시호는 공효(恭孝)이다.

#### 다울리·당하리 지석묘군(多栗里·堂下里 支石墓群)

다울리·당하리 지석묘군(多栗里·堂下里 支石墓群)은 경기도기념물 제129호이다. 지

정(등록)일은 1992.06.05.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당하동 당하2길 176(교하면 다울리, 당하리)이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 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파주시의 다울리·당하리·교하리가 인접한 구릉지대에는 10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이 무리를 지어 분포되어 있었는데,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는 20여 기가 남아 있으며 그 중 6기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다울리에서 발굴된 고인돌은 이미 훼손이 심한상태였기 때문에 본래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지만, 탁자식으로 추정된다. 고인돌 주변에서 나온 유물로는 작은 토기조각 등이 있으며 일부의 고인돌은 현재 경기도청, 통일로, 온양민속박물관 등에 이전 복원되었다.

당하리 고인돌 역시 훼손이 심하고 대부분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곳의 고인돌 중에는 하부구조를 타원형의 돌로 쌓아 올린 것도 있으며, 주변에서 간돌칼, 화살촉, 숫돌 등과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집터는 길이 12.5m, 너비 4m, 깊이 0.4~0.8m의 긴 네모꼴 모양의 움집으로 집터 안쪽에 화덕자리가 두 군데 있다.

이 지역은 고인돌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과 집터 등을 통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고인돌 중 1기는 파주시역 고인돌 중 유일하게 성혈(星穴)이 남아 있다.

## 마애사면석불(磨崖四面石佛)

마애사면석불(磨崖四面石佛)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5.08.07.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산31-1번지이다.

파주시 진동면 일월봉 바로 아래 높이 1.95m의 화강암에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4면을 다듬어 각 한 구씩의 불상을 새긴 사방불(四方佛)이다.

얼굴과 손은 많이 닳았지만 부분적으로 세부는 분명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불상의 크기는 동면이 1.11m이고, 서면이 0.9m, 남면은 0.99m이고 북면은 1.26m이다. 모두 몸 뒤에 광배(光背)를 갖추었고 연꽃이 새겨진 대좌(臺座)위에 앉아 있다.

손모양은 전통적인 사방불과 달리 밀교(密敎)의 금강계(金剛界) 사방불의 손모양을 하였는데 동쪽은 촉지인(觸地印)을 한 아촉여래(阿觸如來), 서쪽은 선정인(禪定印)의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남쪽은 오른손을 내려 손가락을 편 보생여래(寶生如來), 그리고 북쪽은 두 손을 안쪽으로 모은 것으로 보여 불공성취여래(不空成就如來)로 추정된

다. 주변에는 절을 하던 배례석(拜禮石)과 계단이 남아 있어 이곳이 당시의 신앙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애사면석불은 현재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방불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 말 라마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고려 전기 때 사방불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으로 보호각을 지어 보호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사방불과는 다른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 고려 전기의 불상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덕진산성(德津山城)

덕진산성(德津山城)은 사적 제53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17.1.17.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군내면 구암로 665(정자리 산13 외 일원)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다.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성은 최고봉인 해발 65m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라 돌며 구축되어 있다. 내성의 전체 모양은 표주박 형태를 하고 있다.

외성에는 두개의 문지가 완연하게 남아있고 성가퀴로 추정되는 부분이 두군데 있다.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곡저부가 형성되어 있고 완경사를 이루며 강변으로 연결되어 배를 접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임진강의 북쪽 해안이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덕진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처음 소개되었고 그외 다른 지리지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있다. 덕진산성은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된 이후, 1994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의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 및 2004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파주 덕진산성 정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문지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기와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내성 외벽 조사에서 성벽 기저부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둥글게 돌아간 석축이 노출되었고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보축과 함께 계단식 석축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성은 토축성으로 성벽은 거친 흙다짐을 하면서 흙을 쌓아 토성을 축조하였는데, 외벽은 자연석과 흙을 섞어 성벽을 만들고, 내벽은 주로 성토하여 성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성벽 외측에서는 목책을 설치하였던 흔적도 확인되었는데, 이로부터 토성을 구축하고 그 외부에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시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와서 조성한 것으로 광해군대에 국내외적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매우 시급하게 조성하였기 때문에 성벽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덕진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치폐를 거듭하며 사용되었으며, 인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로그루나 당포성, 은대리성, 무



등리보루 등과 함께 임진강의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삼국시대 성곽임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전략적 우수성으로 다시 외성을 확장·수축하여 사용했던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성이다.

### 파산서원(坡山書院)

파산서원(坡山書院)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3.09.19.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길 24-40 (늘노리 235)이다.

조선 중기 학자인 청송 성수침(1493~1563)과 그의 아들 우계 성훈(1535~1598), 형제 절효공 성수종(1495~1533) 및 휴암 백인걸(1497~1579)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다.

조선 선조 원년(1568)에 율곡 이이 등 파주지역 유생들이 세웠고, 효종 원년(1650) 나라에서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후에 복구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불탔고, 1966년 서원의 사당만을 복원하게 되었다. 사당 주위에는 담장이 둘러져 있고, 정면 가운데에 솟을삼문을 두었다.

사당은 이별대의 기단위에 전돌을 깔고 원형의 초석과 원기둥으로 되어 있다.

건물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 지붕이다. 전면칸은 퇴칸(退間)으로 개방되어있고 각 칸에는 2분합의 띠살문을 달아 놓았다. 기둥머리에는 보 방향으로 2단의춧가지를 결구한 이익공(二翼工)의 공포형식(栱包形式)을 이루고 있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싸여져 있다. 이 건물의 주춧돌과 기단석 등은 서울 당시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전국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다.

### 춘곡 정탁묘(春谷 鄭擢墓)

춘곡정탁묘(春谷鄭擢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17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0.06.12.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5번지이다.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인 춘곡(春谷) 정탁(1363~1423)의 묘소이다.

고려 우왕 8년(1382)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 수찬을 역임한 뒤 여러 관직을 지낸 후 1392년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이 되어 성균대사성에 올랐으며, 태조 5년(1396)에는 중국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돕기도 하였으며, 이후 두루 관직을 거쳐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묘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축대를 쌓았고 봉분 앞쪽은 돌을 쌓아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형이다. 봉분 앞에는 묘비와 상석·문인석이 있으며 묘비는 마모가 심해 글자를 읽기 어렵다.

묘역은 고려형식의 묘제인 장방형 형태로 봉분 앞에 ‘ㄷ’자 모양의 호석을 두른 특이한 형태이다. 봉분 앞에는 비석과 상석 그리고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 ■ 정탁(鄭擢)

생몰연대 : 1363(공민왕 12)~1423(세종 5).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여괴(汝魁)·축은(築隱), 호는 춘곡(春谷). 아버지는 정당문학(政堂文學) 공권(公權)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 후 고려대를 통하여 춘추관수찬관·사헌규정(司憲糾正)·좌정언·호조좌랑·병조좌랑·광흥창사(廣興倉使) 등을 역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사헌부지평과 성균관사예를 거쳐 대장군이 되었고, 이성계의 추대를 제일 먼저 발의한 공로로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393년 문하부직문하(門下府直門下), 이듬해 대사성이 되었다. 1396년 중추원우승지로 있을 때 전년부터 조선과 명나라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표전문제(表箋問題)의 찬표인(撰表人)으로 명나라에 압송되었고, 귀환하여 좌승지에 서용되었으며, 다음해 중추원부사에 승진하면서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

1398년(정종 즉위년) 10월 방간(芳幹)의 난 평정에 대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 곧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다. 이어 예문관·춘추관의 대학사, 정당문학을 거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삼사우사(三司右使)를 지냈다.

1403년(태종 3) 판한성부사가 되었으며, 1405년 살인죄로 직첩을 몰수당하고 영해로 유배되었으나 공신이므로 곧 사면되었다.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거쳐, 1408년 태조가 죽자 고부청시사(告訃講諭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5년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진봉되었고, 1421년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익경(翼景)이다.

## 월룡산성지(月籠山城址)

월룡산성지(月籠山城址)는 경기도 기념물 제196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4.05.0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월롱면 월룡산로 254(덕은리 138)이다.

탄현면 금승리와 월롱면 덕은리, 그리고 금촌 야동동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해발 246미터의 월룡산은 예로부터 신산으로 알려져 있다. 월룡산 내령은 크게 두 개의 봉우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월롱면 덕은리와 야동동 쪽을 ‘파주 월룡산’이라 하고 탄현면 금승리 쪽을 ‘교하 월룡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월룡산 서쪽에 월룡산과 해발높이가 비슷한 기간봉이 있으며 이곳에는 측량에 이용된 기가 꽃혀 있어 깃대봉으로 부르기도 한다. 월룡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파주 일대를 모두 조망할 수 있어 월룡산은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다. 그 동안 문헌적으로 월룡산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인 산성의 규모와 실체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의 정밀 학술조사에서 월룡산성이 임진강과 한강 하구지역을 통제하던 초기 백제의 주성 역할을 담당했던 성으로 밝혀졌다.

월룡산성은 동서남북이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의 외벽은 거의 20미터 이상이 절벽

인 자연지형을 이용하였고, 현재 내벽의 대부분은 정연한 석축형태를 보이지 않고 일부 석재만이 노출되어 있다. 문지는 동문지, 서남문지, 서북문지, 북문지가 확인되며 동문지와 북문지를 제외한 서남문지와 서북문지는 자연암반을 계단 모양으로 깎아 내면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 정상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등산객들이 수시로 월롱산을 찾고 있어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육계토성(六溪土城)

육계토성(六溪土城)은 경기도 기념물 제21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7.10.22.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413외 일원이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유역의 남한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평지토성이다.

이곳은 임진강이 사행 곡류하여 북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로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도하지점의 하나인 가야울과 서쪽의 두지나루를 조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곳으로도 하하는 적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내·외부는 대부분 논과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내부에 예전 군부대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구덩이 유구등과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의 초기 백제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 읍내리석조여래입상

읍내리석조여래입상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6.07.03.이고 소재지는 군내면 읍내리 산 142이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민통선(民統線)지역인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 142번지 백학산(白鶴山)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석불은 현재 불신(佛身)과 불두(佛頭)가 절단된 상태로 불두는 배례석(拜禮石) 위에 놓여 있는데 다소 마모가 되기는 하였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불두 머리 위에는 육계(肉髻)가 높게 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육계 주변의 조각 상태와 별다른 결구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개석(寶蓋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얼굴은 다소 평면적인데 눈은 선각(線刻)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고 코는 높다. 귀는 돌을대를 활용하여 상하로길쭉하게 하였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불두는 전체적으로 정연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간략화나 형식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두 전체 높이는 134cm, 육계 높이 24cm, 머리 폭은 63cm의 규모이다. 불신(佛身)은 원래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부가 매몰되어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불신에 옷주름을 두껍게 표현하여 신체의 윤곽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의(法衣)는 목 아래로 깊게 파인 통견의(通絹衣)로 목 아래 법의 사이에V자형으로

파인 가슴에는 사각형의 장식물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다. 옷주름은 일정한 간격으로 단을 이루며 하반신까지 내려가면서 전신을 덮고 있다. 두 팔은 옷주름 안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불신 외곽으로 길게 내려 복부 위에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형상이지만 법의 안쪽으로 표현되어 정확한 수인(手印)은 알 수 없다.

불신의 규모는 전체 높이가 334cm에 달한다. 이 석불은 조성 위치나 신앙적 배경, 불두와 불신의 전체적인 조각 기법이 간략화와 형식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불신의 불균형적이며 비사실적인 표현 기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석불이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형식과 양식이 지방에서 조성된 석불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 **파주향교 대성전(坡州鄉校 大成殿)**

파주향교대성전(坡州鄉校大成殿)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2.06.05.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56-83 (파주리 335)이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들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조선시대 파주목에 파주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태조 7년(1398) 때로 알려져 있고 세종(1418)때 중창(重創)하였다고 전한다. 일설에는 원래 봉서산(鳳棲山) 구향교(舊鄉校)골에 있던 것을 세조 2년(1456)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하나 확실치는 않다.

경내에는 대성전(大成殿)을 비롯하여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내·외삼문(內·外三門)이 위치하고 있다. 명륜당과 내·외삼문은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71년 다시 지은 것이다. 강학공간(講學空間)인 명륜당을 앞에 두고 배향공간(配享空間)인 대성전을 뒤로하여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건축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성전은 앞면 3칸·옆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단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으로 꾸민 익공 양식이다. 기둥 사이에는 위쪽의 무게를 받기 위해 각 칸에 2개씩 꽃받침<화반(花盤)>을 설치하였다. 세부 구조수법으로 보아 현 건물은 조선시대 말기에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坡平尹氏貞靖公派墓域)**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坡平尹氏貞靖公派墓域)은 경기도 기념물 제182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2.09.1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성재길 220(당하동 산4-20번지 외 일원)이다.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일대 파평윤씨 교하종중의 선산(762,413㎡)에 분포하고 있는 정정공(貞靖公) 윤번(尹璠)을 중시조로 하는 정정공파의 묘역 약 600여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중 중요 묘역 96기가 최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곳의 묘역군은 조선시대의 묘역이 한 종중에 의해 연대별로 집중되어있는 곳으로 묘역의 역사적 계기성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곳 묘역에 조성되어 있는 묘제 및 석물, 각종 묘비 등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시대별 묘제의 특징과 성격을 보여주며 또한 역사적, 미술사적, 복식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조선시대 분묘 야외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 분포하는 묘역 중 주요한 묘를 보면 조선초 세조대왕의 비인 정희왕후 윤씨의 부친 윤번 묘와 중종의 비 장경왕후 윤씨의 부친 윤여필(尹汝弼, 1466~1555) 그리고 역시 중종의 비 문정왕후 윤씨의 부친 윤지임(尹之任, ?~1534) 묘 등 부원군 묘역 3기를 중심으로 정승 묘역 7기, 판서묘역 8기, 참판묘역 30기 등이 분포하고 있다.

### 교하물푸레나무(交河물푸레나무)

교하물푸레나무(交河물푸레나무)는 경기도기념물 제18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2.09.1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청석로 298(다율동 산122-4번지 외 일원)이다.

교하 다율리 물푸레나무는 이 마을의 수호목으로 농사철이면 나무 밑 그늘에서 휴식을 하던 장소로 이용해 왔다. 2000년도 조사에서 약 100년의 수령이된 튼튼한 물푸레나무로 밝혀졌으며 당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물푸레나무의 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지난 2002년 9월 16일경기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교하 물푸레나무는 수령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높이가 약11m, 둘레 2.73m이며 수관폭은 동 5.7m, 서 8.6m, 남 7.7m,

북 6.8m이다. 전체적으로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건강한 생장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에 어린 물푸레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어 이곳이 물푸레나무의 생장에 적합한 토양과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곳 물푸레나무는 적성면 무건리의 천연기념물인 물푸레나무에 비해 수령은 적어 보이나 수세 및 생장 상태가 훨씬 양호해 파주 지역의 고유성과 함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노거수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무건리 물푸레나무의 대체목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연 묘(鄭淵墓)

정연 묘(鄭淵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13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3.06.03.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 법흥로 39(법흥리 산148번지)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송곡(松谷) 정연(1389~1444) 선생의 묘이다.

태종 5년(1405) 생원시에 합격하고 관직에 있던 중 당시 수상이던 하륜의 비행을 탄핵한 일로 문책을 받았으나 풀려난 뒤 형조·병조 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사헌부의 관직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다.

묘역은 크게 2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하단 전면과 좌우면에 장대석으로 보호석을 돌렸는데 방형에 가까운 장방원형분이다. 봉분 앞에는 화관석(花冠石) 형태의 묘비 2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좌측이 정연의 묘비로 세종 26년(1444)에 건립된 것이고 우측이 부인의 것으로 세종 27년에 건립된 것이다. 봉분 앞은 널따란 돌로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좌우에 문인석 2쌍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묘제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봉분 뒤의 낮은 돌담은 최근에 묘역 보호를 위해 세운 것이다.

#### ■ 정연(鄭淵)

생몰연대 : 1389(창왕 1)~1444(세종 26).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 아버지는 홍(洪)이며, 안평대군 용(瑢)의 장인이다.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지평에 재직 중 당시 수상(首相)이던 하륜(河崙)을 탄핵한 일로 순금사(巡禁司)에 내려져 국문을 받았으나 속죄되어 풀려났다. 도관(都官)·정랑을 거쳐 종부시소윤(宗簿寺少尹)에 올랐다.

1420년(세종 2) 다시 장령이 되었을 때 상왕(上王:태종)이 철원에 가려는 것을 간하다가 진산에 유배되었다. 1424년 다시 장령이 되고, 이어 선공감정·집의·동부대언, 형조·이조·병조의 참판을 지냈다.

1430년 천추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인순부윤(仁順府尹)·중추원사, 형조·병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1442년 사은 겸 주문사(謝恩兼奏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정숙(貞肅)이다.

#### 화석정(花石亭)

화석정(花石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4.09.2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 152-72 (울곡리)이다.

율곡 이이(1536~1584)가 자주 들러 시를 짓고 명상을 하며 학문을 연구하던 곳으로, 임진강이 굽어보이는 강가의 벼랑 위에 위치하고 있다.

율곡리 임진강가 벼랑 위에 자리 잡은 조선시대 양식의 정자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겹처마의 초익공(初翼工) 형태이다. 이 곳 화석정 자리는 고려 말 대유학자인 길재(吉再)의 유지(遺址)였던 자리라고 전해지나 확인할 수는 없다. 세종 25년(1443) 율곡 이이(李珥)의 5대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이 세운 것을 성종 9년(1478) 율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보수하고 몽암(夢庵) 이숙함이 화석정이

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정자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장인 평천장(平泉莊: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함)의 기문(記文) 중에 보이는 “花石”을 따서 정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후 이이(李珣)가 다시 중수하여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들과 시와 학문을 논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그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勅使) 황홍헌(黃洪憲)이 이곳을 찾아와 시를 읊고 자연을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또한 왜구의 침공에 대비해 10만양병설을 주장한 이이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 가던 중 한밤중에 강을 건널 때 이 정자를 태워 불을 밝혔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그후 80여 년간 빈터만 남아 있다가 1673년(현종 14)에 이이의 증손인 이후지(李厚址)·이후방(李厚坊)이 복원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현재의 정자는 1966년경기도 파주시 유림들이 다시 복원하고 1973년 정부가 실시한 울곡 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단청되고 주위도 정화되었다. 건물의 정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花石亭” 현판이 걸려 있고 내부에는 이이가 8세 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가 걸려 있다.

### 황희선생영당지(黃喜先生影堂址)

황희선생영당지(黃喜先生影堂址)는 경기도 기념물 제2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6.08.27.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 53-85 (사목리 산 187)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청백리의 대표격인 황희(1363~1452)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영당이 있던 곳이다. 선생의 호를 따라 방촌 영당이라고도 한다.

황희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노력했으며, 세종(재위 1418~1450)대에는 영의정이 되어 왕을 도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의 삶을 통한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문종 2년(1452) 황희가 89세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으며, 세조 1년(1455)에 유림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당을 짓고 영정을 모셨다.

이 영당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1962년에 후손들이 복원한 것으로, 사람 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에 앞면 3칸·옆면 2칸의 규모이다. 내부에는 중앙에 영정을 모셨으며, 전퇴(건물의 앞쪽에 다른 기둥을 세워서 달아 만든 칸)는 개방되어 있다. 측벽은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기둥머리는 초익공의 공포형식이며, 단청이 단아하다. 영당 내부에는 중앙에 감실을 두고 그 안에 영정을 모셨으며,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반자가 꾸며진 우물천장이다. 건물 주위로는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입구에는 솟을삼문이 있다. 영당주위로는 선생께서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냈다는 반구정과 양지대가 있으며 재실인 경모재와 선생의 고손인 월헌공 황맹헌 선생의 부조묘 등 있다.

## 허준 묘(許浚墓)

허준 묘(許浚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2.06.05.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진동면 구암로 205(하포리 산129번지)이다. 관리주체는 허준기념사업회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의(名醫) 허준(?~1615)의 묘이다.

선생의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다. 용천부사를 지낸 허론(許論)의 서자로 선조 7년(1574) 내의원(內醫院)에 들어간 후 해민서 봉사(奉事)를 거쳐 전의(典醫)로 발탁되어 왕실의 진료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선조25년(1592) 임진왜란 때 어의(御醫)로서 왕을 의주까지 모셨으며 1604년 호성공신3등에 1606년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2년(1610)에는 16년간의 연구 끝에 25권의 방대한 의학서인『동의보감』을 완성하였고, 사망한 후에 관직 최고의 영예인 보국숭록대부에 올랐다. 그 동안 선생의 묘는 확인되지 않다가 1991년 9월 30일 재미 고문서 연구가 이양재 씨 등이 《양천허씨족보》에 기록된 “진동면 하포리 광암동 선좌 쌍분”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 발견되었다. 묘역은 약 50평의 규모로 우측 묘는 부인 안동김씨의 묘로 추정된다. 이들 두 묘위에 허준선생의 생모로 추정되는 묘가 한 기 더 있다.

발견 당시 봉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묘비나 문인석 등이 흩어져 있었다. 묘비는 두 쪽으로 잘라져 있었지만 비문 가운데 ‘양평군’, ‘호성공신’, ‘허준’이라는 글자 등을 통해 허준의 묘역임이 확인되었다.

### ■ 허준(許浚)

생몰연대 : 1546(명종 1)~1615(광해군 7).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 김포 출신. 할아버지 허곤(許琨)은 무과 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지냈고, 아버지 허윤(許論)도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무과에 지원하지 않고 29세인 1574년(선조 7)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內醫院)에 봉직하면서 내의·태의·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의 실력을 청나라 및 일본에까지 과시하였다.

1575년 2월에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에 입진(入診: 진찰을 맡음)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으며, 1578년 9월에는 내의원참정으로 당시에 새로 출판된 『신간보주동인유혈침구도경(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을 하사받았다.

1581년에 고양생(高陽生)의 원저인 『찬도맥결(纂圖脉訣)』을 교정하여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脉訣集成)』 4권을 편성하여 맥법진단의 원리를 밝혔다.

1587년 10월에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楊禮壽)·이공기(李公沂)·남응명(南應命) 등과 함께 입진하여 상체(上體)가 평복(平復: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됨)함으로써 호피(虎皮) 일영(一令: 가죽 하나)을 받았으며, 1590년 12월에 왕자의 두창(痘瘡: 천연두)이 쾌차



하였으므로 당상(堂上: 정3품 이상의 벼슬)의 가자(加資: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올림)를 받았다.

이 때에 정원(政院)·사헌부·사간원에서 허준의 의료에 관한 공로는 인정하나 의관으로서 당상가자를 받는 것은 지나친 상사라 하여 여러 차례 그 가자를 거두기를 계청(啓請: 왕에게 청을 올림)하였으나, 그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허준은 선조의 피난지인 의주까지 호종(扈從: 왕의 가마를 수행함)하여 왕의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셔 호종공신(扈從功臣)이 되었으며, 그 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그러던 중 1596년에 선조의 명을 받들어 유의(儒醫) 정작(鄭碯), 태의 양예수·김응탁(金應鐸)·이명원(李命源)·정예남(鄭禮男)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해에 다시 정유재란을 만나 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편집의 일은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의 일을 맡기고 내장방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어 고증하게 하였는데, 허준은 어의로서 내의원에서 의무에 종사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편집의 일에 전심하여 10여년 만인 1610년(광해군 2)에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25권 25책이다.

『동의보감』은 그 당시의 의학지식을 거의 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內景)·외형(外形)·잡병(雜病)·탕액(湯液)·침구(鍼灸)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의 의학실력을 동양 여러 나라에 드러나게 한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출판된 뒤 곧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판되어 귀중한 한방임상의학서가 되었다.

허준은 『동의보감』 이외에도 많은 의방서 등을 증보 개편하거나, 또는 알기 쉽게 한글로써 해석, 출판하였다. 1601년 세조 때에 편찬한 『구급방(救急方)』을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으로 주해하였으며, 임원준(任元濬)의 『창진집(瘡疹集)』을 『두창집요(痘瘡集要)』로 그 이름을 바꾸어 언해, 간행하였다.

1608년에는 노중례(盧重禮)의 『태산요록(胎產要錄)』을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1612년에는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들을 구료하기 위하여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 1권과 『벽역신방(辟疫神方)』 1권을 편집하여 내의원에서 간행, 반포하게 하였다.

전자인 『신찬벽온방』은 그 전해 12월에 함경도와 강원도 양도에서 온역(瘟疫)이 유행하여 남으로 내려와서 각 도에 전파되므로 이미 전해오던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을 다시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후자인 『벽역신방』은 그 해 12월에 각 지방에서 발진성(發疹性)의 열병인 당독역(唐毒疫)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하였다.

이러한 의방서들의 편찬은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나라 명의로서의 관록을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허준은 내의·태의·어의로서 선조의 총애를 계속 받아왔다.

1601년에는 내의로서 정헌대부(正憲大夫)·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서임하였고, 1604년 6월에는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3등에 복명하면서 숙마(熟馬)한 필을 하사받았으며, 1606년 정월에 양평군 정일품 보국숭록대부(陽平君正一品輔國崇祿大夫)를 가자받았다.

그런데 종래 우리 나라의 계급으로는 의업은 중서급(中庶級)에 속하였는데, 허준이 대신들과 계급을 같이하는 동반(東班: 양반 중 文班)의 부원군(府院君: 정1품 공신에게 주는 작호)과 보국(輔國: 정1품인 輔國崇祿大夫의 준말)의 지위를 누리게 됨으로써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할 것을 계청하였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집하였으나 선조도 끈질긴 계속적인 계청에 할 수 없이 그 가자를 한때 보류하도록 하였다.

1607년 11월에 선조의 환후가 점차로 위독하게 되어 그 다음해 2월에 죽을 때까지 허준은 입진의 수의(首醫)로서 다른 어의들을 독려하여 어약을 논하는 모든 일을 전담하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어의로서 왕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아왔다.

선조가 죽은 뒤 종래의 예에 따라 주치의 수의에게 책임을 물어 형식적으로 대죄(待罪)를 하게 되었으나 광해군의 만류로 사면되었다.

1615년 11월에 70세를 일기로 죽게 되자, 호성(扈聖) 공로의 어의로서 선조가 일찍이 보류하였던 부원군과 보국의 가자를 추증하였다. 허준은 의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당상의 부군과 보국의 지위를 누렸다.

### 황희선생묘(黃喜先生墓)

황희선생묘(黃喜先生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34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6.08.27.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탄현면 정승로 88번길 23-67(금승리 산1번지)이다.

조선 왕조를 통하여 가장 명망있는 재상으로 칭송되었던 방촌(龐村) 황희(1363~1452) 선생의 묘소이다.

고려 공민왕 1년(1389)에 문과에 급제한 후 성균관학록을 지냈으며 고려가 멸망하자 한 때 시골에 은거하였으나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학관으로 제수되었고 이후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다.

그는 태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6조의 판서, 대사헌 등 요직을 거치면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여 조선 초기 국가 기반을 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태종 대의 관직생활을 통해 얻은 국정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토대로, 세종 대에는 20여 년간 나라살림을 총괄하던 의정부에서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4군 6진의 개척, 문예진흥 등을 지휘하여 세종성세(世宗盛世)에 크게 공헌하였다.

묘역은 3단으로 넓게 조성되었고, 봉분 역시 규모가 크다. 봉분의 구조는 다른 묘의 형태와는 달리 전면을 ㄷ자 모양으로 화강암 장대석을 이용하여 전방을 향해 3단의 호석(護石)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구조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이 밀착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4개의 화창이 투각된 장명등이 있다.

봉분좌측에 묘갈이 위치하며 그 아래로 동자상과 문인석이 각각 1쌍씩 설치되어 있다. 묘역의 아래에 위치하고있는 원모재 앞 언덕에 신도비가 있는데 연산군 11년(1505)에 세워졌으며 신숙주가 짓고 안침이 썼다. 비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며 옆에 194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고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황희 선생 묘와 약 200m 떨어진 맞은 편 산자락에는 선생의 셋째 아들인 황수신(黃守身, 1407~1467)의 묘가 위치하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 ■ 황희(黃喜)

생몰연대 : 1363(공민왕 12)~1452(문종 2).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龐村). 석부(石富)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균비(均庇)이고, 아버지는 자헌대부 판강릉도호부사(資憲大夫判江陵大都護府使) 군서(君瑞)이며, 어머니는 김우(金祐)의 딸이다. 개성 가조리(可助里)에서 출생하였다.

1376년(우왕 2) 음보로 복안궁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다. 1383년 사마시, 1385년 진사시에 각각 합격하였다. 그리고 1389년에는 문과에 급제한 뒤, 1390년(공양왕 2) 성균관학록에 제수되었다.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다. 그러다가 1394년(태조 3) 조정의 요청과 두문동 동료들의 천거로 성균관학관으로 제수되면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하였다. 이후 직예문춘추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398년 문하부우습유(門下府右拾遺) 재직 중 언관으로서 사사로이 국사를 논의했다고 문책되어 경원교수(慶源教授)로 편출되었다가, 1398년(정종 즉위년) 우습유로 소환되었다. 이듬 해 언사로 파직되었다가 그 해 2월경 문하부우보궐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언사로 파직되었으며, 곧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를 거쳐 형조·예조·이조·병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경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태종에게 천거해 도평의사사경력(都評議使司經歷)에 발탁되었다.

그 뒤 병조의랑에 체직되었다가 1402년 아버지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러나 그 해 겨울 군기(軍機)를 관장하는 승추부의 인물난으로 기복되어 대호군 겸 승추부경력에 제수되었다. 1404년 우사간대부를 거쳐 승정원좌부대인에 오르고, 이듬 해박석명의 후임으로 승정원지신사에 발탁되었다.

1409년 참지의정부사가 되고, 형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대사헌 등을 지냈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 해 질병으로 사직했다가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다.

1415년 이조판서 재직중 송사(訟事) 처리와 관련해 육조에 문책이 내려지면서 파직되었다. 그러나 그 해 행랑도감제조(行廊都監提調)에 복위된 데 이어, 참찬·호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416년에는 세자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실행(失行)을 옹호하다가 다시금 파직되었다.

그 뒤 조정으로 복귀해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리고 평안도도순문사 겸 평양윤, 판한성

부사를 역임하였다. 1418년 세자 폐출의 불가함을 극간하다가 태종의 진노를 사서 교하(交河)로 유배되고, 곧 남원부에 이치(移置)되었다.

세종의 치세가 시작되고 아울러 상왕(上王 : 태종)의 노여움이 풀리면서, 1422년(세종 4) 남원으로 소환, 직첩과 과전을 환급받고 참찬으로 복직되었다. 1423년 예조판서에 이어 기근이 만연된 강원도에 관찰사로 파견되어 구휼하였다.

그리고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에 제수되면서 강원도관찰사를 계속 겸대하였다. 1424년 찬성, 이듬해에는 대사헌을 겸대하였다. 또한 1426년에는 이조판서와 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발탁되면서 판병조사를 겸대하였다.

1427년 좌의정 겸 판이조사가 되었고, 그 해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하였다. 그 뒤 기복되어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이어 평안도도체찰사로 파견되어 약산성기(藥山城基)를 답사하였다. 이 때 약산이 요충지라 해서 영변대도호부를 설치한 뒤 평안도도절제사의 본영으로 삼게 하였다.

1430년 좌의정으로서, 감목(監牧)을 잘못해 국마(國馬) 1,000여 필을 죽인 일로 해서 사헌부에 구금된 태석균(太石鈞)의 일에 개입해 선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일국의 대신이 치죄에 개입함은 부당할 뿐더러, 사헌부에 개입하는 관례를 남기게 되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래서 한때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하였다. 1431년 다시 복직되어 영의정부사에 오른 뒤 1449년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하기까지 18년 동안 국정을 통리(統理)하였다. 그리고 치사한 뒤에도 중대사의 경우 세종의 자문에 응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침착하였다. 그리고 사리가 깊고 청렴하며, 충효가 지극하였다. 학문에 힘써 높은 학덕을 쌓았으므로 태종으로부터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공신으로서 대우했고, 하루라도 접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했으며,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농사개량에 유의해 곡식 종자를 배급하고, 각 도에 명령해 뽕나무를 많이 심어 의생활을 풍족하게 하였다. 또한 《경제육전 經濟六典》을 펴내면서, 종래 원집(元集)과 속집(續集)으로 나뉘어 내용이 중복되고 누락되거나 내용과 현실이 괴리되는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국방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방 야인과 남방 왜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예법을 널리 바르게 잡는 데에 노력해, 원나라의 영향이 지대한 고려의 예법을 명나라의 예법과 조선의 현실을 참작해 개정, 보완하였다.

또한, 인권에 유의해 천첩(賤妾) 소생의 천역(賤役)을 면제하는 등 태종대의 국가기반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세종대에는 의정부의 최고관직인 영의정부사로서 영집현전경연예문관춘추관서운관사 세자사 상정소도제조(領集賢殿經筵藝文館春秋館書雲觀事世子師詳定所都提調) 등을 겸대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鎮定)시키면서, 4군6진의 개척,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였다. 특히,

세종 말기에 세종의 숭불과 관련해 궁중 안에 설치된 내불당(內佛堂)을 두고 일어난 세종과 유학자 중신 간의 마찰을 중화시키는 데 힘썼다.

이처럼 그는 왕을 보좌해 세종성세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를 통해 가장 명망 있는 재상으로 칭송되었다. 1452년(문종 2) 세종묘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1455년(세조 1) 아들 수신(守身)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면서 순충보조공신 남원부원군(純忠補祚功臣南原府院君)으로 추증되었다.

상주의 옥동서원(玉洞書院)과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고, 파주의 반구정에 영정이 봉안되었다. 저서로는 《방촌집》이 있으며,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 성혼선생 묘(成渾先生 墓)

성혼선생 묘(成渾先生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5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1.07.1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60-20(향양리 산8-2번지)이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우계(牛溪) 성혼(1535~1598) 선생의 묘소이다. 휴암 백인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같은 고을에 사는 이이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학문 성향에서는 이황을 지지하여 이이와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의 덕행이 뛰어나 여러 번 관직이 주어졌으나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이이의 권유로 이조참판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에는 우참판에 이르고 선조 27년(1594)에는 좌참판에 이르렀다. 그가 죽은 뒤 선조 35년(1602)에 사화와 관련하여 관직이 박탈되었다가 인조 11년(1633)에 다시 좌의정의 벼슬이 내려졌다.

파주읍에서 문산읍으로 향하는 국도를 따라가는 중간에 성혼선생의 묘와 사당을 관리하는 마을이 있고, 이 마을 끝에 난 좁은 시멘트 길을 50미터 정도 걸어가면 산자락에 사당이 있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을 중심으로 우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봉분정면에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를 정면으로 하여 오른쪽에는 인조 27년(1649)에 김집이 글을 짓고 윤순거가 글씨를 써서 세운 묘비가 있다. 상석 앞에는 장대석으로 계단을 쌓았으며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묘소의 입구 우측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김집(金集)이 썼으며 전액(篆額)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 ■ 성혼(成渾)

생몰연대 : 1535(중종 30)~1598(선조31).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호원(浩原), 호는 묵암(默庵)·우계(牛溪). 현령 충달(忠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세순(世純)이고, 아버지는 현감 수침(守琛)이다.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판관 사원(士元)의 딸이다. 서울 순화방(順和坊 : 지금의 종로구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며, 파주 우계에서 거주하였다.

1551년(명종 6)에 생원·진사의 양장(兩場) 초시에는 모두 합격했으나 복시에 응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그 해 겨울 백인걸(白仁傑)의 문하에서 《상서 尙書》를 배웠다. 1554년에는 같은 고을의 이이(李珥)와 사귀면서 평생지기가 되었다. 1568년(선조 1)에는 이황(李滉)을 밋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1561년에 어머니상을, 1564년에 아버지상을 당하였다. 1568년 2월에 경기감사 윤헌(尹鉉)의 천거로 전생서참봉(典牲署參奉)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에는 목청전참봉(穆淸殿參奉)·장원서장원(掌苑署掌苑)·적성현감(積城縣監) 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모두 사양하고, 조헌(趙憲) 등 사방에서 모여든 학도들의 교훈에 힘썼다.

그는 <서실의 書室儀> 22조를 지어 벽에 걸어놓고 제생을 지도했으며,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주자(朱子)의 글을 발췌하여 읽히기도 하였다. 1572년 여름에는 이이와 9차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하였다.

즉, 그는 일찍이 이황을 사숙했으나 그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는 회의를 품고 있었다. 《중용》 서(序)에서 주자 또한 인심도심(人心道心)을 양변으로 나누어 말한 것을 보고, 이황의 호발설도 불가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이이에게 질문한 데서 시작되었다.

1573년 2월에 공조좌랑에, 7월에 장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그 해 12월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과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관(憲官)에 임명되기는 기묘사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이이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모두 사임하였다.

1575년 6월에 다시 지평으로 불러 상경했으나 병으로 사체(辭遞 ; 사양하여 임명이 보류됨.)하니 선조는 의원을 보내 약을 지어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공조좌랑·사헌부지평 등을 제수했으나 사임하고 본가로 돌아가니 선조는 그의 체임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사헌부지평·예빈시판관·장흥고주부·종묘서령·광흥창주부·사헌부장령·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으로 계속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1581년 정월에는 종묘서령(宗廟署令)으로 체임되었으나 귀향은 허가받지 못하였다. 그 해 2월 사정전(思政殿)에 등대(登對 : 임금을 찾아 봄.)하여 학문과 정치 및 민정에 관해 진달했으며, 왕으로부터 급록이 아닌 특은(特恩)으로 미곡을 하사받았다.

그 해 3월에는 사헌부장령에서 내섬시첨정(內贍寺僉正)으로 전직되고, 4월에는 장문의 봉사(封事)를 올렸다. 그 요지는 신심(身心)의 수양과 의리의 소명(昭明)을 강조하는 한편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군자와 소인을 등용함에 따라서 치란(治亂)이 결정된다고 역설하였다.

또 역법(役法)과 공법(貢法)의 민폐를 논하고 경장(更張)을 역설하되 혁폐도감(革弊都監)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채택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귀향이 허가된 것도 아니었다. 녹봉을 거부하면 미숙(米菽 : 식량)을 하사하면서까지 귀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내섬시첨정·풍저창수(豐儲倉守)를 역임하면서 선정전(宣政殿)에 등대했으며, 특별히 경연에 출입하도록 명을 받았다. 그 뒤 전설사수(典設司守)·충무위사직(忠武衛司直)에 제수되었다. 그는 경연석상 또는 상소로 계속 그만두고 물러날 것을 청했지만,

도리어 겨울용 신탄(薪炭 : 땔감의 하나)을 명급하고 용양위상호군(龍驤衛上護軍)에 승진되었다. 그 해 연말에 선조의 윤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582년에는 다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사옹원정(司饗院正)·사재감정(司宰監正) 등으로 불렸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듬해 특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하여 병조참지(兵曹參知)로, 이어 이조참의에 전직, 은대(銀帶)를 하사받았는데, 이는 이이가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상경을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곧 이조참판에 특배되었다.

이러한 그의 관계 진출은 이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이 후 이이가 죽자 사양하면서 돌아갈 것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맡았다. 그 해 7월에 파산(坡山)으로 돌아와 사직소를 올렸으나 검직만 면하고, 그 해 12월에는 경기감사를 통해 내린 식물(食物)을 사급받았다.

1585년 정월에 찬집청당상(纂集廳堂上)으로, 5월에는 동지중추부사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 뒤 동인들이 득세하여 그를 공격했으므로 자핵상소(自劾上疏 ;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하였다. 1587년에는 자지문(自誌文 : 자신이 죽은 뒤에 성명이나 행적 등을 밝힌 글)을 지어두기까지 하였다.

그는 이이가 죽은 뒤 서인의 영수 가운데 중진 지도자가 되었다. 1589년 기축옥사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조판서에 복귀했는데, 동인의 최영경(崔永慶)이 억울하게 죽자 동인의 화살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정철(鄭澈)에게 최영경을 구원하자는 서신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1590년에는 양민(養民)·보방(保邦)·율탐(律貪)·진현(進賢)의 방도를 논하는 장문의 봉사소(封事疏)를 올리고 귀향하였다. 1591년에 《울곡집 栗谷集》을 평정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문준(文濬)에게 국난에 즈음하여 죄척지신(罪斥之臣)으로서 부난(赴難)할 수 없는 그의 처신을 밝히고, 안협(安峽)·이천(伊川)·연천(連川)·삭녕(朔寧) 등지를 전전하면서 피난하였다.

이 후 세자가 이천에서 주필(駐蹕)하면서 불러들여 전삭녕부사 김궐(金漬)의 의병군중(義兵軍中)에서 군무를 도왔다. 8월에는 개성유수 이정형(李廷馨)의 군중에서 군무를 도왔고, 성천(成川)의 분조에서 세자를 배알하고 대조(大朝 : 선조가 있는 곳)로 나갈 것을 청하였다. 그가 성천을 떠나 의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대조에서 그를 의정부우참찬에 특배하였다.

그는 의주의 행조(行朝)에서 우참찬직을 사양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편의시무9조 便宜時務九條>를 올렸으며, 이어 대사헌·우참찬을 지냈다. 1593년에 잦은 병으로 대가가 정주·영유(永柔)·해주를 거쳐 서울로 환도할 때 따르지 못했고, 특히 해주에서는 종전을 곁에서 호위하였다.

1594년 석담정사(石潭精舍)에서 서울로 들어와 비국당상(備局堂上)·좌참찬에 있으면서 <편의시무14조>를 올렸다. 그러나 이 건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무렵 명나라는 명군을 전면 철군시키면서 대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와 그는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명나라의 요청에 따르자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또 허화완병(許和緩兵 : 군사

적인 대치 상태를 풀어 강화함.)을 건의한 이정암(李廷菴)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받았다.

특히 왜적과 내통하며 강화를 주장한 변몽룡(邊蒙龍)에게 왕은 비망기를 내렸는데, 여기에 유식인(有識人)의 동조자가 있다고 지적하여 선조는 은근히 성혼을 암시하였다. 이에 그는 용산으로 나와 결해소(乞骸疏 : 나이가 많은 관원이 사직을 원하는 소)를 올린 후, 그 길로 사직하고 연안의 각산(角山)에 우거하다가 1595년 2월 파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윤방(尹昉)·정사조(鄭士朝) 등이 부난의 취지로 상경하여 예결할 것을 권했지만, 죄가 큰 죄인으로 엄한 문책을 기다리는 처지임을 들어 대죄하고 있었다. 저서로 《우계집》 6권 6책과 《주문지결 朱門旨訣》 1권 1책, 《위학지방 爲學之方》 1책이 있다.

그가 죽은 뒤 1602년에 기축옥사와 관련되어 삭탈관직되었다가 1633년에 복관사제(復官賜祭 : 관작이 회복되고 제향의 허락이 내려짐.)되었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문간(文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681년(숙종 7)에 문묘에 배향되었고, 1689년에 한때 출향(黜享 : 배향에서 삭출됨.)되었다가 1694년에 다시 승무(陞廡)되었다.

제향서원으로는 여산(礪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 해주의 소현서원(紹賢書院), 함흥의 운전서원(雲田書院),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 등이 있다.

### 용재 성현 묘역(慵齋成倪墓域)

용재성현묘역(慵齋成倪墓域)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4.05.0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274-18(내포리 산60-1)이다.

용재 성현(慵齋 成倪, 1439~1504)은 조선초기의 문신이며 학자로,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부휴자(浮休子)·허백당(虛白堂)·국오(菊塢)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염조(念祖)이고 성임(成任)의 아우가 된다. 세조 8년(1462) 23세로 식년문과에, 1466년 27세로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로 등용된 뒤 홍문관정자를 역임하고 대교(待敎) 등을 거쳐 사록(司錄)에 올랐다. 예종즉위년(1468) 29세로 경연관(經筵官)이 되었고 예문관수찬·승문원교검을 겸임하였다.

그는 명나라를 자주 다녀왔는데 형 임(任)을 따라 명(明)나라에 가는 도중 기행시를 지어 《관광록(觀光錄)》을 엮었다. 1475년 다시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147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때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 등을 거쳐, 1488년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이 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때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한달만에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그가 음률에 정통하여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하였기 때문에 외직으로 나감으로써 불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해에 유자광(柳子光)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하였다.

한편, 성종의 명으로 고려가사 중《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북전(北殿)》 등의 표현이 노골적인 음사(淫辭)로 되었다고 하여 고쳐 썼다. 연산군 즉위 후 한성부 판윤을 거쳐, 공조판서가 된 뒤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504년에 《용재총화》를 저술하였다. 죽은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剖棺斬屍) 당했으나 뒤에 신원되었고, 청백리에 녹선 되었다.

저서로 《허백당집》, 《악학궤범》, 《용재총화》, 《부휴자담론》 등이 대표적이다. 시호는 문재(文載)이다. 성현 묘역은 정남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역에는 봉분 2기, 묘갈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 문인석 2기, 무인석 2기가 배치되어 있다. 봉분은 몇 차례에 걸쳐 개축한 것으로 보이나 문무인석은 원래 그대로이다.

### 보광사대웅보전(普光寺大雄寶殿)

보광사대웅보전(普光寺大雄寶殿)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9.09.03.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영장리 13)이다. 관리주체는 보광사이다.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8년(894)에 왕명으로 승려 도선이 건립한 후 고려 고종 2년(1215) 승려 원진이 중창하였고 우왕 14년(1388) 승려 무학이 삼창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이 불탔는데, 광해군 14년(1622)에 승려 설미와 덕인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였다. 그후 현종 8년(1667)에 승려 지간 석련이 중수하였고 영조 16년(1740)에도 중수가 이루어져 인근에 있는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능인 소령원의 기복사로 삼았다고 한다. 철종 14년(1863)에 쌍세전과 나한전 등이 건립되었고, 고종 21년(1884)에는 관음전과 별당이, 고종 30년에 는 산신각을 지었다. 그뒤 광무 5년(1901)에도 중수가 있었고 6 25전쟁으로 일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재건과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광사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양식(多包系樣式)의 팔작집이다. 장대석의 높은 기단위에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지름이 대략 1자5치가량 되는 굽은 기둥을 세운 조선후기의 건축물 양식을 띠고 있다.

양쪽 옆면과 뒷면은 모두 두꺼운 나무판으로 벽을 만들었는데, 보통의 벽이 회벽인데 비해 특이하며 양 옆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문화재청) 이 불화는 1898년경의 대표적인 판벽화(板壁畵)로서 오른쪽 벽에는 코끼리를 탄 동자상과 연화보살 그림이, 왼쪽 벽에는 신장상이, 그리고 뒷벽에는 용선(龍船), 수석도(水石圖), 연화생도(蓮花生圖) 등이 그려져 있다.

앞면 3칸은 모두 4짝의 문을 달았으며 이 문들은 모두 열어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짜여졌다.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앞·뒷면에는 각 칸에 3구씩, 양쪽 옆면에는 각 칸에 2구씩 배치되었다.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조각되

어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면의 기둥 위에는 용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로 바닥이 조성되었고 중앙의 불단 위에는 목조비로자나삼존불과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지붕 위의 용마루 양끝에는 용머리모양의 취두(鷲頭)가 있다. 원래 이런 취두는 조선 중기까지 주로 궁궐이나 관아의 중심 건물에 쓰이던 것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서울주변의 사찰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건립연대가 비록 19세기 말이지만 건물의 규모나 형태가 크고 웅장한데다가 세부적으로 처리된 수법은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이세화 선생묘(李世華 先生墓)

이세화선생묘(李世華先生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60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1.07.16.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문산읍 장승배기로 61번길 52-27(선유리 89-4번지)이다.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이자 청백리의 한 사람이던 쌍백당(雙栢堂) 이세화(1630~1701) 선생의 묘소이다.

효종 8년(1657) 문과에 급제하여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숙종 15년(1689)에 인현왕후를 폐(廢)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를 올려 반대를 하다가 정주로 유배되었다. 뒤에 인현왕후의 복위 문제를 맡으며 다시 조정으로 올라왔다. 이후 공조·형조·병조·예조·이조판서를 두루 거쳐 지중추부사를 역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충신의 상징인 정문(旌門)을 고향에 세우고 영의정의 관직을 내렸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묘는 부인 순창설씨묘와 합장하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묘의 앞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좌우에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이 한 쌍씩 놓여 있다. 묘소의 진입로 우측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숙종 34년(1708)에 건립한 것이다. 묘비에 쓰여진 글은 남구만(南九萬)이 지었고 오태주(吳泰周)가 글씨를 썼으며 최석정(崔錫鼎)이 머리글을 썼다.

#### ■ 이세화(李世華)

생몰연대 : 1630(인조 8)~1701(숙종 27).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 병조정랑 계록(繼祿)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통덕랑 이재(以載)이다. 큰아버지 장릉참봉 희재(熙載)의 양자로 들어갔다.

1652년(효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65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정언·장령 등을 거쳐 황해도·평안도·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689년(숙종 15)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서호(西湖)의 향리로 돌아갔다.

그 해 인현왕후(仁顯王后) 폐비설을 듣고 반대소를 올렸다. 소에 판서 오두인(吳斗寅)과 그의 이름이 전면으로 올라 있는지라, 숙종은 분노하여 밤중에 친국하였다.

그는 국문에서 “국사로 인해 죽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다만, 신의 죽음이 성덕에 누를 끼칠까 두려우며, 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옥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을 밤새도록 친국하니 옥체를 상할까 두렵다.”고 형간(刑諫)하였다.

다음 날 정주로 유배가다 풀려나와 파산(坡山)의 선영 아래로 돌아왔다. 갑술환국 후 1694년 4월 대사간·호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다가 인현왕후복위도감제조로 차정한다는 말을 듣고 곧 상경하였다. 그 뒤 의금부사 겸 지경연사·세자빈객에 오르고,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그 뒤 공조·형조·병조·예조·이조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풍계(豊溪)의 충렬사(忠烈祠)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저서로는『쌍백당집(雙栢堂集)』이 있다.

### 사재 김정국 묘역(思齊金正國墓域)

사재 김정국 묘역(思齊金正國墓域)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2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3.04.21.이고 소재지는 진동면 하포리 산123,124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의 묘이다. 김정국의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팔여거사(八餘居士), 시호는 문목(文穆), 본관은 의성으로 우찬성에 증직된 연(璉)의 아들이다.

중종 2년(1507) 생원시와 진사시에 오르고 1509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홍문관부수찬, 승문원 교검을 거쳐 홍문관수찬으로 지제교를 겸하였으며 사간원정언에 제수되었다. 1513년 홍문관교리, 사간원헌납 1515년 이조정랑, 1516년 의정부검사를 거쳐 의정부사인으로 승진하고 사간원사간, 군기시부정, 성균관사성 등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518년 직제학에 제수되었다가 그해 승정원동부승지로 승진하여 왕명을 출납하였다. 1519년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경민편(警民編)》을 편찬하는 등 지방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향약 장려운동에 호응하여 향약의 보급을 통한 향촌 교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520년 기묘사화 때 사림파를 옹호한다는 죄목으로 형 안국과 함께 관직이 삭탈되었으나 관직에서 떠난 지 20년 만인 1537년에 관직이 복구돼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전라도관찰사 재임 시 백성들의 병을 보다 쉽게 치유하려고 약방문을 수집하여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간행하였다. 1539년 병조참의와 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 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1540년 예조·병조·형조참판 등의 요직을 차례로 지내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묘역은 부인과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묘역 중앙에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 중앙에 장명등을 설치하였다. 묘역 양쪽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세워져 있다. 묘역 아래 입구에는갈(碣) 형태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 ■ 김정국(金正國)

생몰연대 : 1485(성종 16)~1541(중종 36).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은휴(恩休). 아버지는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 연(璉)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군수 지(芝)의 딸이며, 안국(安國)의 동생이다.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다.

10세와 12세에 부모를 다 여의고, 이모부인 조유형(趙有亨)에게서 양육되었다. 1509년(중종 4)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18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심.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1537년에 복직,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책을 건의,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540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성리학과 역사·의학 등에 밝았다. 문인으로는 정지운(鄭之雲) 등이 있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사재집』을 비롯하여,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역대수수승통지도(歷代授受承統之圖)』,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기묘당적(己卯黨籍)』, 『사재척언(思齋摭言)』, 『경민편(警民篇)』 등이 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 심지원묘 및 신도비(沈之源墓및神道碑)

심지원묘 및 신도비(沈之源墓및神道碑)는 경기도 기념물 제13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2.12.3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번지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만사(晩沙) 심지원(1593~1662)의 묘이다.

광해군 12년(1620) 정시문과에 급제한 후 남인과 북인의 당파싸움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가 숨어 지냈다고 한다. 1623년 인조 반정 때 관직에 복귀했으며 인조 8년(1630) 함경도 안찰어사로 파견되어 말무역을 단속하였다. 6진(六鎭)의 방어 대책을 인조에게 제시하여 신임을 얻었으나, 병자호란 당시 왕을 잘 모시지 못하고 강화도가 함락되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되어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인조 21년(1643)에 그의 억울함이 용서되어 홍주부사로 복직하였고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9년(1658)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묘역은 사적 제323호로 지정되어 있는 윤관 장군묘와 앞뒤로 인접해 있었는데 지난 2008년 윤관 묘 우측 능선으로 이장 되었다. 봉분은 단분으로 전 부인안동권씨와 후 부인 해평윤씨를 좌우에 안장한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으며, 상석 전방으로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역 좌측아래에 신

도비가 있는데 전체높이가 295cm, 비높이 208cm, 너비 100cm, 두께35.5cm이다. 비문은 김수항(金壽恒)이 글을 짓고신익상(申翼相)이 글과 전액(篆額)을 써서 숙종 12년(1686)에 건립하였다.

#### ■ 심지원(沈之源)

생몰연대 : 1593(선조 26)~1662(현종 3).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 감찰 금(錦)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숙천부사 종침(宗忱)이고, 아버지는 감찰 설(僉)이다. 어머니는 청원도정(靑原都正) 이간(李侃)의 딸이다.

1620년(광해군 12)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의 족조(族祖)인 종도(宗道)가 대북파(大北派)인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이었던 관계로 대북에 가까웠으나 대북 정책에 가담하지 않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듬해 검열(檢閱)에 등용된 뒤 저작(著作)·겸설서(兼說書)·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교리(敎理)·헌납(獻納)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1630년(인조 8)에는 함경도안찰어사(咸鏡道按察御史)로 파견되어 호인(胡人)에게 매마매인(賣馬賣人:말과 사람을 매매함)한 자를 적발하는 동시에 육진(六鎭) 방어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여 인조의 신임을 얻었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응교(應敎)·집의(執義)·교리·부수찬(副修撰)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노모 때문에 뒤늦게 왕이 있는 남한산성으로 달려갔으나 길이 막혀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익(趙翼)·윤계(尹啓) 등과 의병을 모집하려 했으나 윤계가 죽어 실패하였다.

이에 강화도로 들어가 적에 항거하려 했으나 강화마저 함락되자 죽을 기회도 잃게 되었다. 이것이 죄가 되어 대간의 탄핵을 받아 한때 벼슬길이 막혔다. 1643년 그의 억울함이 용서되어 홍주목사로 기용되었으며, 1648년에는 이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동부승지·대사간·대사성·대사헌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효종 초에 대사간으로 있다가 평안감사로 나갔으나 대사헌으로 돌아와 병조·이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1652년(효종 3)에는 형조판서에 올랐다. 특히 그의 아들 익현(益顯)이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어 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듬해 1653년에는 이조판서로서 국왕의 언행이 몹시 급함을 때때로 경계했으며, 11월에는 정조사(正朝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4년 우의정에 승서되고 이듬해에는 좌의정으로 옮겼다. 1657년에는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에 영의정에 올랐다.

1659년 다시 좌의정으로 있을 때 효종이 죽자, 원상(院相 : 왕이 병이 들거나 사후 어린 왕이 즉위할 때 왕을 보좌하는 원로대신이 맡는 임시 관직)으로서 국정을 맡고 총호사(摠護使)로서 효종 상례의 책임을 졌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자의대왕대비(慈懿大王大妃)의 복제 문제(服制問題)로 서인의 영수로서 송시열(宋時烈)의 뜻을 쫓으면서도 남인 조경(趙綱)을 적극 신구(伸救:억울함을

피도록 구원함)하기도 하였다.

그의 정치적 견해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김홍욱(金弘郁)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친구하지 못했다든가 강화설진(江華設鎭)을 반대했다든가, 혹은 양역(良役)의 폐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족(士族)에 대한 수포(收布)에 적극 반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저서로 《만사고 晩沙稿》가 있다. 글씨에 능하여 과천의 정창연비(鄭昌衍碑)가 남아 있다. 영천의 송곡서원(松谷書院)에 제향되었다.

### 윤곤 선생묘(尹坤 先生墓)

윤곤 선생묘(尹坤 先生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106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7.02.12. 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파주읍 용지안길 103-2(연풍리 산81-1번지)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소정공 윤곤(?~1422) 선생의 묘이다.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동생 윤항(尹瑒)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뒤의 태종)의 편에 서서 협력한 공으로, 태종 1년(1401) 좌명공신 3등에 임명되고, 파평군에 봉해졌다. 태종 6년(1406) 좌군도총제로 있을 때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파평현에 유배되었다가, 세종 즉위년(1418) 평안도 관찰사로 기용되었다.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기생의 풍류를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등 많은 공을 쌓아서 이듬해 이조판서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였다.

묘역은 봉분 앞에 묘갈과 상석을 놓았고 묘비로는 봉분 앞에 월두형(月頭形) 비, 오른 쪽에는 가첨석형 비를 배치하였는데 나중의 비는 1869년(고종 6)에 세웠다. 봉분에 두른 호석(護石)과 월두형 묘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상석과 향로석은 근래에 교체된 것이다. 상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장명등(長明燈)이 있고, 좌우로 문인석이 있다. 묘 오른쪽의 묘비는 고종 6년(1869)에 세운 것이다. 묘역 아래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비문은 윤상익이 짓고, 윤조영이 글을 썼다.

#### ■ 윤곤(尹坤)

생몰연도 : ? ~ 1422(세종 4).

본관은 파평(坡平). 아버지는 개성부사 승순(承順)이다. 젊어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아우 항(瑒)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1400년(정종 2) 방원(芳遠 : 뒤의 태종)이 그의 동복형인 방간(芳幹)이 일으킨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파평군(坡平君)에 봉작되었다.

1406년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로 있을 때 다른 사건에 연루, 파직되어 파평현에 유배되었다가,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평안도관찰사로 기용되었다. 그가 학덕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세종은 침전에서 환송연을 베풀어주는 등 크게 총애하였다. 이듬해 9월에 이조판서로 승진되었다.

그의 파격적인 출세는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에 기악(妓樂)을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 잡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뒤 우참찬까지 지냈다. 성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가 매우 좋아 복옹(福翁)이라는 별칭을 받았다. 시호는 소정(昭靖)이다.

### 반구정(伴鷗亭)

반구정(伴鷗亭)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3.09.19.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 53-85(사목리 190번지)이다.

반구정은 조선 세종 때 유명한 정승이었던 황희(1363~1452)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내시던 곳이다.

임진강 기슭에 세운 정자로 낙하진과 가깝게 있어 원래는 낙하정이라 불렀다.

반구정은 황희가 죽은 후 조상을 추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이 유적지로 보호하여 오다가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 버렸다. 그 뒤 이 일대의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복구해왔으며 1967년에 시멘트로 개축을 하고 1975년에 단청과 축대를 보수하였다. 그 후 1998년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반구정과 양지대등을 목조건물로 개축하였다.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초익공 형식의 공포 구성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반구정중수기(伴鷗亭重修記)]와 [반구정기(伴鷗亭記)] 그리고 한글로 옮겨진 [반구정 중건에 붙이는 글] 등 여러 개의 편액이 있다.

이곳은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강안 기암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에는 널찍한 모래톱이 있다. 맑은 날 정자에 오르면 멀리 개성의 송악산을 볼 수 있다. 미수 허목(眉叟 許穆)선생이 지은 《반구정기(伴鷗亭記)》를 보면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 임진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 위로 모여들어 들판 모래사장에 가득하다. 9월이면 갈매기가 손으로 온다. 서쪽으로 바다는 30리다.”라고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해 놓았다. 반구정이 위치한 곳 좌측의 높은 대지에 양지대가 있으며 반구정 아래에는 황희선생 영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 교하향교(交河鄉校)

교하향교(交河鄉校)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3.09.19.은 소재지는 파주시 쇄재로 91(금릉동 355번지)이다. 관리주체는 향교재단이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국립교육기관이다.

교하향교는 조선 태종 7년(1407) 탄현면 갈현리에 창건되었다가 영조7년(1731)에 그 위치가 장릉(長陵)의 이장지로 정해져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파주시청)

전체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가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있어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으로 꾸민 익공 양식이다.

명륜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 지붕으로 꾸몄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이고 동재·서재는 학생들의 기숙사이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들어가는 각 공간의 대문은 솟을 삼문의 형식을 하지 않고 평대문의 모습이다. 명륜당은 정면3칸, 측면 2칸의 규모를 가진 팔작집으로 정면의 좌측 1칸이 온돌방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2칸은 대청마루로 구성되었다. 성현을 모시는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전면에 퇴칸을 둔 맞배집으로 전퇴를 개방한 것은 제례시 출입의 동선을 원활히 하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기능적인 배려이다.

1968년에 담장을 보수하고 1971년 대성전과 부속건물을 중수하였으며 1973년에는 대성전의 담장과 기단을 보수하였다. 또 1981년에는 내삼문안의 대성전 묘정을 넓히기 위해 명륜당을 옮겨 세웠으며 1992년에는 교직사를 옮겨 세웠다. 최근 이 일대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교하향교는 아파트 숲속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 김덕함묘 및 신도비(金德誠墓및神道碑)

김덕함묘 및 신도비(金德誠墓및神道碑)는 경기도 기념물 제144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3.10.30.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적성면 감골길 48(무건리 산1번지)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성옹(醒翁) 김덕함(1562~1636) 선생의 묘소이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으나 스스로 학문에 힘써 선조 21년(1588)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인조 14년(1636)에는 대사헌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에는 초토사 이정임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으며, 광해군 9년(1617)에는 이항복·정홍익 등과 함께 인목대비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 남해로 유배되었다.

묘역은 낮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경주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우측에 구비와 신비가 세워져 있고,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상석 앞에는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배열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 하단에 비각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비신 94×28×188cm, 대좌 147×92×60cm, 대석이 221.5×161×20cm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김수항(金壽恒)이 전액(篆額)을 쓰고, 증손 김유(金濡)가 글을 써서 숙종 12년(1686)에 건립한 것이다. 이 묘역은 두 번의 이장을 거쳐 현종 원년(1660)에 현 위치에 조성되었다.

### ■ 김덕함(金德誠)

생몰연대 : 1562(명종 17)~1636(인조 14).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 형(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좌승지 장수(長琇)이고, 아버지는 증 이조참판 홍(洪)이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으나 스스로 문예에 힘써 1587년(선조 20)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다시 진사가 되었으며, 1589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이항복(李恒福)의 후원을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안(延安)에서 초토사 이정암(李廷燾)을 도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듬 해 행재소인 정주까지 왕을 호종, 그 공으로 공조좌랑이 되었다.

1594년 임시로 군공청(軍功廳)을 세워 전쟁의 공과를 실시할 때 비변사낭청을 제수받았다. 이 밖에 예조와 공조의 좌랑과 비변사낭청·호조정랑·직강·사예 등의 중앙관직과 선천·청풍·단천·성천·장단·안주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597년 일본의 재침으로 분조(分曹)가 세워지자 호조정랑으로서 분호조정랑(分戶曹正郎)을 겸임해 군량 조달에 힘썼다.

광해군 때 군기시정에 이르렀으나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모론이 일자 이항복·정홍익(鄭弘翼)의 의견을 좇아 반대하다가 남해(南海)에 유배되었으며, 명천·온성·사천 등지에 이배되었다.

1622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 집의와 예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와 승지·부제학·대사·성·대사간·여주목사·춘천부사를 거쳐 1636년 대사헌에 올랐다. 이 때 왕에게 사치를 경계하고 김공량(金公諒)의 신원을 반대해 인조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호소사(號召使)로 활약했으며 청나라에 대한 척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청백리로 뽑혔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성옹유고》가 전한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북청의 노덕서원(老德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이회선생 신도비(李懷先生神道碑)

이회선생신도비(李懷先生神道碑)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4.09.12.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조리읍 장곡로 218(장곡리 산20-1번지)이다.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전기의 문신인 이회(1488~1552) 선생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회 선생은 성종의 여덟 번째 아들로 아홉살 때인 연산군 2년(1496) 익양군으로 봉하여졌다. 그후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가 계속되자 문밖 출입을 하지 않다가 연산군 12년(1506)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원종공신이 되었다. 종부시제조, 종친부유사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충효덕행의 으뜸으로 명성이 높았다.

신도비는 그가 죽고 35년이 흐른 뒤인 선조 20년(1587)에 세워졌으며 묘역 남동쪽 아래에 비각을 지어 보호하고 있다. 비는 널찍하고 네모진 받침돌 위에비몸과 머릿돌

(螭首部)을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비몸체의 앞면 윗부분에비의 명칭을 새기고, 그 아래와 뒷면에 비문을 새겼다. 머릿돌은 두 마리의 용을 대칭적으로 조각하였는데 용비늘과 구름 등의 묘사가 매우 섬세하다. 비문은 앞뒷면에 새겼는데 김귀영(金貴榮)이 글을 짓고 당대의 명필인 석봉한호(石峯 韓濩)가 썼으며 전액(篆額-비명)은 김응남(金應南)이 썼다.

#### ■ 익양군(益陽君)

생몰연대 : 1488(성종 19)~1552(명종 7).

이름은 회(懷), 자는 순지(順之). 성종의 아홉째 아들로 어머니는 숙의 홍씨(淑儀洪氏)이다. 부인은 영일정씨(迎日鄭氏)로 첨지중추부사 문창(文昌)의 딸이다.

1496년(연산군 2) 익양군에 봉하여지고, 연산군이 살육을 자행하면서 형제를 더욱 미워하자 그는 두문불출하고 거짓으로 우매한채 행동하여 화를 면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의 원종공신이 되어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종부시(宗簿寺) 등의 제조(提調)와 종친부의 유사당상(有司堂上)을 겸임하였다. 시호는 순평(順平)이다.

#### 유항 한수 묘역(柳巷韓脩墓域)

유항한수묘역(柳巷韓脩墓域)은 경기도 기념물 제187호이다. 지정(등록)일은 2003.04.21.이고 소재지는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87 진동면 서곡리 산87이다.

고려시대 문신인 유항 한수(柳巷 韓脩, 1333~1384)의 묘이다. 한수의 자는 맹운(孟雲), 호는 유항(柳巷),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밀직부사를 역임한공의(公義)의 아들이다. 충목왕 3년(1347) 어린나이로 과거에 합격하였고 충정왕 때 정방의 필도지에 임명되었다. 공민왕 2년(1353) 전의주부로 기용되어 다시 필도지가 되고 이어 전리좌랑, 성균사예, 비서소감, 병부시랑, 국자감좌주 등을 두루 거쳤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피난할때 호종하였으며 귀경 후 사복시판사로 있다가 좌대언으로 승진하였다. 1365년 신돈(辛旽)이 정권을 장악하자 왕에게 “그가 바른 사람이 아니니 멀리할 것”이라고 아뢰었다가 예의판서로 폄직되고 얼마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다시 부름을 받아 이부상서, 수문전 학사로 발탁되고, 곧 전선(銓選)을 관장하는 요직인 승선에 임명되었다.

계속해서 우왕 대에 우문관대제학, 동지밀직, 상호군 등을 지냈다. 그러나 공민왕 시해에 관련된 한안(韓安)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잠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378년 배소에서 돌아와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지고 수충찬화공신이 되었다. 이어 청성군(淸城君)에게봉되고 1383년 광정대부 판후덕부사에 이르렀으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역은 종종 묘역으로 한수의 아버지인 한공의(韓公義, 1307~1365)묘역과 형제인 한리(韓理, 1337~1417) 묘역이 인근에 함께 조성되어있다. 묘역은 부인 안동 권씨와 쌍분으로 조성되어있으며 봉분 앞에 각각 묘비 1기씩을 조성하고 그아래로 장명등을 각각 1기씩 설치하였다. 장명등을사이로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으며 그 아래 양쪽

으로 문인석 4기와 망주석 2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상석 옆으로 근래에 새로 세운 묘비가 있을뿐 다른 석물들은 원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석물들의 형태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장명등 1기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 ■ 한수(韓脩)

생몰연대 : 1333(충숙왕 복위 2)~1384(우왕 10).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맹운(孟雲), 호는 유향(柳巷). 중찬(中贊)악(渥)의 손자이다.

일찍부터 문재(文才)가 뛰어나 1347년(충목왕 3) 15세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충정왕 때 정방(政房)의 필도치(必關赤 : 서기 일을 맡은 관원)에 임명되었으며, 왕이 왕위를 내놓고 강화로 쫓겨날 때 시종해 따라갔다. 1353년(공민왕 2) 전의주부(典儀注簿)로 기용되어 다시 필도치가 되었고 이어 전리좌랑·성군사에·비서소감·병부시랑·국자감좌주 등을 역임하였다.

1361년 흥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안동으로 피난할 때 호종했으며, 귀경 후 사복시판사를 거쳐 좌대언(左代言)으로 승진하였다. 1365년신돈(辛旽)이 집권하자, 왕에게 신돈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며 멀리할 것을 아뢰었다가 예의판서(禮儀判書)로 밀려난 다음 곧 관직에서 물러났다.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왕이 다시 불러 이부상서·수문전학사(修文殿學士)로 발탁했으며, 곧 승선(承宣)에 임명됨으로써 전선(銓選 : 인사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우왕대에 밀직제학·동지밀직 등을 지냈으나 공민왕 시해에 관여한 한안(韓安)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일시 유배되었으며, 1378년 배소에서 돌아와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지고 수충찬화공신(輸忠贊化功臣)이 되었다.

이어 청성군(淸城君)에 개봉(改封)되고 1383년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에 이르렀다. 시서(詩書)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다. 초서와 예서에 능해 당대의 명필로 이름이 났으며, 노국대장공주묘비(魯國大長公主墓碑)·회암사지공대사탑비(檜巖寺指空大師塔碑) 등과 현존하는 여주신록사보제선사사리석종비(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는 그의 필적이다.

이색(李穡)과는 일찍부터 교분이 깊었고, 또한『유향집(柳巷集)』이라는 시집을 남겼다고 한다.『동문선』에「영모정행(永慕亭行)」등 시 여러 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밖의 책에서도 그의 시문이 산견된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자유의 다리(自由의 다리)

자유의 다리(自由의 다리)는 경기도 기념물 제162호이다. 지정(등록)일 1996.12.24.이다.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2390(문산읍 마정리 1400-6)에 있고 관리주체는 파주시이다. 임진각 광장 앞 망배단 뒷편에 놓인 다리로, 문산 시가지 북쪽 2km 부근에 있는데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원래 경의선 철교는 상·하행 2개의

교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남아있던 것을 후에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서쪽 교각 위에 철교를 복구했고 그 남쪽 끝에 임시 교량을 가설했다. 예전에는 노상리 쪽자연마을의 이름을 따서 독개다리라고 불렀으나 1953년에 공산군의 포로였던 12,773명의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를 찾아 귀환하면서 명명되었다 하며 또는 전쟁 초에 북한군에게 빼앗겼다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도로 빼앗고, 이때 전사들이 '자유의 다리'라고 외쳐 현재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원래 경의선 철교는 상하행 2개의 다리가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다리의 기둥만 남아 있던 것을,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서쪽 다리 기둥 위에 철교를 복구하고 그 남쪽 끝에 이 임시 다리를 설치했다. 당시에는 포로들이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와서는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 의 다리는 6개의 경간(徑間)으로 이루어진 목조 평교(平橋)형식으로 길이는 83cm, 폭은 4.5~7m, 높이는 8m 내외이다. 순수한 목구조는 아니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철재를 사용하여 만든 혼합 구조이다. 통나무 가 4개씩 4열로 세워진 교각 위에 사각 받침목과 I자형 강(鋼)으로 만든 철제 보를 井자형으로 짰고, 그 위에 장선(長線)이 놓인 후 나무로 만든 상판을 올려서 마감하였다. 특히구조적으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평재와 가새가 많이 사용되었다.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함께 6·25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 다리는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회담 대표들이 지나다니길목이었다. 자유의 다리는 임시로가설된 교량이므로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 3. 파주의 전설과 민담 이야기

#### 신지강의 유래 1

우리나라 중심부를 동서로 흐르고 있는 임진강은 강원도 안변을 원류로 영풍을 거쳐 이천(伊川), 안협(安峽), 마전(麻田), 삭영(朔寧), 연천(連川)에 이르러 포천(抱川)과 합류하여 대탄(大灘)을 이룬다.

고구려 때 당시 표로하로 호칭되었으나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조 개국당시 공양왕이 송도에서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시고 몰래 빠져나와 고랑포에서 돛배를 타고 상류로 도망을 가다 구미연(龜尾淵)에 이르러 배가 파산하여 신주와 배는 강물에 가라앉았고 왕은 구사일생 강 언덕으로 기어 나왔다. 후에 왕은 원주 지방으로 도망을 가다 결국 간성에서 피살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곳에서 신주를 빠뜨렸다 하여 신지강(神智江) 또는 구미연(龜尾淵), 구연(仇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신지강의 유래 2

예로부터 신지강의 맑고 맑은 물은 양면에 푸른 돌이 암벽으로 수십리를 거쳐 둘러싸여 그림과 같이 아름다워 고려 태조가 자주 찾아 궁중악으로 선유하였던 곳이라 한다. 또한 공민왕(恭愍王) 20년(1371) 3월에 왕이 장단에 나가 대장군 이화(大將軍 李和)에게 명하여 공인을 시켜 연천군 주월리(舟月里) 산언덕에 정자를 건립케 하고 정자의 이름을 강선정(降仙亭)이라 하였다. 왕은 이곳에서 자주 배를 타고 상류를 오르내리며 기악(技樂)에 참여, 즐겼는데 이때 상장군 김흥경(上將軍 金興慶)은 “왕께서 손수 배를 저어 보시겠습니까” 하니 왕이 “나는 비록 즐기기는 하나 배를 저을 줄은 모른다” 하며 배를 타고 여락(女樂)을 즐긴 아름다운 절경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절경만큼이나 애절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공민왕이 천하일색으로 예절이 특이한 신돈(辛旽)의 비첩(婢妾)인 반야(般若)를 가까이 하며 모니노(牟尼奴)를 낳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신돈의 아들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가 곧 우왕(隅王)인데, 고려왕조에서는 우(隅)를 빼앗아 왕후한비(王后韓妃)의 소생으로 하고자 하니 반야는 밤에 몰래 태후궁(太后宮)으로 들어가 울부짖으며 “내가 낳은 자식을 어찌 한씨를 어머니로 하 시겠느냐”며 항의를 하니 태후(太后)가 반야를 하옥시켜 대간(臺諫)과 순위부(巡衛府)에서 감시케 하였다. 반야는 새로 지은 중문을 가리키며 “하늘이 만약 나의 원통한 것을 안다면 이 문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였더니 잠시 후 과연 문이 무너지니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 한다. 결국 반야는 이인임(李仁任) 등에 의해 신지강으로 끌려가 강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 선조의 피난길과 임진강의 일화

울곡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임진강 나루에 있는 화석정에 틈이 날 때 마다 들기름에 젖은 걸레로 정자 마루랑 기둥을 닦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종 때 어려움이 닥치면 열어보라고 하며 봉투를 남겼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 4월 그믐밤 선조가 의주로 파천할 때 폭풍우가 너무 심해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다. 이 때 호종하던 이항복이 울곡이 남긴 봉서를 열어보니 “화석정에 불을 지르라.”고 써어 있었다. 화석정에 불이 붙자 관솔이 타듯 불길이 올라 나루 근처가 대낮 같이 밝아 선조 일행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1593년 환도하면서 이 강에 당도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순국한 병사들의 넋을 달래고자 나루터 강변 모래사장에 제물을 차려 놓고 위령제를 지내게 된다. 의주파천 당시 4월 그믐밤 폭풍우 속 노심초사 고생 끝에 이 나루를 건너게 된 쓰라린 아픔과 이강을 지키고자 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용감한 충신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선조가 통곡하며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 나루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였다” 하여 신지강(神智江)이 임진강(臨津江)으로 개칭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임진나루 뱃사공의 전설

임진나루는 옛날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여기에서 뱃사공을 하는 사람 중 김씨라는 뱃사공이 옷차림과 거동만 보고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맞히기로 유명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뱃사공을 하던 짓궂은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양반의관을 갖추어 임진나루에 도착하여 뱃사공에게 “여보게 나를 좀 배로 건너주게” 하고 반말을 하였다. 그러자 뱃사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구보고 반말이냐”며 화를 냈다. 변장한 양반이 “어느 안전에서 행패냐” 하니 “너는 아무리 양반인 체해도 나와 같은 뱃놈이다” 하였다. “그래 네가 어찌 그리 잘 아느냐”하고 반문을 하자 임진강 뱃사공 하는 말이 “넌 수영이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이며 강바람에 수영이 돌아간 것을 보아 나와 같은 뱃사공이 아니냐” 하니 참으로 귀신같이 맞힌다면서 서로 껄껄대며 웃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아미성 이야기

감악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줄기가 말단부에서 형성된 해발 260m의 봉우리 정상부에 쌓은 포곡형의 석축산성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감악산의 줄기와 동쪽으로 마차산 줄기의 사이에 좁고 평탄한 협곡을 이루고 있어 감악산 서로보다 평탄한 교통로를 이루고 있으며 아미성은 이 교통로를 통제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다. 특히 정상부에서는 남쪽방면으로의 시계가 매우 양호해서 계곡을 따라 공격해오는 적을 제어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점이다. 아미성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할미성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성의 초축에 대한 문헌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의 제외된 이후의 대부분의 지리에서는 나타나 있다.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와 연천군 전곡읍 놀목리의 경계지점인 해발 260m의 봉우리 정상부에 쌓은 포곡형의 석축산성이다. 아미성은 368번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수철성과 마주하고 있어 이곳이 삼국시대의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성은 북동 - 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으로서 동쪽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반면 서쪽과 북쪽부분은 대체로 무너진 상태이다. 전체 둘레는 290m 정도이다. 성내부에는 넓고 평탄한 지형이 있고, 이곳에 구축된 참호 속에는 많은 양의 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당초문을 양각하거나 음각한 수키와 격자문을 타날한 회색이나 적갈색의 연질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성의 정상부분과 동쪽부분에서는 고구려토기편과 승문이 타날된 고구려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 도라산에 얽힌 전설 (영수암의 유래)

장단읍내 뒤 백학산 서맥내령 맑고 맑은 사천이 흐르는 냇가 벌판 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 156m 도라산 고지는 주위 수목이 우거져 경관이 아름다워 주민들이 여름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명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라가 경순왕 10년(879)에 폐망하자 경순왕의 11왕자는 사분오열로 뿔뿔이 흩어지니 할 수 없이 경순왕은 신라 도읍 경주에서 머나먼 천리길 송도를 찾아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는 경순왕에게 딸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유화관을 하사하였으며

정승을 봉하는 한편 경주를 식음으로 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낙랑 공주는 비운을 맞게 된 경순왕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져 도라산 중턱에 암자를 짓고 머물게 하였는데 영원히 이곳을 지키겠다는 뜻에서 영수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경순왕이 조석으로 이 산마루에 올라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하여 도라산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고려경종 3년(935)에 경순왕이 돌아가시니 고랑포 뒷산 아늑한 골짜기 남향 자좌오향에 안장되자 이와 함께 낙랑공주는 영수암이 훼손되기에 아담하게 새로 절을 건립하였다. 경순왕의 화상을 모시고 명복을 기원하는 한편 영원히 번창하라는 뜻에서 창화사라 호칭하였다고 하며 조선조 말까지 임갑진 스님이 수호·관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선조 개창 이후 도라산 마루에 봉수대를 설치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국난시에는 봉화 신호로 송도와 파주 봉수대를 거쳐 한양으로 소식을 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 이곳은 남북이 갈라진 38선을 지키기 위하여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 국군들이 수호하고 있으며, 제3땅굴과 아울러 실향민과 여러 지역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창화사는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며 경순왕릉은 영조대왕이 복원한 후 민통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군인들이 수호·관리하고 있다.

## 판문교에 얽힌 전설

고려말엽, 지금의 판문점 부근 한 마을에 예쁜 딸 하나를 둔 촌장이 살고 있었다. 촌장의 딸 옥화는 어찌나 고왔던지 인근 총각들이 보기만 하면 첫눈에 반하여 짝사랑에 가슴을 태울 지경이었다. 그 중 인근 동네의 성질이 우악스럽고 기운이 황소같은 장사로 이름난 억쇠란 총각이 물을 길는 옥화를 보고 짝사랑에 빠져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억쇠의 몸골은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버리자 억쇠의 어머니가 애만 태우게 되었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고치기 위해 잘 달래어 자초지종을 듣던 어머니는 그만 어이가 없었으나 잘 생각해보니 못할 말도 아니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어머니는 단단히 나무라고 일렸으나 남녀 간의 정분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억쇠는 큰 병에 걸려 목숨이 오늘 내일하게 되자 어머니가 촌장을 찾아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촌장은 행여 소문이 날까 두렵다며 일언지하 거절해버렸다. 결국 억쇠는 짝사랑에 병이 들어 죽고 말았는데 죽은 지 며칠되지 않아서 마을에 괴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판문점과 덕현동을 양쪽에 두고 흘러내려오는 사천강이 자꾸 범람하여 그 위에 놓인 판문교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자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촌장의 속은 점점 타들어갔다. 하루는 견디다 못해 강둑을 살펴보러 홀로 나갔더니 웬 여인이 소복을 입고 앉아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사랑 사랑 짝사랑에 병들어 죽은 총각 사천강의 흑룡이 되어 원한을 품었으니 어이할꼬 그 아씨를 어이할꼬....” 촌장은 그 여인의 노랫가락을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그것은 필시 자기 딸에게 반했던 억쇠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촌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인 곁으로 다가가 나직이 불렀다. 그랬더니 여인은 소름이 끼치도록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남기고는 바람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촌장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오고 나서 혼자 끙끙거리다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때 옥화의 꿈에 머리가 셋 달린 흑룡이 나타나 자기가 당신을 짝사랑하다 죽은 억쇠이며 모든 조화는 자기가 한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하면 괴이한 일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의 병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서 옥화는 일어나자마자 간밤의 일을 아버지께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은 그날로 낫게 되었고, 마을의 다리도 새로 놓게 되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니 날씨가 맑게 개이자 사람들은 더없이 기뻐하였다. 옥화는 흑룡이 일러준 대로 새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놓은 다리 위를 제일 먼저 건너갔다. 다리 중간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갑자기 머리 셋 달린 흑룡이 튀어나와 옥화를 덮석 나뭇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이후로 사천강은 홍수가 나기는커녕 갈수록 강폭이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잔잔한 냇물로 변하였다. 그리고 놓인 다리도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통나무다리가 콘크리트로 변해 남북을 이어주다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부서져 물속에 잠겼다. 옛날의 덕현동 뒷산에 올라보면 판문점 회담장소 원편의 냇물위에 부서진 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전설을 간직한 판문교이다.

### 용맹을 떨친 유극량 장군의 일화

1592년 선조대왕 일행은 엄청난 폭우 속에 칠곡 같은 어둠을 뚫고 임진나루를 건넌다. 임금은 이렇게 수도를 버리고 야반도주했지만 뜻 깊은 한 장수는 잘못된 작전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 강을 거꾸로 건넜다.

유극량이란 장수 이야기다. 책상물림인 한응인이 평양 조정의 명을 받고 내려와 임진나루를 건너 왜군을 치러 할 때였다. 조방장(助防將·사령관을 돕는 장수)이었던 유극량은 “경솔한 도강입니다” 라며 반대했다가 목이 베일 처지에 놓인다. “비겁하다”는 게 이유였다. 기가 막힌 유극량은 “오로지 국가 대사를 그르칠까 두려워 할 뿐이오.” 라 말했다. 겨우 죽음을 면한 유극량이었지만 막상 작전이 시작되자 선봉에 섰다. 그러나 강을 건너 아군은 적의 매복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무너진다. 노장 유극량은 말에서 내려 길게 탄식한다.

“아! 내가 죽을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며,

유극량은 활을 꺼내 적병 몇 명을 쏘아 죽이고 백병전을 벌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유극량의 신의와 충성은 젊었을 때부터 유명했는데 그가 무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구슬피 울었다.

“이 어미는 원래 사비(私婢)였는데, 주인집에서 도망쳤다. 후에 네 아버를 만나 너(유극량)를 낳은 것이다. 노비의 소생이라는 것이 들키면 삭과(削科·과거 급제 취소 조치)된다는데 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냐.”



놀란 유극량은 그 길로 어머니가 노비로 있었던 원래의 주인집을 찾았다.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삭과된 뒤에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감복한 주인은 도리어 유극량을 종에서 풀어주는 문권(文券)을 주었다. 그는 노비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원 주인집을 섬겼다. 늘 예물을 바쳤으며  
 주인집에 인사할 때는 동네 입구에서 말을 내려 예물을 손에 받들고 걸어 들어왔다고  
 한다. 위기에 빠지자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임금과 고관대작들…. 그들은 후에 살아남  
 아 승승장구했지만, 유극량 같은 장수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헛된 죽음을 당하고 말  
 았다.

## 용미리 진대의 기원

광탄면 용미4리 진지동으로 옛 국도1호선인 의주로가 지나며 벽제관에서 혜음령고개  
 를 넘어 고개 우측으로 형성된 농촌마을이다. 뒤편의 산을 구룡골(용의 꼬리부분이 아  
 홉 개로 갈라졌다)이라 부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광탄면 지역의 호미리.구룡리 전부와 분수원 일부를 병합하  
 여 구룡리의 龍자와 구미의 尾자를 붙인 이름이다. 속칭 진지동이라 불리는데 임진왜  
 란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나라 병정들  
 이 적장의 목을 베어 진대에 매달아 두기도 하였으며 이여송이 진을 쳤던 시절에 피  
 난을 갔다오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서울쪽의 업을 이 마을에 물어오라고 황새주  
 동이를 서울로 향하게 놓았다. 용미리 진대의 역사는 400여년전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성씨분포는 파평윤씨가 25가구, 밀양박씨 4가구로 모두 150여호에 75가구가  
 살고 있다.

마을에서는 용미리 진대굿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용미리 진대굿은 가을굿으로  
 추수감사.제액초복.마을단합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용미리 진대는 부자가 되고  
 자 하는 소망이 앞서 있다고 하겠다. 예전엔 택일하여 음력 10월에 산치성과 무속형  
 의 진대굿을 하였으며 초상이 나면 날을 물렸었다. 1962년도부터 음력 10월 3일로  
 고정하고 고사형식으로 간단하게 지냈더니 마을에 우환이 생겨 1988년 이래 다시 대  
 동굿을 한다고 한다.

제장(祭場)으로는 육산도당.소산도당.진대가 있다. 육산도당(肉堂, 도당서낭)은 마을 왼  
 쪽 산기슭에 있으며 당집 없이 터 주변에 소나무가 10여그루 둘러 있다. 대동굿을 할  
 때 이들 소나무 중 한 나무에 한지를 접에 묶어 신체(神體)로 삼는다. 육당은 도당할  
 아버지를 모신 곳으로 제물로 고기를 올린다하여 붙인 이름이다.

소산도당(소당서낭)은 육당 옆쪽 산 밑에 있으며 육당과 마찬가지로 신목(神木)을 이  
 름지어 도당할머니의 신체(神體)로 삼는다. 제물로는 고기를 일체 쓰지 않는다. 진대  
 는 마을 입구(진대할아버지)와 뒤편(진대할머니)의 교회 앞에 세워져 있다. 진대는 소  
 나무로 만든다.

4m 높이의 진대 끝에 올린 새 모양을 ‘황새대가리’라 했다. 예전엔 진대를 3년마다  
 새로 세웠으나 근래엔 썩으면 태워버리고 다시 만들어 세운다.

## 파평윤씨 시조 발상지, 파평용연의 전설

파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 가장 대표적인 성씨를 들자면 파평윤씨(坡平尹氏)를 들 수 있다. 성씨의 본관이라함은 그 성씨의 시조가 태어난 곳을 본관으로 삼기 마련인데 바로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이 탄생한 곳이 파주의 파평지역이기 때문이다. 파평면사무소를 지나 적성방향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늘노리에 그 증거인 파평용연이 지금까지 수호 보존되고 있으니 이 곳이 파평윤씨에게는 성지(聖地)나 다름없는 셈이다.

파평용연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때는 신라말 893년(진성여왕 7) 8월 15일 한가위날 이었다. 이 용연 일대에 난데없이 하늘에 구름이 뒤덮이고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더니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 하였다.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슨 큰 일이라도 내리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되어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때마침 윤운 이라는 할머니가 문득 못 가운데를 보니 안개는 지척을 분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위를 뒤덮고 있었는데 별안간 못에서 빛이 솟으면서 금궤 하나가 물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윤 노파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마음을 다잡아 먹고 그 상자를 건져 열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상자를 열어본 윤 노파는 잠시 아무말도 못하고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찬란한 금궤속에는 오색의 아름다운 깃털에 싸인 옥동자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옥동자를 살펴보니 좌우 어깨위에는 일월을 상징하는 붉은 점이 있고 양쪽 겨드랑이에는 81개의 비늘이 나 있었으며 또한 발에는 북두칠성처럼 일곱 개의 흑점이 있어 황홀한 광채를 내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손바닥에는 윤(尹)자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윤 노파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잘 거두어 길렀으며 이 아기는 잘 생긴 얼굴에 자랄수록 영특하고 인물이 수려했다. 그 아이는 장성하여 큰 벼슬을 지냈는데 그가 바로 파평윤씨의 시조가 되었다.

파평윤씨 대종회에서 펴낸 시조 윤신달의 현손인 「윤관 장군 일대기(尹瓘將軍一代記)」에 의하면 윤관이 함흥 선덕진광포(宣德津廣浦)에서 거란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강가에 이르렀을 때 잉어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강을 건너 탈출했는데 적병이 뒤쫓아 왔을 때에는 잉어떼가 이미 흩어져 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윤씨들은 이 고사에 따라 시조에 대한 활명지은(活命之恩)이 있다하여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파평윤씨 시조인 윤신달이 용연에서 떠올랐을 때 겨드랑이에 잉어의 비늘이 있었다는 데에서 잉어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 또한 이 파평용연의 전설에 기인한 것이다.

## 의마총에 얽힌 전설

1578년(선조 11) 호조판서에 이르러 청백리에 녹선된 후 광국공신 2등 연안군에 추봉된 이후백(李後白)의 손자 충의공 이유길(忠毅公 李有吉)은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전사하자 이에 격분을 참지못해 18세 어린나이로 복수를 하기 위하여 상종의 몸으로 의

거하여 이순신 장군을 따라 명량해전에서 전공을 세웠다. 또한 1619년(광해군 11) 명나라에서 금나라의 침입을 막기위해 원군 요청이 있을 때 영유현령이 된 후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우영장으로 선봉장이 되어 중국 심하지방에 출전하여 명나라 장수 유정과 같이 적진에 들어가 분전하다가 전사하니 그를 수행했던 가동(家僮)들도 모두 물에 빠져 자살하였으며 장군은 죽기전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잘라 옷소매를 찢어 '3월4일 사(死)'라는 다섯자를 써서 애마(愛馬)에 매고 채찍질을 하니 애마는 압록강을 건너 고향인 현 광탄면 발랑리에 돌아와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 한다. 이에 장군의 초혼장을 지내고 동시에 애마의 가룩한 뜻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말을 고이 묻어주니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 나라에서 장군을 이조참판에 추증하고 충신정려문을 하사하였으며 말의 무덤을 의마총(義馬塚)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한다. 광탄면 발랑리 백경저수지 아래에는 지금도 연안이씨 종중에서 이 의마총을 수호하고 있다.

### 포수바위의 전설

법원을 웅담리 삼거리에서 적성방향 도로를 따라 약 500여미터를 가다보면 좌측으로 석산 개발이 한창인데 석산 입구 정면으로 우뚝 솟은 바위 절벽이 버티고 서 있다. 마치 두 개의 바위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인데 이 바위가 바로 전설을 담고 있는 포수바위다.

구한말엽 한 포수가 총을 둘러메고 사냥을 하다가 이 곳 산에 올라 두루 살피니 건너 산 봉우리 아래에 있는 산돼지를 발견하였다. 포수는 얼른 총을 겨냥하도 방아쇠를 당기려 하니 갑자기 산돼지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분명 산돼지가 맞는지라 포수는 방아쇠를 당겨 명중을 시켰다. 그리고는 달려가보니 어미산돼지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면서도 새끼들의 젖을 물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다. 이것을 본 포수는 산돼지를 불쌍히 여기고 슬피 탄식하면서 포수 사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이 산봉우리에 올라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바로 이 바위가 포수바위(砲手岩)의 전설이 내려오는 바위이다.

### 덕진당과 이서부인의 정절

때는 1623년(광해군 15) 삼월 열사흘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섬에서 죽게 하고 생모 인목대비를 가두고 폐모시킴으로서 스스로 반정을 초래하게 된다. 이서(李曙)를 비롯한 김유, 이활, 이귀, 김자겸 등은 김유를 대장으로 삼고 능양군(綾陽君)을 옹립하는 반정을 일으키게 된다. 반정을 위해 떠나기전 이서 장군의 부인은 감출 수 없는 불안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부인을 향해 이서 장군은 “부인 염려하지 마시오. 나라를 위해 싸움터에서 죽는 것이 무인의 본분이오. 비록 외적과 싸우는 것은 아닐지언정 반정을 도모하는 것이 나라와 사직을 위함이니 어찌 두려워 하겠소. 광해군의 폭정이 더 지나치게 되면 사직과 백성은 헤어날 길 없는 도탄에 빠질 것이오. 내 반드시 반정을 성사하리다. 부인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일이 성공하면 돌아오

는 나룻배에 붉은 기를 달겠소.”하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부인 만약에 일이 실패한 경우 나룻배에 흰 기를 달겠으니 그때 부인은 지체하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피하시오.” 하였다. 이서 장군은 아내와 작별한 길로 휘하의 칠백 군병을 이끌고 임진강 덕진나루를 건너 질풍처럼 병사들을 휘몰아 고양에서 김유가 거느린 육백의 군상하 합류 도성의 자하문을 향해 진격했다. 그런 와중에 아내는 목욕재계 하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후 집 뒤뜰에 단을 설치한 후 정한수를 떠 놓고 빌기 시작했다. 한차례 기도가 끝나면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남편이 돌아 올 뺨길을 지켜보 길 열흘이 지났다. 수척해진 아내의 얼굴에는 어느덧 절망이 짙게 드리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있는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 올랐다. 꿈을 꾸면 남편의 살려달라는 애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기를 여러차례 결국 부인은 앓아 눕게 되었다. 쓸쓸하던 이른 봄의 바람이 훈훈한 봄바람으로 변하여 트락에 꽃봉오리가 맺혀도 남편의 소식은 없었다. 어언 남편이 떠난지 한달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은 계종종의 부축으로 간신히 거동하여 나루 언덕으로 올라 갔다. “나오리께서 돌아오시는 뺨길에 깃발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깃발이 보이느냐? 붉은 깃발이냐?” “마님 아직은 멀어서 잘 알 수 없으나 붉은 깃발인가 합니다.” “ 붉은 깃발! 아 천지신명이 무심치 않았구나. 일이 성사되어 돌아오시는 게다.” 아내의 얼굴에 활짝 생기가 돌았다. 아내는 한걸음에 언덕 끝까지 뛰어가 나룻배를 지켜 보았다. 나룻배는 강심을 벗어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집종은 나룻배의 깃발이 붉은 기가 아닌 것을 보았다. 깃발은 흰색이었다. 계집종은 망설였다. “ 마님 기가 보이십니까? ” “ 아니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분명히 붉은 기라 했지? ” “ 마님 그러하오나 .....” 계집종은 말을 잊지 못했다. “ 왜 말을 잊지 못하느냐? ” “마님 실은 이제보니 깃발은 흰색입니다.” “ 흰 기? ”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 흰 기?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하늘이 버리시다니....” 아내는 뜻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실신 할 것 같은 걸음으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 갔다. 그리고는 미쳐 계집종이 붙잡을 틈도 없이 낭떠러지 밑으로 몸을 날렸다. 푸른 물결의 파도만이 아무일 없던 것처럼 장단 적벽을 치고 있었다. 이서 장군은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투신한 이야기를 듣고 계집종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어찌 된 일이나?”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깃발이 희다고 여쭙었더니 그만 마님께서 강물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깃발이 희다니 네눈에는 붉은 기가 어찌해서 희게 보였단 말이냐?” 계집종은 말을 잃었다. 그때 “대감마님! 실은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사공이 땅에 엎드려 이서 장군을 쳐다보았다. “ 소인이 하두 더워서 저고리를 벗어 걸었습니다. 기가 저고리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소인을 죽여 주십시오 ” 장군은 묵묵히 사공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돌아섰다. 그 후 이서 장군은 아내가 몸을 던진 언덕에 덕진당(德津堂)이라는 제각을 짓고 원혼을 위로하였다 한다. 지금도 임진강의 어부들은 풍어나 수해방지 등을 덕진당에서 빈다고 하는데 현재 군내면 정자리 초평도 건너편에 위치한 덕진산성 내 절벽 부근에는 덕진당 터가 남아 있다.

## 검산리와 조음발동

신성용(申成用)은 고려때 문과에 급제 검교를 역임하였으며 누대가 고려에서 세거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고려으로 하였다. 7세손인 엄헌공 신장(嚴軒公 申樞)은 1382년(고려 우왕 8)에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능숙하여 1394년(태조 3) 부시에 장원, 1402년(태종 2)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에 있다가 퇴임 후 전라도 나주로 낙향하여 서당에서 유생들을 지도하였다 한다. 그러던 중 1420년(세종 2) 직제학에 제수되자 처와 오형제(맹주. 중주. 숙주. 송주. 말주)를 두고 한양으로 상경 이어 공조참판으로 승진 하였고 「남산지곡(南山之曲)」을 짓는 등 문학과 유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글씨도 잘 써서 대제학에 발탁되어 오래 머물렀으나 1433년 5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나주에서 천리 길이라 처와 아들 맹주(21세). 중주(18세)만이 상경하여 장례를 현재 검산동에 모시게 되어 시묘를 마치고 난 얼마 후 그 처마저 돌아가시니 역시 맹주와 중주 형제가 올라와 쌍분으로 장례를 모시게 되었다. 시묘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궁중이 어수선한 때라 두 형제는 묘비를 파묻고 분묘와 묘역을 파헤쳐 흔적을 없애고 암표만을 남기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갔다 한다. 그러나 맹주와 중주 형제가 모두 일찍 죽어 묘소를 찾을 길 없이 실전되어 오던 중 그 셋째 아들인 신숙주가 1439년 등과하여 단종 당시 도승지를 역임하다 세조가 등극하자 병조판서에 오르고 1457년(세조 3) 좌찬성, 이어 1458년 우의정으로 승진하는 등 가세가 번창하자 동생인 송주. 말주 형제를 시켜 말로만 들었던 지역과 선친 묘소를 대강 일러주며 기필코 찾도록 하였다 한다. 이에 두 형제는 즉시 활을 메고 월룡산을 이잡듯이 찾다가 어느 날 검산리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다. 이때 중이 집집마다 팽매기(중의 시주 밥그릇)를 치며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웁지! 이 도승에게 물어 보리라.” 하고 달려가 “혹시 신장 묘소를 아십니까?”라고 물으니 팽매기를 두드리고 합장하며 말하기를 “이 산 윗골짜기에 모셨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며 사라졌다 한다. 허둥지둥 골짜기를 향해 올라가다 마침 꿩 한 마리가 날아가매 활을 당겨 쏘니 묘소있는 곳에 떨어지는 지라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근방 산 혈맥을 살펴보니 묘소가 있을 법 하였다. 이에 여기저기 흙을 파는 도중 큰 돌이 나와 헤쳐보니 비석이었는데 이를 씻어 자세히 본 즉 선친 신장의 묘비가 틀림 없었다. 수십일 동안 고생 끝에 선친의 묘소를 찾게되어 기쁜 마음으로 상경하여 형인 숙주에게 사연을 고한 후 즉시 분묘를 하고 비석을 세워 시향을 받들었다 한다. 그 후 신장 묘소를 찾아 이산(山) 전체를 검색(檢索) 하였다 하여 검산(檢山)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도승의 팽매기(鉢) 소리(音)의 도움(助)을 받았다고하여 조음발동(助音鉢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고려신씨 종중에서는 신장 묘역에 대한 수호 보존을 해 오고 있으며 이 마을 사람들은 현재도 ‘조음발이’ 혹은 ‘좀바리’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 4. 근현대 파주의 이야기

### 국내 최대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파주출판도시

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일대 48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문화산업단지이다. 이 도시는 1989년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를 확보하여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주체적 문화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불합리한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뜻있는 출판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7년동안 추진한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도시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입주 주체들이 스스로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설계지침, 조경지침, 간판및옥외홍보물지침 등을 수립하여 지켜나감으로써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가장 큰 목표는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도시는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움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건축미 넘치는 곳이다. 때문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웨일즈의 헤이온와이와 벨기에 레뒤, 네덜란드의 브레드보트 등 유명 책마을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출판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예술마을 헤이리

헤이리 예술마을은 예술인들이 꿈꾸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지향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미술인,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326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 예술공간을 만들었다.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농요 '헤이리소리'에서 따왔으며 각종 문화예술의 창작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 축제공간, 교육공간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헤이리 마을은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를 지향하고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건축전시장으로 건물 자체가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예술작품이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다. 각종 전시와 행사, 공연등이 수시로 열린다.

###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영어권 국가 마을의 모습을 본떠 건축하여 이국적 환경속에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영

어를 습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4월 국내 최대 규모로 개원을 하였으며, 교육생과 교사 700명 이상이 상주하며 교육, 체험, 놀이가 결합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다.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각종 체험시설, 놀이 및 특화시설등 모든 시설이 주거 공간이자 체험공간이다.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관광지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민족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는 곳이다.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다.(이곳의 임진철교는 2개의 다리가 나란히 있었으나 전쟁 시 하나는 파괴되어 철교의 교각만 남아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이곳에는 망배단이 있는데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들이 매년 설날과 추석 때나 가족이 보고싶을 때에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에서 이복에 계신 부모, 조부모에게 배례하는 장소이다. 소식이 끊겨 생사도 불명확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수백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 ■ 철마는 달리고 싶다

관문점 일원에 중단된 경의선 철도를 상징하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 열차를 1930년대 실제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 ■ 자유의 다리

자유의 다리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광장 앞 망배단 뒤편에 놓인 다리로 1953년에 한국전쟁 포로 1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명명된 다리이다. 원래 경의선 철교는 상하행 두 개의 교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남아 있었는데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서쪽 교각위에 철교를 복구했고 그 남쪽 끝에 임시교량을 가설했다. 당시에는 포로들이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와서 걸어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의 다리는 6경간(經間)으로 이루어진 목조 평교(平橋)형식으로 길이는 83m, 폭은 4.5~7m, 높이는 8m 내외이다. 순수한 목구조는 아니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철재를 병용하여 만든 혼합 구조이다. 통나무가 4개씩 4열로 세워진 교각 위에 사각 받침목과 I형 강(鋼)으로 만든 철제 보가 井자형으로 짜 올려지고 그 위에 장선(長線)이 놓인 후 나무로 만든 상판이 올려져 마감되었다. 구조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평재와 가새가 많이 사용되었다. 자유의 다리는 임시로 가설한 교량이므로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 군병커를 활용한 전시체험관

실제 군병커를 사용하여 전시체험관을 조성하였다. 지하에서 여러가지 예술적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다.

#### ■ 평화의 종

임진각 높은 곳에 북녘땅을 굽어보며 새 천년의 우렁찬 소리를 토해 낼 『평화의 종』은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900만 경기도민의 의지를 모아 건립되었다. 21세기를 상징하는 무게 21톤, 높이 3.4m, 지름 2.2m 규모로서 2000년 1월1일 0시에 21번 타종되었다. 종각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모지붕의 목조구조로서 면적은 21평, 높이는 12.2m이다.

#### ■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

이 기관차는 한국전쟁 중 피폭·탈선된 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이다. 2004년 아픈 역사의 증거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등록된 후 포스코의 지원으로 녹슨 때를 벗겨 내고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현 위치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당시 이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한준기, 1927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도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황해도 평산군 한포역에서 후진하여 장단역에 도착했을 때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기관차에 있는 1,020여개의 총탄 자국과 휘어진 바퀴는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 임진각 평화누리

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 할 수 있는 대형 잔디언덕과 수상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대륙과 장르를 넘어선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생명촛불 파빌리온에서는 지구상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카페안녕에서는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 ■ 생명촛불 파빌리온

지구상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부 프로그램으로서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 ■ 통일기원 돌무지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기부자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메시지가 새겨진 돌판이 돌무지에 쌓이게 된다.



### ■ 글로벌카페 '안녕'

세계 여러 민족으로 다양한 문화적 요소로 꾸며진 글로벌공간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 음악의 언덕

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잔디언덕과 수상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대륙과 장르를 넘어선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 벽초지문화수목원

벽초지 문화수목원은 각종 희귀, 멸종위기식물, 자생식물 및 외래종을 지형에 맞게 식재하여 호숫가에 화훼정원을 갖춘 잔디공간과 수목들로 둘러싸인 잔디광장을 보유하고 있다.

실내온실에는 멋진 허브정원과 함께 명상원이 꾸며져 있다. 시간별로 수목원 안내원이 숲에 대해 해설을 하며, 겨울에는 수목원 내에서 빗축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시설인 BCJ PLACE에는 웰빙식당, 카페, 갤러리가 들어서 있다.

### 임진강 황포돛배

조선시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원형 그대로 되살려 임진강 두지리에서 자장리까지 승선하여 내려오는 황포돛배 나룻배 투어는 40여분간 "임진강적벽"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특히 60만년 전 형성된 높이 20m의 붉은 수직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임진적벽'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분단 50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 됐던 임진강에 관광객이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 ■ 임진강적벽

60만년 전 형성된 현무암 지대에 임진강이 흘러 침식현상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진 높이가 10여m의 이 수직절벽은 임진강 하류지역 약 70여 리에 걸쳐 크고 작은 검붉은 돌기들의 형태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 제3땅굴

군내면 제3땅굴로 210-358

1978년 아군에게 발견된 제3땅굴은 문산까지의 거리가 12km, 서울까지의 거리는 52km지점에 있다.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635m로 1시간당 3만명의 병력이동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 땅굴이 적발되자 남한에서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고 억지를

쓰기도 하였는데 땅굴 내부 갱도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의 폭파흔적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5월 31부터는 셔틀 엘리베이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DMZ 영상관, 상징조형물, 기념품판매장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도라전망대**

장단면 제3땅굴로 310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개성의 송학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금암골(협동농장)등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관람석 500석, VIP실, 상황실, 주차장(30~40대)등의 부대시설이 있으며 일반에게는 1987년 1월부터 공개되었다.

##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DMZ 체험관)**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년 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이었다. 미군철수 이후 정부는 2013년 민간인들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DMZ 민통선 안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DMZ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는 군대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도 사용되었다.

## **울곡수목원**

파평면 울곡리 일원

37번 국도에 인접 북쪽에 임진강, 동쪽으로 파평산, 감악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임진강 일대 및 산자수명한 명산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고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아 도시민이 하루코스로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며, 주변의 울곡이이 유적지 및 황희선생 유적지와도 가까워 연계 관광도 가능하다.

#### IV. 의주길 네트워크 구축

##### 1. 의주길 네트워크 구축(의주길의 확장)

###### (1) 고양시 구간

###### 1) 역사문화자원(18)

###### ■ 동산동 비석군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7호

지정일 : 2001. 11. 1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0-2

고양밥할머니석상이 있는 동산동 창릉 모퉁이 공원에 있다.

북쪽에서부터 차례로 吳挺日淸德恤民善政碑와 德水慈氏橋碑銘, 嚴纘善政碑가 있다. 덕수자씨교비명은 조선 현종(1660)때 덕수교 다리를 만들면서 이 비를 세우게 된 배경, 공사기간, 사용경비,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 1000여 명의 인명을 이두 문자로 기록한 것이며, 吳挺日淸德恤民善政碑는 당시 관찰사였던 오정일의 공덕비이다. 그리고 엄찬은 숙종 16년(1690)부터 숙종 17년(1691)까지 고양군수를 지냈던 인물이다.

###### ■ 월산대군사당

월산대군 사당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1989.12.29.에 지정(등록)되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27에 소재하며 관리단체는 전주이씨월산대군종친회이다.

월산대군 이정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사당이 처음 건립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숙종 19년(1693) 이전에 건립된 것은 확실하며, 현재의 건물들은 정조 10년(1786)에 이미 있던 건물들을 중수한 것들이다. 네모난 담장 중앙에 삼문을 세우고 그 안에 사당을 모셨는데 담장은 개인 사당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대석을 하단으로 축조하였고 석조 배수구까지 갖춘 특이한 구조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민도리 맞배기 와지붕 건물이다. 건물의 앞면은 재계행사(齋戒行事)에 알맞도록 1칸을 개방하였고, 영조가 직접 석광사(錫光祠)란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정조 순조 때에는 조정에서 신하가 나와 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사당 내에는 신주를 옮길 때 사용하던 작은 가마인 요여(腰輿)가 남아 있다.

사후에 그의 묘는 연산군에 의해 수난을 당했다. 연산군이 꿈에 그를 보고 밭에 여겨 그의 묘에 긴 쇠기둥을 꽂게 했다고 한다. 사당은 묘소의 서쪽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 ■ 고양 밥할머니 석상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6호

지정일 : 2006. 11. 1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0-2

동산동 밥 할머니의 본래 성씨는 밀양박씨 (일부에서는 해주오씨)로 알려져 있다. 장

성한 뒤 남평 문씨 문옥형(文玉亨)에게 출가하여 병자호란대에 크게 활약하는 외아들 문천립을 두었다. 조선조 선조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양과 서울 은평구,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과 관군에게 큰 도움을 주어 나라에 공적을 세우게 된다. 현재 고양지역에서는 이 밥 할머니가 행주대첩, 승리의 주역인 행주치마 부대의 여성 의병장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조반정에 일부 참여하고 병자호란 전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구휼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아들인 문천립은 어머니인 밥 할머니를 도와 공적을 더 했으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연경에 볼모로 갔을 때 이들을 모신 공으로 하여 가선대부의 품계를 하사 받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밥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백성들의 빈민구제와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지역과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는 밥 할머니란 별칭을 얻게 되었다. 밥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묘소를 지금의 은평구 불광중학교 부근에 모시었다가 지금은 이장하여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조선조 후기 역사 보살상의 모습으로 세워진 여성의병장 밥 할머니의 석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대단한 배려 속에서 유지 되었다. 중국의 사신들과 고위 관리들이 지나가는 관서대로, 한양의 입구에 세워진 이 밥 할머니의 위상은 매우 컸다. 그 후손들도 묘소 인근에 머물며 조상의 공적을 기렸다. 그러나 나라를 일제에게 강점당한 후 밥 할머니의 목 부분이 훼손되어 얼굴과 머리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머리부분을 새로 만들어 드리면 자꾸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옛 모습 그대로 있어야 민속, 문화적 가치가 높아 지금모습 그대로 모시고 있다고 전한다.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석불로 동산동 창릉 모퉁이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12월 정비한 이 공원 내에는 현재 이 석상 이외에도 3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총 4기의 석물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밥할머니석상은 다른 석물과는 달리 북한산을 바라보며 45°정도 옆으로 세워져 있다. 석상의 옆에는 '동산동 밥할머니석상 이야기'라는 안내판이 있어 이 석상과 관련된 전설을 기록해두고 있다.

석상은 최근에 만들어진 대좌를 포함하여 총 높이 155.5cm이고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하여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인다. 수인의 경우 왼손은 施無畏印을 하고 오른손은 약함을 받치고 있다. 立像으로 생각되는데 무릎아래 부분이 결손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석상의 뒷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따로 광배를 만들어 받쳤을 가능성이 있다.

## ■ 김지남 묘(金指南 墓)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51호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195-5에 위치한다. 김지남(金指南, 1654~?)은 조선 후기의 역관이다. 본관은 우봉(牛蜂), 자는 계명(季明)이며 호는 광천(廣川)이다. 1671년(현종 12)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활동하였다. 자초법(煮硝

法 : 화약을 만드는 흙을 달이는 법)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정조로부터 금석(金石)과 같은 성헌이라고 높이 평가받았다. 1712년 청나라와 국경선을 확정짓기 위해 양국대표가 회동하는데, 아들 경문과 함께 수행하여 청나라 대표 목극등을 상대로 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사(文詞)와 중국어에 유창하여 1714년에는 역관으로 사신을 수행하면서 보고들은 사실들을 참고로 하여 사대와 교린의 외교에 관한 연혁·역사·행사·제도 등을 체계화한 “통문관지(通文館志)”를 아들과 함께 편찬하였다. 이는 당시 외교에 종사하던 중신·사절·역관 등 실무진의 편람 및 사서의 구실을 하는 필수서가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까지 유포되어 그곳 외교관에게도 우리나라에 관한 지침서가 되었다. 벼슬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묘소 앞 비갈의 내용 중 김지남이 숙종 대에 백두산에 올라 중국 청나라 사신들과 담판을 저서 그 영토를 명확히 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왕조실록과 같은 문헌기록에는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한 기록을 다수 볼 수 있으나 무덤의 비석 중 정계비를 세웠다는 내용은 매우 드문 예이다.

### ■ 덕명교비(德明橋碑)

고양시 신원동 해방촌 마을의 중소기업은행 축구연습장 안에 위치하고 있는 덕명교비이다. 이 비석은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비좌는 땅속에 묻혀 있어 문양을 판별할 수 없으며, 개석은 조선 후기 비석에 흔히 사용된 팔작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비신의 마멸상태가 심하여 비문을 판독하기 어렵다. 비의 앞면의 전액에는 ‘경기도 고양군 덕명교(京畿道 高陽郡 德明橋)’라 기록되어 있다. 앞면에는 전액 이외에도 해서로 된 비문이 비신 전면에 새겨져 있다. 비의 뒷면에도 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양 신원 덕명교량명(高陽 新院 德明橋梁銘)’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수십 명의 인명이 이두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비의 내용은 한양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관서로(關西路) 구간 중 신원동 곡릉천(曲陵川) 위에 다리를 놓으면서 그 자세한 사항을 기록으로 표기해 둔 것이다. 비문에 의하면 이 비의 건립자는 이한(李瀚)과 당시 고양군수(高陽郡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유후성(柳後聖, 생몰년 미상), 그리고 정헌대부(正憲大夫) 윤면지(尹勉之), 이상식(李尙植), 홍시우(洪時雨)를 대표로 한 760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 즉 앞면은 비의 서문(序文)으로 주민 760여명이 모두 힘을 합쳐 곡릉천 위에 돌다리를 건립했고, 그 명단을 자세하게 표기해 둔 것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 비석에 흔히 사용되지 않은 이두문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이두문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 벽제관지(碧蹄館址)

벽제관지(高陽 碧蹄館址)는 사적 제144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65.02.02.이고 소재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고양동)이다. 관리주체는 고양시이다.

조선 성종 7년(1476) 11월에 세운 벽제관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사신의 공용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중국 사신들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예를 갖추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이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들도 여기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곤 했다. 국왕이 제릉(齊陵) 친제(親祭) 때 숙소로 이용하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중앙의 청사(廳舍)와 좌우의 익사(翼舍)로 구성되는데,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의 문지(門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다. 원래 벽제관은 현재의 벽제관지에서 서쪽으로 3km 가량 떨어진 웃 고골(고읍)에 초축되었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훼손되고, 당시 고양군청이 1625년(인조3)에 이전하면서 고양향교와 함께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벽제관은 관서지방으로 가는 큰 길에 설치된 첫 역관이었으며, 또한 국왕이 중국 사신을 친히 배웅하고 맞이하던 모화관에 버금가는 곳이다.

한편, 벽제관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에 의해 그 원형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벽제관이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명나라 군을 이긴 승전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에 의해 벽제관의 부속건물인 육각정(六角亭)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 이와쿠니시(岩國市) 모미지타니(紅葉) 공원에 남아 있다.

이후 벽제관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60년대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삼문까지 허물어져 그 터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65년에는 벽제관의 역사적 의의와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사적 제144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건물자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 고양동 송덕비군

벽제관지 부근 도로 옆에 위치한 이 비들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군수 및 관찰사 면장의 선정과 치적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들이 있다.

## ■ 벽제관 육각정터

벽제관 건물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유일한 현존 건물이 된 육각정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허세가와 요시미치가 왜군이 명나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벽제관전투를 기념하고자 벽제관앞 연지터(이곳)에 있던 육각정을 반출하여 자신의 고향에 있는 공원에 기증했다고 한다.

벽제관 육각정은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이지만 현존하는 벽제관의 유일한 잔존 건물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모미지다니 공원에 있는 이 육각정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다.

## ■ 고양향교(高陽鄉校)

고양향교(高陽鄉校)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85.09.20.이다.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6이고 관리주체는 향교재단이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이다.

고양향교는 최초 건립 당시에는 관아가 있던 원당리 서삼릉터에 세워졌으나, 몇 번의 이전 끝에 1625년 현 위치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명륜당, 전사청, 외삼문은 1984년에 새로 만들었고, 그 외 건물들은 여러 차례 보수되었다고 한다.

건물 배치는 교육 공간을 앞쪽에, 제사 공간을 뒤쪽에 둔 전학후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앞쪽에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있으며, 뒤쪽에는 대성전과 동무·서무, 전사청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장대석 2벌대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세웠다. 전면 반칸은 전퇴를 두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 방풍판을 설치한 구조이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연등천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청은 굿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세 살당판문을 달았다. 내부에 공자를 위시한 5성(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전사청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자연석 기단 위에 덩벙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운 구조이다. 좌측 1칸은 부엌으로, 우측 2칸은 온돌방을 만들었으며 천정은 반자틀 위 합판으로 마감하였다. 부엌에는 통판문을, 온돌방에는 세살당판문을 달았다. 건물의 뒷면에는 온돌방에는 광창을, 부엌에는 살창을 달았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교관이 머물던 강당인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장대석 기단에 원형초석에 방주를 세운 구조이다. 중앙 3칸은 대청으로 우물마루로, 좌우 1칸씩은 온돌방으로 연등천정이다. 창호는 온돌방에는 세살당판문을, 대청 후면에는 당판문을 달았다. 단청은 굿기단청으로 칠했다.

동.서무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장대석 기단에 방형초석과 방주를 세운 형태이다. 내부는 우물마루에 연등천정의 구조이며 단청은 굿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중앙은 세 살당판문을, 좌우 상단에는 광창을 달았다. 내부에는 송조 2현과 동국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동.서재는 각각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자연석 기단에 덩벙초석과 방주를 세웠다. 좌우 1칸은 온돌방으로 앞에 뒷마루를 두고 있다. 중앙은 대청으로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연등천정에 굿기단청을 칠했다. 창호는 세살당판문이고, 중앙 대청 후면에는 당판문을, 온돌 후면에는 광창을 설치하였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솟을삼문으로 장대석 기단에 방형초석과 방주를 세운 구조이다. 홍살이 설치되어 있고 단청은 굿기단청을 칠했으며, 통판문을 달았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솟을삼문으로 자연석 기단에 방형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홍살을 설치하였고 굿기단청에 통판문을 달았다.

### ■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는 경기도 기념물 제23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75.09.05.이다. 소재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70-2이다. 관리주체는 최대명씨이다.

고려 후기의 명장이며 충신으로 고려를 끝까지 받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처형된 최영(1316~1388) 장군의 묘소이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분으로 부인 문화 유씨와 합장하였다.

묘소에는 묘비, 충혼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장방형의 2단 돌레석을 두른 방형묘로서 주위에 곡장을 설치하였으며 묘 앞 좌우에 묘비와 충혼비가 있다. 조성 당시의 석물로는 영혼이 나와 제사를 받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묘지임을 알려주는 표지인 망주석, 묘비가 있다. 기타 다른 석물은 1970년에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전형적인 고려 양식의 방형묘이다.

위편에는 최영의 부친인 동원부원군 최원직의 묘가 있다. 묘역을 찾아가려면 대자산 입구 최영 장군의 묘표가 있는 곳에서 산길을 500여미터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 ■ 굴씨(屈氏)묘

조선조 인조의 맏아들, 비운의 소현세자(昭顯世子)에게 충절을 다했던 중국인 궁녀 굴(屈)씨. 그녀는 중국의 궁녀였지만 현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현세자 종중 땅에 '굴씨 묘' 또는 '굴묘'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다.

통일로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고양동 중남미문화원 쪽으로 대양로를 따라 1.5km 가량 가다 보면 왼편 폐가 뒤 야트막한 산 능선 언저리에 자리잡고 있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 남아 숙종때 복권된 3남 경안군(慶安君)의 묘 옆자리다. 경안군의 장남 임창군(臨昌君)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곳에 굴씨를 모실 때 묘지문까지 지을 정도로 후손들은 굴씨 모시기에 정성을 다했다.

지금은 원형을 볼 수 있는 기록을 접할 수 없지만 여느 군 부인(君夫人) 묘 못지 않게 석물과 비석 등으로 꾸며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현세자 종중은 200여년 뒤인 2000년 4월 사초하고 비석을 새로 세워 곧 쓰러질 듯한 비목(碑木)에 '청국여인 굴씨지묘'란 비문이 붓글씨로 쓰여 있던 초라함을 뒤늦게나마 벗겨냈다.

굴씨가 이렇듯 먼 나라 조선의 소현세자 종중 땅에 묻혀 대접을 받는 데는 소현세자에 대한 충절이 남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김구, 김수증 등 조선 후기 선비들은 그녀의 충절을 기리는 시(詩)를 남길 정도였다.

소현세자 종중은 굴씨가 가문을 잇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굴씨는 명나라에서 태어나 명·청나라의 궁녀로 있다 22살이던 1646년 청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 일행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왔다.

당시 청 태종 동생의 구애를 뿌리치고 조선과 소현세자를 택한 굴씨는 조선에 온 지 두달여 만에 소현세자가 숨졌으나 청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인조가 소현세자의 장남 대신 소현세자의 동생인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임금(효종.孝宗)에 앉히면서 세자빈(世子嬪) 강(姜)씨 일문을 멸한 '세자빈 강씨 사사 사건' 때 소현세자 가문도 역시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다.

끝내 소현세자의 장남과 차남은 제주도로 귀양가 사약을 마시고 죽었고 3남 경안군만 유일하게 목숨을 부지했는데 굴씨가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씨는 50년 가까이 조선에 살면서 아시아 실세로 등장한 청나라를 드러내놓고 배격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미 망한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배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굴씨는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고향 가는 길 옆에 묻어 달라'고 했다는 기록 이외에도 '살아 생전 바라던 청나라의 멸망을 보기 위해 이 곳에 묻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껏 구전되고 있다.

비석에는 '소현세자 청국(淸國) 심관(瀋 畝변에 官) 시녀(侍女) 굴씨 지묘'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 ■ 성령대군묘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264번길 150 (대자동)

고양시 향토유적 제2호(1986.06.16 지정)

이종은 조선 태종의 넷째 아들이자 성녕군에 봉해졌다가 1414년(태종 14)에 대군이 되었으며 대광보국대부의 위계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태도가 의젓하고 총명하여 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14살 때 흥역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장대석 3단을 쌓았으며 주위에 호석(護石)을 둘렀다. 묘소의 좌우에는 석호와 석양이 세워져 있고 묘 앞에는 상석, 장명등을 두었으며 좌우로는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신도비는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석과 거북모양의 귀부를 갖추고 검은 수석으로 된 비신을 화강암 우주석에 끼워 넣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1418년(태종 18)에 세웠으며 비 전체 높이 300cm, 비신 높이 163cm, 폭 130cm, 두께 25cm의 규모이다.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글씨는 성개가 썼다.

## ■ 이성군묘(利成君墓)

고양시 향토문화제 제4 호

지정일 : 1986. 6. 16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31(임)

이성군의 봉분을 중심으로 昆山郡夫人 南平 文氏와 豊山郡夫人 安東 權氏의 봉분이 좌우에 있다.

명종 11년(1556)에 세운 대리석의 묘비는 '왕자이성군 증시장평공지묘'라 쓰여져 있는데 장방형의 비좌에 정교하게 조각된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은 정사룡이 짓고

송인이 글씨를 썼으며 한경우가 전자를 썼다.

### ■ 경안군묘 및 임창군묘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 5호

지정일 : 1986. 6. 16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65-2(임)

현재 경안군의 묘는 盆城郡夫人 許氏의 묘와 합장되어 있는데 다른 묘에 비해 높은 묘역을 만들었다. 묘 둘레의 뒤편은 후대에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 벽돌의 曲墻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 앞 우측에는 ‘朝鮮國 王孫 贈顯祿大夫 慶安君 兼五都衛都府總官 行承憲大夫 慶安君 諱檜之墓 盆城郡夫人 許氏부左’라 새겨진 묘비가 있다. 묘비는 숙종 30년(1704) 3월 건립한 것으로 이수와 장방형 비좌를 갖추었고, 총 높이는 196cm, 두께는 26cm의 규모이다. 임창군의 묘는 凝川郡夫人 박씨와 합부되어 있다. 봉분의 주위에는 묘비, 상석, 향로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1쌍씩 있는데 특히 장명등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여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 ■ 김주신 선생 묘 및 신도비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18호

지정일 : 1986.6.16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26-1(임)

김주신(1661~1721)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肅宗)의 장인이다. 자(字)는 하경(廈卿), 호(號)는 수곡(壽谷), 세심재(洗心齋)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이다. 판서(判書) 김남중(金南重)의 손자(孫子), 생원(生員) 일진(一振)의 아들로 박세당(朴世堂)의 문인이다. 숙종(肅宗) 22년(1696)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이듬해 장원서별검(掌苑署別檢)이 되었다. 숙종(肅宗) 28년에 순안현령(順安縣令)으로 딸이 숙종(肅宗)의 계비(繼妃) 즉 인원왕후(仁元王后)가 되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고 이어 영돈령부사(領敦領府事)에 이르러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에 봉해졌다. 도총관(都摠管)으로서 상의원(尙衣院).장악원(掌樂院)의 제조(提調) 및 호위대(扈衛大將)을 겸임하였다. 저서(著書)로 [거가기(居家紀)], [수사차록(隋事筭錄)], [수곡집(壽谷集)] 등이 있으며 시호는 효간(孝簡).

묘는 대자동 대자골에 위치해 있으며 가림부부인(嘉林府夫人) 조씨(趙氏)와 부좌(附左)되어 있다. 호석을 두른 봉분을 중심으로 벽돌, 기와를 사용한 운치있는 곡장(曲墻)이 구성되어 있다. 묘 앞 우측에는 옥개석을 갖춘 묘비가 있는데 영조 10년(1734) 3월에 세워진 묘비는 최규서(崔奎端)가 짓고 서명균(徐命均)이 썼으며 갖형의 두부와 기단이 갖추어져 있다. 김주신선생의 신도비는 영사정 건물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 김주신(1661~1721)은 조선조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의 장인이다.

묘소에는 최근 조성된 묘비, 상석, 향로석과 당대의 장명등,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호석을 두른 봉분을 중심으로 벽돌, 기와를 사용한 곡장이 구성되어 있다.

묘비의 크기는 높이 100cm, 너비 65cm, 두께 33cm이다.

신도비는 화강석 재료로 장방형의 비좌와 옥개를 갖추었고, 비의 총 높이는 300cm, 폭은 95cm, 두께는 45cm의 규모이다.

### ■ 김홍집 선생 묘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24호

지정일 : 1986.6.16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26-1(임)

김홍집은 고종 5년(1867) 문과에 급제하여 1880년 예조참의로서 수신사(修信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고 중국인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소개하여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공으로 예조참판에 승진했으나 개화를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배척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사직했다. 고종 19년(1882)에 구미열강이 통상요구와 임오군란(壬午軍亂)의 뒷처리 등 복잡한 국제문제에 부딪친 정부에 다시 기용되어 한미, 한영 등 조약체결의 부사(副使), 1882년에는 이유원(李裕元)과 함께 조선전권(朝鮮全權)으로 일본과 제물포 조약 체결의 부관으로 외교수완을 발휘, 경기도 관찰사로 승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우의정, 좌의정 등으로 전권대신(全權大臣)이 되어 한성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한 뒤 사임했다.

묘소에는 최근 새로 만들어진 묘갈, 상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1쌍이 있다. 묘는 대자동 대자골에 위치하여 배(配) 정경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의 묘가 부좌(附左)되어 있다.

현재 봉분의 총 둘레는 15m인데 원래 이 묘는 1975년 6월 11일 파주에서 이곳으로 천묘한 것이다. 묘갈(墓碣)이 봉분 우측에 세워져 있다. 옥개석이 있는 비의 비문은 후손 정록(正祿)이 쓰고 세운 것이다.

김홍집(1842~1896)은 조선후기의 정치가로 처음 이름은 宏集이며 자는 敬能, 호는 道園, 본관은 경주이다.

### ■ 희정공 성억 묘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49호

지정일 : 2007. 8. 10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27번지

희정공 성억은 고려 우왕 12년(1386)에 태어나서 조선 세종 30년(1448)년에 돌아가셨으며 시호은 희정이다. 조선조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이며, 예조판서 석인의 아들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공조정랑등을 역임하였다. 1414년에 군자부정, 공조판서, 전라도관찰사, 중추원판사 겸 병조 판서를 겸하고 좌찬성을 역임하였다. 공의 딸이 태종의 4자인 성녕대군에 출가 하였다.

묘는 유좌로 사각방정형의 호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경부인 죽산안씨와 정경부인 남양홍씨 3위 합봉.

규모는 가로 394cm, 세로 530cm, 높이 202cm

고려말 조선조 초기에 보이는 사각묘로 2단의 기단석이 봉분 전체를 둘러치고 있으며 기단석은 서로의 끝부분이 엇갈리게 쌓아져 봉분의 흘러내림을 막아주고 있음.

사각기단석에 다시 사각으로 작은 수로를 만든 것이 특이하며, 봉분의 앞으로는 혼유석, 상석, 고석이 배치되어 있다. 원비는 없어졌으며 2기의 문인석이 있음.

### ■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8호이다.

지정(등록)일은 1995.08.07.이고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0-2이다. 관리주체는 고양시이다.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

대자동 간촌마을 금천군 묘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비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비는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 빛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8m 폭 0.54m 두께 22.5cm이다. 대좌 위에 비신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하단의 좌측 부분은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비신의 앞면에는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울처참’(‘禁標內犯入者 論棄毀制書律處斬’)이라 표기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조 연산군 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울에 의해 처참한다.’는 것이다. 이 금표비는 금천군 이변의 묘역 안에 세워져 있는데 1995년 묘역의 보수 작업 중 묘역 앞에서 출토되었다.

연산군은 149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으로 있으면서 성균관 유생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모아 유흥장을 차리고, 선종(禪宗)의 본산인 흥천사(興天寺)도 마구간으로 바꾸고, 민간인이 한글로 연산군의 행동을 문제삼는 글을 올리자 이를 계기로 한글의 사용을 엄금한 일 등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로 결국 중종반정으로 임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후 강화도 교동(喬桐)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세상을 떠났다.

비가 서 있는 고양은 연산군 10년(1504)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이 되었다.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이 비석은 금석문으로 희귀한 예일 뿐만 아니라 문헌의 사실을 고증해 주는 귀중한 예이다.

## 2) 지명유래, 전설 및 설화 자원(10)

### ■ 삼송동(三松洞)

삼송동(三松洞)은 마을에 커다란 소나무가 세 그루 있어 세솔리(또는 세수리) 라고도

불리다가 한자 음으로 바뀌어 삼송동이 되었다고 한다. 소나무 세 그루의 유래는 인근에 서삼릉(西三陵)이 있어 그 능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소나무가 있던 곳은 현재의 세수리 마을 입구였으나 지금은 원당, 삼송동 간의 도로 확장 과정에서 없어졌다. 또 다른 유래로는 돈을 세 수레나 끌어들일 만큼 돈을 잘 버는 동네라 하여 세수레라 부르다 음이 변하였다는 설도 있다.

### ■ 신원(新院)마을

신원(新院)은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대로 상에 새롭게 생성된 마을로 새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새원을 한자로 옮긴 것이 바로 신원이다. 그러나 현재 새원이라 불리는 마을은 대자동에 속해 있다. 또 다른 유래로는 이 마을에 살던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궁 이름이 신원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다. -옛날 이 마을 앞은 한양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관서대로가 통과하였는데 예전에는 없다가 관리나 일반 백성들이 쉬었다가는 원(院)을 새로이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밖에 자연촌락으로 물구리는 마을에 물이 많아 생긴 이름이며, 능골은 조선시대의 왕손인 월산대군의 무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송강말은 송강 정철 선생의 유적이 있기 때문이며, 조관동은 아침에 관복을 갈아입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한우물은 마을에 유명한 찬우물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굽이 쳐돌았다 하여 낭구비, 산기슭 안쪽에 있어 안터, 해방 후 집이 많아져 해방촌, 길고 큰 벌판이라는 장뜰 등의 마을이름이 있다

### ■ 오금동

오금동은 지축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동 명칭이다.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는 첫째, 마을의 생긴 모양이 마치 가야금 같다고 하여 생긴 설과 둘째, 옛날 한 선비가 이 마을 큰 오동나무 밑에서 거문고를 탔기 때문이라는 설, 그리고 세번째 설은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산에서 오동나무가 발견되어 오금동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이곳에 아주 옛날부터 오동나무가 매우 많아 이 오동나무로 가야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유래설이 있다.

### ■ 밥할머니 이야기

불광동(현재의 연천마을)에서 살던 오씨 여인은 마을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지혜가 뛰어나 사람들로 부터 오 여사(女士, 여자 선비)라고 불렸다. 1592년 오 여사의 나이 마흔아홉 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고양 벽제관 부근에서 왜군과 큰 전투를 벌이고 패퇴하였고, 기세를 올린 왜군은 창릉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때 오 여사는 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북한산 노적봉을 짚으로 둘러 노적가리처럼 위장하게 하고 창릉천 상류에 석회를 뿌린뒤 이튿날 함지박을 이고 창릉천으로 갔다. 때마침 왜병들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오 여사를 보고 무리 뿌연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오 여사는 북한산 노적봉을 기리키며 저곳에 조선군 수만 명이 주둔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조선군이 군량을 쌓아둔 노적가리라고 말했다. 그리고선 "마침 밥을 지을 시간이니 쌀 씻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배급하는 쌀을 받아오는 길"이라며 함지박의 쌀을 보여주곤 총총히 사라졌다.

왜적들은 오 여사가 사라진 뒤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고자 앞다투어 물을 마시고 끌고 왔던 말에게도 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물을 마신 왜적들은 다들 배탈이 나서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고통스러워 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 여사는 급히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전갈을 보내어 창릉천을 급습하게 하였다. 이날 전투 이후 왜군은 퇴각을 거듭하였다고 전한다.

이 후 오 여사는 마을의 여인들을 모아 의병대상군을 조직하여 북한산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투 때마다 병사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부상자 치료를 도왔으며 전황 연락책을 맡아 봉화를 올렸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병대, 오 여사는 첫 여성의병장이었다.

창릉천 쌀뜨물 사건 이후 그녀는 '밥한(어)머니(나중에 밥할머니로 변화)'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노적봉이 잘 보이는 창릉 모퉁이에 그녀를 기리는 석상을 세웠다. 밥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선조는 그녀의 남편인 문옥형에게도 가선대부위계를 내렸고 밥할머니는 정경부인으로 봉했다고 한다.

## ■ 솥돌고개 이야기

솥돌고개는 삼송동과 오금동, 신원동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 고개로 고개 정상 부로는 국도 1호인 통일로가 지나고 있다. 이 고개는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1월 여석령 솥돌고개 전투(일명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패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칼을 이 고개에서 갈았다고 한다.

## ■ 벽제(碧蹄)

벽제동은 고양시의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 동 명칭으로 파주시, 양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개명산, 우암산, 앵무봉 등 높은 산들이 주위에 있으면 응달촌, 목암동, 상곡촌, 전마을 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이곳의 지명유래설은 첫째, 조선시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인 후 이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시호를 사도(思悼)라 내리고 세자의 혼을 달래던 중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위의 숲이 너무도 울창하고 골이 깊어 벽제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옛날 고위관리가 길을 지날 때는 이를 큰 소리로 알렸는데 이 소리를 내는 기구를 벽제라고 했다. 이곳 벽제는 중국 북부 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이 벽제 소리가 끝없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 대자동(大慈洞)

대자동은 고양동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법정 동 이름이다. 이곳에는 쌍궁말, 고골, 대적골, 빈정동, 용복원, 한오동, 새원, 간촌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다. 고양 시내에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곳 중 하나로 최영 장군 묘를 비롯해 연산군시대 금표 비등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대자동이란 유래설은 조선조 태종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태종 임금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말았다. 이에 상심한 태종은 무덤 근처에 암자를 세워 불공을 드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길이 너무 멀어 임금이 이곳을 자주 왕래하면 혹 나라 일을 소홀히 할까봐 잦은 행차를 삼가도록 진언하였다. 이에 태종은 무덤 근처에 큰 자비를 내린다는 뜻으로 대자사(大慈寺)라는 절을 지어 성령대군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때부터 이 절의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대자리로 부르게 되었다.

## ■ 고읍(古邑)마을

고읍마을은 행정구역상 덕양구 관산동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은 북한산과 개명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우뚝 솟은 국사봉 일명 옥녀봉 아래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어 명당자리로 유명하다. 국사봉은 이 산봉우리에서 고양군수등이 올라 나라의 안녕과 왕의 만수를 기원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곳의 법정동 명칭은 대자동이며 자연촌락 마을이름은 고읍이라 한다. 고읍은 조선 시대에 고양군 전체를 다스리던 고양군청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곳 국사봉아래 대자동 산1-10번지에 있던 대자동 고읍 고양군청은 서기 1544년부터 1625년까지 81년간이다. 처음 이곳에 고양군청이 들어선 시기는 조선 중종 39년(1544) 5월 10일이다. 당시 고양군청은 현 덕양구 월당동 서삼릉 부근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곳에 조선조 12대 인종의 어머니인 장경왕후 윤씨의 희릉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양군청 이전의 왕명이 내려 이 곳 대자동 고읍마을로 군청을 옮기게 되었다. 당시 고양군청은 국사봉 아래 산기슭에 있었는데 주초와 기와편 등을 통해 볼때 위용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자동에 고양군청이 있을 당시 군청 관아 이외에도 향교, 감옥, 포청, 남별관, 사직단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이와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80년 넘게 이 곳에 있던 고양군청 관아는 이곳에 효종의 부마인 정제현의 묘소와 원찰인 백련암이 들어서면서 1625년 현 고양동 벽제관 부근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 관청령(官廳嶺)

관청령(관청재)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고읍마을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사이에 있는 고개다. 이곳을 관청고개라 부르는 것은 고개 아래 고읍에 옛 고양 관아를 비롯한 주요한 관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고읍(古邑), 읍내, 관청재, 향교골 등 옛 관청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 ■ 관산동(官山洞)

관산동은 고양시의 동북쪽에 자리한 행정동 이름이다. 관산동 내에는 대자동 일부와 내유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을 관산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조 전기부터 고양동으로 고양군청이 이전되기 전까지 이곳 마을에 고양군청과 객사가 있어 외지에서 온 관원들이 머무는 객관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고읍마을 국사봉 아래에 가면 당시 군청 터가 남아 있다. 현재 관산동은 관(官)자를 쓰고 있다

## 3) 근·현대 자원(5)

### ■ 삼송역(三松驛)

삼송역(三松驛)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일산선의 전철역이다. 출근 시간대 또는 막차에 이 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존재한다. 부역명은 농협대입구 이나, 이 역에서 농협대학교까지의 거리는 2.7km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농협대학교는 원흥역과 더 가깝다.

1996년 1월 30일 일산선 개통으로 영업을 개시했으며 2006년 7월 12일 폭우로 인한 지하 대부분 구간의 침수로 전 구간 일시 운행이 중지되기도 했다.

### ■ 교외선 벽제역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430번길 8-15(舊 대자동 산139-4번지)에 위치해 있다.

역명은 이 지역의 원래 행정구역인 벽제읍에서 유래되었다. '벽제'는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이 머물며 휴식을 취했던 벽제관(碧蹄館)이라는 곳의 이름을 딴 것. 현재는 무인역이지만 TMO는 있으며, 역 건물은 화물업무를 하는 물류업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여객열차 운행 당시에는 인근에 벽제유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했다. 벽제화장터로 알려진 서울시립승화원도 직선거리로 300m, 보행자통로로 돌아가도 6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문객들의 발길도 잦았다. 고양동과도 가장 가까운 역. 하지만 2004년 교외선이 여객영업을 중지한 이래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여객열차는 영업하지 않으나, 인근에 국군벽제병원이 2011년 7월 1일부로 이름을 바꾼 국군고양병원과 정비대 및 보급대가 있어서 군용 화물열차가 하루에 1~2번 정도 벽제역에 정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선 지평역에서 이 곳까지 운행하는 것. 화물열차는 이 역까지만 들어가고 일영역을 지나 장흥역에서 회차한다. 벽제역과 일영역에 회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의정부역 방면으로는 화물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이 역과 삼릉역 사이의 선로가 끊어져 있었다. 원당천 생태보호를 위한 확장공사와 그 지역 도로 확장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교를 끊었기 때문이다.



## ■ 고양초등학교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1909년 5월 사립 명륜학교로 설립되었다. 1909년 5월 1일 사립 명륜학교(明倫學校)로 설립되었다. 1911년 4년제 고양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공립으로 전환되어 고양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1년 10월 고양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81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96년 고양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바른생활 습관 훈련으로 도덕적 신념과 실천의지를 기르는 어린이(도덕인), 새로운 지식으로 탐구력을 길러 창조할 줄 아는 어린이(창조인), 튼튼한 몸으로 기능을 연마하여 건전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건강인), 서로 돕고 남의 의사를 존중하며 솔선수범하는 어린이(자주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38학급에 총 1,27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교직원 43명이 재직하고 있고, 98회 졸업식을 거치면서 총 1만 42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 ■ 고양 감리교회

고양 감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남감리 교회로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남부의 에모리(Emory)대학과 벤더빌트(Vanderbilt)에서 공부했던 윤치호 선생이 바로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 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방적인 선교를 당했던 북감리교(아펜젤러), 북장로교(언더우드)와 달리, 남감리교의 선교는 한국인 윤치호의 촉구와 주선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교회의 분열이 조선 땅에서도 이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남감리회 소속의 양주삼 목사와 윤치호 선생 등이 노력하여 1931년 통합된 <조선감리교회>를 탄생시킨 것만 보아도, 한국의 남감리교 전통은 매우 주체적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96년 8월, 리드 선교사가 내한하여, 윤치호와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선교의 열의를 불태웠다. 그러던 중 1897년 5월 2일, 이곳 고양동에 남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매서인들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온 리드와 콜리건은 곧바로 세례식을 집행하고 속장을 선출해 완벽한 조직을 갖춘 감리교회를 세운 것이다. 선교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결국 한국인들의 노력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 무임승차한 교회가 바로 이곳 고양지역 감리교회의 역사이다.

## ■ 중남미문화원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번길 33-15 (고양동)

중남미문화원은 1992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이복형 대사와 그의 부인이신 홍갑표 이사장이 그 지역의 풍물을 모아 세운 문화의 장이다.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꿈과 이상과 건전한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다. 문화원에는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등이 있다.

중남미박물관에서는 마야, 잉카, 아즈테카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각국의 찬란했던 고대 문화유산과 역사, 생활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아세아 권에서도 유일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문화관련 박물관이다. 토기, 석기 및 목기, 가면, 민속 공예품, 가구, 그림과 악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중남미 미술관에서는 근·현대의 중남미 작가들의 그림, 조각 등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전시회를 열고 있다. 조각공원에는 중남미의 12개국 (멕시코, 베네주엘라, 브라질, 칠레, 페루,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과 인디오풍의 인디헤나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코요아칸 대문과 산책로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 (2) 파주시 구간

### 1) 역사문화자원(17)

#### ■ 혜음원지(惠蔭院址)

지정번호 : 사적 제464호

지정일 : 2005년 6월 13일

소재지 : 광탄면 용미리 234-1 외 32 필지

조성시기 : 고려 전기

고려시대의 국립 숙박 시설이었던 혜음원이 있던 자리가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 고개 좌측 능선에 있다. 혜음원은 남경(지금의 서울)과 개성을 오가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을 위해 고려 예종 16년(1120)에 착공해 1122년 2월에 완공한 숙박 시설로, 왕이 행차하여 머물 수 있는 행궁도 갖추고 있었다. 김부식이 지은 <혜음사 신창기新創記>에는 혜음원 건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1109년 8월 예종은 이소천에게 남부 지방에 대한 암행을 지시했다. 이소천은 암행 후 개경과 남경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사람의 통행은 많으나 산세가 험해 호랑이나 산적이 출몰하여 일 년에 백여 명이 살해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예종은 이곳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했다.

이소천이 묘향산의 혜관 스님을 찾아가 일꾼으로 일할 승려 백여 명과 경비를 마련하여 1120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인 1122년 2월에 완공했고, 그 후 왕이 남경 순행할 때를 대비하여 추가로 왕이 숙박할 수 있는 행궁을 설치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동안 혜음원이 이곳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긴 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 그런데 1999년 폭우로 흙이 흘러내리면서 "혜음원惠蔭院"이라 글자가 새겨진

암막새 기와가 드러나면서 이곳이 혜음원 자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는 혜음원의 대략적 규모, 구조, 성격 등이 밝혀졌으며, 2차 발굴 조사 결과 혜음원은 남서향으로 모두 5개의 단을 이루며 대지를 마련한 후 건립되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물 터에서 왕의 행궁으로 짐작되는 공간이 확인되었다.

혜음원의 건물은 아래로부터 맨 위까지 중앙 계단을 축으로 대칭형으로 건립되었으며, 건물 안에 별도의 조경 시설과 배수로 시설, 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총 4차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연못지, 배수로 등의 유구를 발견했으며, 금동여래상, 기와류, 명문기와 등 많은 유물을 발굴했다.

혜음원지는 남한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려 전기의 건축 양식이며, 왕이 머물 수 있는 행궁이 있는 점, 그리고 건물과 여러 시설의 터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왕실, 귀족, 평민 등 각 계층의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 ■ 전통사찰 용암사(龍岩寺)

지정 번호: 전통사찰 제87호

지정일: 1988년 10월 25일

건립연대: 1840년

소 속: 대한불교 조계종

소재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11

용암사龍岩寺는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 자락에 있다. 이곳에 가람이 형성된 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보물 제93호로 지정된 용미리 석불입상이 11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시기부터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관한 기록이나 유구 및 유물은 남아 있지 않다. 가람의 오른쪽으로 대웅전이 비교적 넓은 터에 남향해 있는데 1997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최근 중수되었다. 석불이 있는 기슭으로 미륵전彌勒殿이 있으며 대웅전 앞에는 봉덕사종을 본뜬 범종을 안치한 범종각이 있다.

### ■ 용미리마애이불입상

지정 번호: 보물 제93호

지정일: 1963년 1월 21일

소재지: 광탄면 용미리 산 8

소유자: 국가

조성 시기: 고려 중기

규모: 전체 높이 17.4m

용미리마애이불입상(龍尾里磨崖二佛立像)은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 남쪽 자락에서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두 구의 불상이다. 산기슭에 있는 자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통을 조각하고 그 위에 목·머리·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은 이 한 쌍의 석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남상과 여상이 함께 서 있는데 특이한 양식이다.

두 석불 가운데 왼쪽의 불상은 둥근 갓을 썼고 오른쪽의 불상은 네모난 갓을 쓰고 있는데, 서로 손모양만 다를 뿐 옷의 주름이나 매듭, 얼굴의 이목구비가 비슷한 느낌과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석불은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불상을 많이 만든 고려 시대의 작품이다. 이 석불은 세련되고 정형화된 중앙(귀족)의 양식이 아니다. 신체 비율이나 얼굴 등의 세부 묘사에서 불균형하고 투박한, 그러나 일반 백성이 친근하게 느끼는 부처의 모습을 새긴 개성이 강한 지방화된 양식이다.

용미리 석불 입상을 만들게 된 사연을 담은 전설도 전해오고 있다.

고려 13대 왕 선종은 자식이 없어 원신공주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왕자를 낳지 못했다. 이를 못내 걱정하던 공주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사라져 버렸다. 꿈에서 깨어난 공주가 하도 이상하여 선종에게 고하자 선종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냈다. 한참 후 장지산에 다녀온 사람이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선종은 즉시 이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렸다. 그러자 그해에 왕자 한산후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자祈子 전설이지만,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불상이 조성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불상 옆쪽 벽면에 새겨 있는 200여 자의 명문은 심하게 마멸되어 거의 읽을 수 없지만 이러한 구전 내용일 것으로 짐작된다.

## ■ 파주삼릉(坡州三陵)

### □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예종(睿宗)의 원비 장순왕후(추존) 한씨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1460년(세조6) 16세로 세자빈이 되어 이듬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며 1472년(성종3)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묘로 조성된 관계로 초석과 난간이 생략되고 봉분 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다. 또 봉분 주위로 석마, 석양, 석호 각 2필씩을 두어 능 주변을 호위하고 있다. 봉분 아래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위치하고 있다.

### □ 순릉(順陵)

조선 제9대 성종(成宗)의 원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능이다. 공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자매간이다. 1467년(세조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 즉위 5년인 1474년 4월 후사 없이 춘추19세로 승하 하였다.

순릉은 조선전기의 능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소담한 돌기둥 난간을 돌렸으며 봉분 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문인석과 망주석 2기를 두었다. 또 석양, 석호 각각 2필씩을 두어 호위케 하고 있다. 능 아래에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위치한다

#### □ 영릉(永陵)

조선 제21대 영조(英祖)의 맏아들인 효장세자 진종(眞宗.추존)과 그 비 효순왕후 조씨의 능이다. 진종은 1719년(숙종45)에 태어나 1724년 영조 즉위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 춘추 10세의 나이로 돌아가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1762년 영조는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한 뒤 사도세자의 아들인 왕세손(훗날 정조)을 효장의 아들로 입적 시켰다. 효장은 정조 즉위 후 영조의 유언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 조문명의 딸로 1727년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해에 세자의 죽음으로 홀로 되었다가 1751년 춘추37세로 돌아가 효장세자와 함께 왕후로 추존되었다.

영릉의 능 형태는 왕과 왕비의 쌍분능으로 2기의 상석과 그 중간에 사각 옥형의 장명등을 놓았다. 문인석 2기와 석양, 석호를 각 2필씩 배치해 능 주위를 호위케 하고 있다. 능 아래에 정자각, 비각, 홍살문 등이 위치한다. 파주삼릉은 1970년에 국가 사적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 ■ 익양군 이회(李懷) 선생 신도비

지정 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지정일: 1984년 9월 12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선조 20년(1587)

소재지: 조리면 장곡리 산 20-1

소유자: 전주 이씨 익양군파 종중

규모: 전체 높이 2.52m, 너비 0.77m, 두께 0.22m

재료: 대리석

이 신도비는 성종의 제8왕자로 1488년 7월 1일 숙의 홍씨淑儀洪氏 몸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익양군에 봉해진 이회(1488~1552)의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이회는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가 계속되자 문밖출입을 하지 않다가, 1506년 중종 반정에 가담하여 원종공신이 되었다. 종부시 제조, 종친부 유사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충효덕행의 으뜸으로 명성이 높았다.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 비는 널찍하고 네모진 받침 위에 비몸과 머릿돌을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워 놓았다. 비몸의 앞면 윗부분에 머리글篆額을 새기고, 그 아래와 뒷

면에 비문을 새겼다. 머릿돌에는 두 마리의 용을 대칭적으로 조각했는데 용 비늘과 구름 등의 묘사가 매우 섬세하다.

이회가 사망한 지 35년 후인 선조 20년(1587)에 세운 이 비의 비문은 좌의정 김귀영이 짓고 명필 한호가 글씨를 썼으며 도승지 김응남이 머리글을 썼다.

## ■ 윤관 장군 묘

지정번호 : 사적 제323호

지정연월일 : 1988년 2월 27일

조성시기 : 고려 중기 예종 6년(1111)

소재지 : 광탄면 분수리 산4-1

소유자 : 파평 윤씨 대종회

윤관尹瓘(?~1111)은 문무文武를 겸한 고려 때의 공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윤관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처음 여진 정벌의 임무를 띤 1104년부터 이후 약 7년간이다. 윤관은 숙종 9년(1104)에 동북면행東北面行 영병마도통營兵馬都統이 되어 국경을 침범하는 여진 정벌에 나섰으나 여진의 강한 기병에 부딪혀 패전을 당하고 임기응변으로 화약을 맺고 일단 철수했다. 이후 윤관은 왕에게 전투력의 증강과 기병의 조련을 진언하며, 여진 토벌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별무반別武班이라는 특수부대의 창설되었다. 1107년 윤관은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부원수 오연총吳延寵과 함께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 국토를 획정하고 9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듬해 9성을 다시 여진에게 돌려주고 철수하게 되자 여진 정벌의 패장이라는 모함을 받고 관직과 공신호가 삭탈되었다. 그러나 그의 처벌을 주장하는 재상이나 대간의 주장을 물리친 예종은 1110년 그에게 다시 관직을 제수했으나 사의를 표하고 출사하지 않았으며, 1111년 숨을 거두었다. 윤관은 사후 예종의 사당과 고려 태조와 충의공신을 모신 송의전에 배향되었다. 윤관의 묘가 자리한 묘역은 상당히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다. 봉분은 아래에 장대석 모양의 호석護石을 두르고 봉분 뒤로는 담장을 둘렀다.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 왼쪽에 묘비가 서 있다. 그 아래로 망주석이 서 있고 더 아래에는 장명등을 중심으로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 등이 양편으로 있다. 묘역 바깥에는 윤관의 영정이 봉안돼 있는 여충사麗忠祠가 있는데 매년 음력 3월 10일 제사를 지낸다.

## ■ 심지원 묘 및 신도비

지정 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137호

지정일: 1992년 6월 5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숙종 연간

소재지: 광탄면 분수리 산 4-1

소유자: 청송 심씨 대종회

조선 인조~효종 대에 걸쳐 여러 관직을 역임한 심지원沈之源(1593~1662)의 묘와 신도비이다.

심지원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원지源之, 호는 만사晩沙이다.

심지원은 광해군 12년(1620) 문과에 급제한 후 남인과 북인의 당파 싸움이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가 숨어 지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관직에 복귀했으며, 인조 8년(1630) 함경도 안찰어사로 파견되어 말 무역을 단속하고 6진의 방어 대책을 인조에게 제시하여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왕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등의 여러 문제로 탄핵되어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조 21년(1643)에 그의 억울함이 용서되어 홍주부사로 복직하였고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효종 9년(1658)에는 영의정에 올랐으며, 효종이 죽자 원상院相으로서 국정을 맡기도 했다.

봉분은 전부인 안동 권씨와 후부인 해평 윤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 묘비와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 양편으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묘역 아래에는 김수항이 글을 짓고 신익상이 글씨와 전액을 쓴 신도비가 있는데 숙종 12년(1686)에 세운 것이다.

## ■ 윤곤 선생 묘

지정 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106호

지정일: 1988년 3월 21일

조성 시기: 조선 전기 세종 4년(1422)

소재지: 파주읍 연풍리 산 81-1

소유자: 파평 윤씨 소정공파 종중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윤곤尹坤(?~1422)의 묘이다. 윤곤의 시호는 소정昭靖,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했으며, 동생 윤향尹珦과 함께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조선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뒤의 태종)의 편에 서서 협력한 공으로, 태종 1년(1401) 좌명공신 3등에 임명되고, 파평군에 봉해졌다. 태종 6년(1406) 좌군도총제로 있을 때 한 사건에 연루되어 파평현에 유배되었다가, 세종 즉위년(1418) 평안도 관찰사로 기용되었다. 평안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기생의 풍류를 폐지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등 많은 공을 쌓아서 이듬해 이조판서로 승진했으며, 그 뒤 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윤곤은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며 풍채가 매우 좋아 '복옹福翁'이라는 별칭을 받았다

윤곤의 묘에는 정면에 위가 둥그런 작은 묘비가, 오른쪽에는 고종 6년(1869) 세운 또 다른 묘비가 2개 있다. 묘의 아랫부분에 두른 돌레석, 묘 앞의 상석, 향로석, 장명등은 모두 최근에 바꾼 것이다. 묘의 좌우로 문인석이 서 있으며, 묘역 아래에는 윤상익이 짓고 윤조영이 글을 쓰고 윤용식이 전액篆額을 쓴 신도비가 서 있다.

## ■ 파주목관아지

파주읍 파주리 현재 파주초등학교와 인근 군부대, 구 파주읍사무소 건물터 등은 조선 세조 5년 파주목으로 승격되면서 파주목 관아가 있던 행정 중심지 이다. 현재 파주초등학교 교육박물관 앞에 '파주목관아 문루' 석기둥과 주변에 흩어져있는 주초석등을 모아 놓았으며 구 파주읍사무소내에 있던 파주목 고을 수령들의 선정비 5기를 모아 놓았다. 비석은 모두 청백리였음과 선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파주목사들의 '청백선정비' 들이다.

## ■ 파주향교

지정 번호: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3호

지정일: 1992년 6월 5일

조성 시기: 조선 전기 세종2년간(1456)

소재지: 파주읍 파주리 335

소유자: 향교재단

규모: 정면3칸, 측면2칸

조선 시대 파주목坡州牧에 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태조 7년(1398)으로 알려져 있고, 세종 때 증창했다고 한다. 또한 원래 봉서산 구향교골에 있던 것을 세조 2년(1456)에 인근으로 옮겼고, 조선 중기인 현종 원년(1660)에 사액되어 돈암서원이라 하다가 조선 후기인 고종 7년(1870)에 수해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하나 확실치는 않다. 경내에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명륜당, 동재, 내·외삼문, 수직실守直室이 있는데 명륜당과 내·외삼문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971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향교의 대성전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공자를 중앙에 그리고 좌우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모셔 함께 제사지낸다. 파주 향교의 대성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단아한 모습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으로 꾸몄다. 기둥 사이에는 위쪽의 무게를 받기 위해 각 칸에 두 개씩 꽃받침을 설치했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 ■ 화평옹주와 박명원 묘 및 신도비

지정 번호: 향토유적 제13호

지정일: 2001년 12월 21일

조성 시기: 조선 후기 정조 14(1790)

소재지: 파주시 파주읍 파주1리 육군 제7663 부대

소유자: 국방부



영조의 셋째 딸 화평옹주和平翁主(1727~1748)와 사위인 박명원朴明源(1725~1790)의 합장묘와 신도비이다. 화평옹주는 창경궁 집복헌에서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도세자의 친누이다. 그 후 박명원과 혼인했으나 스물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박명원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보정晩葆亭,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1738년 화평옹주에게 장가들어 금성위錦城尉에 봉해졌으며 영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글씨를 잘 써서 나라에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면 금옥보책명정서관金玉寶冊銘旌書官이 되었는데, 모두 10여 차례에 이르렀다.

또한 1776년, 1780년, 1784년 세 차례에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으며,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검소하며 풍류와 운치가 있었다.

화평옹주와 박명원의 합장묘 앞에는 묘비, 문인석, 망주석, 장명등, 상석, 향로석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봉분 뒤로 곡장을 돌렸다. 봉분 앞에 세워진 묘비는 1790년(정조 14)에 세운 비로, 앞뒤면의 비문은 영조의 친필이다. 박명원 신도비는 묘역 100여 미터 아래에 서 있는데 1790년(정조 14)에 건립된 것으로 정조가 글을 짓고 안진경의 글자를 모으며, 머리글은 이양빙의 글씨를 모은 것이다.

## ■ 봉서리 충신 열녀문

지정 번호: 향토유적 제5호

지정일: 1986년 4월 17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인조 11년(1633)

소재지: 파주읍 봉서리 산 94-1

소유자: 김진옥

규모: 정면 5.3m, 측면 2.4m

재료: 목조

봉서리 충신 열녀문은 임진왜란 때 무장武將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충신 김복경金復慶(1545~1592)과 병자호란 때 굳게 정절을 지킨 그의 며느리 신평 송씨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이다.

김복경의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몽운당夢允堂으로, 양주 목사 겸 양주진 병마첨절제사로 재직하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과 분전하다가 마흔여덟의 나이로 전사했다. 이에 1633년(인조 11) 12월 그의 애국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세우게 하고 “충신 통정대부행양주목사진병마첨절제사김복경지려忠臣通政大夫行楊州牧使鎭兵馬僉節制使金復慶之閭”란 현액을 하사했다.

김복경의 며느리 신평 송씨(1583~1636)는 김복경의 아들인 통덕랑 김검金儉의 처로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삼각산 기슭으로 피난을 가던 중 청군에게 잡히자 그해 12월 10일 자결했다. 1639년 나라에서는 송씨 부인의 정절을 표창하여 열녀로 봉안케 하는 한편 “열녀통덕랑김검처공인명정녀烈女通德郎金儉妻恭人命旌女”란 현액을 내렸다. 오른쪽에 김복경, 왼쪽에 신평 송씨의 현액이 봉안되어 있는 정각은, 정면 5.3m, 측

면 2.4m로 맞배지붕이다.

### ■ 우계 성혼선생 묘

지정 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지정일: 1981년 4월 22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선조 31년(1598)

소재지: 파주읍 향양리 산 8-1

소유자: 창녕 성씨 종중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성혼成渾(1535~1598)의 묘이다. 성혼의 자는 호원浩源,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시호 문간文簡,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1535년 한양에서 태어났으며, 다섯 살에 파산坡山 우계로 이사하면서 파주에서 자랐다.

성혼은 명종 5년(1551) 초시에 급제했으나 더 이상 과거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했으며, 백인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같은 고을에 사는 이이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학문 성향에서는 이항을 지지하여 이이와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성혼은 젊어서부터 이미 덕망과 학문으로 인정받아 여러 번 관직이 주어졌으나 모두 거절하다가 이이의 권유로 이조참판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에는 세자의 특별한 부름에 따라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향인 파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후에 좌의정左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

묘역은 반달 모양의 사성莎城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정면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했다. 묘비는 인조 27년(1649) 김집이 글을 짓고 윤순거가 글씨를 써서 세운 것이며, 묘소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김상헌이 글을 짓고 김집이 글씨, 그리고 김상용인 머리글(篆額)을 쓴 것이다.

### ■ 이세화 선생 묘

지정 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0호

지정일: 1974년 9월 26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소재지: 파평면 울곡리 산 100-1

소유자: 덕수 이씨 종중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이자 청백리였던 이세화李世華(1630~1701)의 묘이다. 이세화의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柏堂, 시호(諡號)는 충숙忠肅,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이세화는 효종 8년(1657) 문과에 급제하여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숙종 15년(1689)에 인현왕후를 폐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소를 올려 반대하다가 정주로 유배되던 중 방면되어 파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뒤에 인현 왕후의 복위 문제를 맡으며 다시 조정에 올라왔다. 이후 공조·형조·병조·예조·이조 판서를 두루 거쳐 지중추

부사를 역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충신의 상징인 정문旌門을 고향에 세우고 영의정의 관직을 내렸다.

묘역은 사성으로 둘러져 있으며, 부인 순창 설씨薛氏 묘가 옆에 나란히 있다. 봉분을 중심으로 정면에 묘비가 있고, 그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으며, 상석 앞에는 단을 쌓아 위와 아래로 구분했다. 단 아래에는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한 쌍씩 있고, 묘역이 시작되는 곳 오른쪽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남구만南九萬이 글을 짓고, 오태주吳泰周가 썼으며 최석정崔錫鼎이 머리글을 써서 숙종 34년(1708)에 건립한 것이다.

### ■ 화석정(花石亭)

지정 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지정 연월일: 1974년 9월 26일

조성 시기: 조선 중기

소재지: 파평면 울곡리 산 100-1

소유자: 덕수 이씨 종중

화석정은 파평면 울곡리 마을 뒤 임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정자다. 화석정은 원래 고려 말의 대유학자 길재와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 세종 25년(1443) 울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李明晨이 이곳에 정자를 세운 후 성종 9년(1478) 울곡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보수하면서 이숙함李叔咸이 화석정이라 이름 지었다. 그 후 이이가 다시 중수했다. 이이는 국사를 돌보면서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나 벗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하기도 하고 묵상에 잠기도 했다. 당시 그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 황홍헌黃洪憲이 찾아와 시를 읊고 자연을 즐겼다고도 한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80여 년간 터만 남아 있다가 현종 14년(1673) 이이의 증손들이 다시 세웠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다시 불에 타 없어졌다. 현재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했는데,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고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 형태로 조선 시대의 양식을 따랐다. 1973년 정부의 유적 정화사업 때 건물에 색을 다시 칠하고 주위를 정리했다.

화석정 안에는 「화석정중건상량문」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이가 여덟 살에 지었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가 가장 눈에 띈다.

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이 한이 없어라.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먼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 받아 붉구나.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 리 바람을 머금는다.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 ■ 임진나루(臨津津)

임진강 남안의 임진나루는 고려~조선시대 남북을 오가는 의주로상의 유한한 뱃길로 교통의 요지이다. 서울의 북쪽에서 관북과 관서 지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진강을 통과하게 된다. 임진나루에서는 관북의 서수라로(西水羅路)와 관서의 의주로(義州路)가 분기된다. 서수라로는 고랑진(高浪津)을 경유하고 의주로는 개성을 지나 예성강의 벽란도를 경유한다. 현재 임진나루는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어업허가를 받은 고기배들만 이용하고 있다.

### ■ 덕진산성(德津山城)

사적 제537호

군내면 정자리 13

군내면 정자리에 위치한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다.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성은 최고봉인 해발 65m 봉우리를 중 심으로 산능선을 따라 돌며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외성에는 두 개의 문 지가 완연하게 남아있고 성 위에 담을 낮게 쌓았던 부분이 두 군데 있다.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임진강의 북쪽 해안이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덕진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처음 소개되었고 그 외 다른 지리지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있다. 덕진산성은 1992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된 이후, 1994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의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 및 2004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문지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삼국~조선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기와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결과 내성 전체 구간(600m)에 걸쳐 고구려 성벽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은 흙을 다져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후 앞면에는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부를 쌓을 때에는 할석(쪼갠 돌)이나 가공석 사이사이에 점토를 채워가면서 쌓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7세기 말경 신라가 점령하여 기존 고구려 성곽을 견고한 석축성으로 새롭게 구축하였고, 9세기에는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졌다. 7세기 대에는 고구려 성벽의 토축부를 내탁부로 사용하여 편마암 계통의 성돌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성벽을 조성하였고, 9세기 대에는 화강암을 가공한 성돌을 사용하여 덧붙여 쌓았다.

조선시대에는 17세기 광해군 대에 강기슭까지 외성을 덧붙여 쌓았는데 통일신라 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성벽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하였다. 고구려가 초축하고 통일신라때 수개축을 거듭한 후 조선시대 외성을 덧붙여 쌓아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전시기의 유적과 유물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성

곽 축성의 보고寶庫로, 인근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과 함께 임진강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유적이다

## 2) 지명유래, 전설 및 설화 자원(29)

### ■ 혜음령이야기

①광탄면 용미리와 고양시 고양동을 넘나드는 고개로 높이는 164m이다. 일명 수령령(授令嶺)고개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영조가 그의 생모 숙빈최씨가 죽자 충청도 지방의 지관과 함께 광탄면 영장리 산 1번지에 묘자리를 잡고 소령묘라 하였다. 이곳에 묘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던 때 궁궐에 들어가던 중 혜음령고개에서 관원을 만나 임금으로 추봉되는 왕명장을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김부식의 기문에 “이 지역을 석사동(석사동)이라 하였다. 지금의 임금이 즉위하자 ‘혜음(惠蔭)’이란 액을 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이 혜음령 고개는 옛날 이 고개 중턱 좌측에 혜음사(惠陰寺)가 있었던 곳으로 광탄면 용미리 벽제관을 넘어 다니는 고개이며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국도이다. 이 고개 주변에는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으스스해서 도둑들이 수시로 나타나 행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한다. 힘이 센 두 도둑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장물을 으스스한 곳 에다 숨겨놓고 서로 나누어 가지자고 하였으나,

욕심이 많은 도둑들은 각자 마음 속으로 독차지하고자 흥계를 꾸미는데 술을 한잔 나누어 먹고 분배하자는 두 도둑은 한 사람이 술을 받으러 가서 술에 독약을 타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산에 남아 있던 도둑은 칼을 준비해서 술을 가지고 오는 도둑을 숲에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술을 사가지고 올라오는 도둑을 몰래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흥이 나서 술을 가지고 올라가 마시고 죽으니 두 도둑은 모두 욕심으로 인하여 사라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 용미리 구룡골(九龍谷) 유래

용미4리 마을 뒷산의 지맥이 아홉 개로 갈라져 내려오며 이것이 마치 아홉 마리의 용이 꿈틀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조선시대에 무학대사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할 즈음 한양 근교인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용두리)를 용의 머리로 보고 혜음령고개를 넘어 광탄면으로 와서 용의 꼬리부분이 아홉갈래로 나누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용미4리 진대마을

조선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일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은 대륙에 침략을 성취 하

기 위하여 25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왜 군들은 진격을 거듭 대전을 거쳐 음력 5월 2일 순식간에 한양을 함락시키는 동안 선조대왕은 몽진을 서둘러 4월 29일 깜깜한 절벽 폭우가 쏟아지는 그믐밤 임진강을 건너 의주로 파천하게 되었다.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왜군들은 5월 2일 임진강변에 이르러 15일만에 걸쳐 치열한 전투 끝에 왜군이 승전을 거듭 진격하여 송도를 거쳐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동시에 전역에 걸쳐 침략을 받게 되니 할 수 없이 12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이여송(李如松)제독이 이끄는 20만의 대군이 들어와 선조 26년 1월 8일 평양성을 탈환하고 진격하니 황해도 봉산, 백천, 개성에 주둔한 왜군들까지 한성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여송(李如松)제독이 이끄는 명군들은 광탄면 용미리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 왜군들은 한양으로 전부집결 군사를 정돈, 정비하는 한편 벽제관으로 쳐들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장처영(僧將處英)이 이끄는 승병들과 아울러 치열한 격투를 벌였으나 명의 수만 희생자를 내게 되자 고령산 전역에 걸쳐 시체가 늘비하였다 하며 신음소리와 함께 피바다를 이루어 하늘을 진동시켰다 한다. 이 전투에서 이여송제독의 아우 이여백(李如伯)과 이여매(李如梅)가 전사하니 이여송제독은 비참한 슬픔 속에 평양성으로 명군을 이끌고 철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 후 주민들은 그 당시에 진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동리명을 진대밖이라 호칭하는 한편 400여년 이 지난 오늘까지 수호·보존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 용미3리 잔버들, 세류동(細柳洞)

예로부터 잔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붙은 이름이며 조선시대 의주로의 세류점(細柳店)이 있었던 곳이다. 병자호란때 호병이 이곳에서 후퇴하였다하여 호주골이라고도 불리며 호병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여 ‘죽골’이라는 별칭도 전해지는 마을이다.

### ■ 분수원과 분수리

옛 의주로의 역원인 분수원(焚脩院)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1361년(고려 공민왕 10) 11월에 왕과 노국공주가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

### ■ 분수원 산송분쟁 사건

### ■ 장터고개

조리읍 장곡리에서 광탄면 분수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로부터 봉일천 공릉장을 보러 넘어다니던 고개이다.

### ■ 신탄막(新炭幕), 새솔막 이야기

광탄면 신산3리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은 옛 날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국도의 주막거리였으며 일찍부터 참나무 숯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로 파편하던 1592년 4월 29일 이 지역을 지날 때 억수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하는수 없이 어가를 멈추고 저녁준비를 서두르는데 장작이 젖어 타지않자 아껴쓰던 참나무숯을 지퍼 수행하던 관원들이 옷을 말리고 몸도 녹였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선조가 이 숯은 처음보는 새로운 숯(炭)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 넓은여울, 광탄(廣灘)

1914년 양주군 백석면 마장리 일부가 편입되었고 1983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와 영장리가 더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양주군 백석면과 광적면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천으로 합류하는데 이것이 '넓은여울'로 형성되어 이를 한자말로 해 광탄(廣灘)이라고 불린다.

### ■ 방축(防築), 검전동(檢田洞)

방축2리의 방축동은 마을앞으로 하천이 흘러 홍수때마다 전답이 매몰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되자 하천옆으로 제방을 쌓았다하여 붙은 이름이며 방축1리 검전동은 마을앞으로 맑고 깨끗한 개울물이 흐르고 이곳에 웅덩이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늘 모여들어 고기도 잡고 목욕을 하느라고 개울옆에 있는 전지(田地)를 마구 짓밟아서 곡식을 망쳐놓았다 한다. 그래서 밭둑에 말장과 섭을 대어 사람들이 다니지못하도록 금지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 ■ 부곡3리 명당자리 거지무덤의 일화

우리나라는 조선조 말엽 1900년부터 일제를 거쳐 8·15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는 1970년까지 70여년 동안 전쟁으로 인한 난사와 매년 홍수와 흉년이 거듭되면서 큰 혼란속에 보리밥과 조밥, 호밀밥, 시례기죽과 피삼죽, 수수풀떼기, 개떡, 감 자와 옥수수 등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집을 잃은 수많은 거지(乞人)가 속출 남사당패와 각설이, 돌중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상가집이나, 연자방아간, 움집 등에 노숙하면서 수십명씩 몰려 다니며 유랑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모인 거지이지만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친형제와 자식같이 예의를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우정이 두터워 왕초거지가 명령을 하면 아무말 없이 무조건 복종하는 아름다운 미풍이 감도는 가운데 누구하나 신 병으로 신음을 하면 서로 정성껏 치료와 위안을 할뿐 하나라 사망했을 때에는 인근에 다른 거지들과

합세하여 성시성의를 다하여 장례를 치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 거지들은 아침 저녁이 되면 깡통을 손에 들고 집집마다 문전에서 밥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전부 모여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청장년 거지들은 지팡이를 짚거나 손을 들너 메고 병신행세를 하며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한푼 두푼 구걸을 하여 모은 돈을 모두 왕초거지에게 바치면 일괄공개하고 예금하여 저축을 하게 된다.

또한 견디자루를 메고 각 부락 큰집을 골라 다니며 슬픈 어조로 각설이타령을 하면서 잡곡을 구걸하여 장에 팔아 돈을 만들어 예치 하는 한편 나이가 지긋한 5,60대 거지들은 용기장수나 소금장수를 하여 돈을 벌어 왕초거지에게 바친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금촌읍 아동리(안산동) 부락에 연자방앗간이 있어 수십명의 거지들이 정착하여 살았는데 겨울에는 벧짚을 얻어 다가 이영을 엮어 둘러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잠을 자는 한편 화로불을 피어 몸을 녹이며 포근한 정을 나누었고 낮에는 실내 빈대와 벼룩을 잡고 이불이나 옷과 머리에 득실대는 이를 잡았으며 여름과 가을철에는 모기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여 바깥 뜰에 멍석을 피고 모닥불을 피워 잠을 자는 괴로운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어수선한 세월 속에서도 거지들은 밤이 되면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로 웃음바다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이곳에 있던 조선행이라는 거지는 이곳에서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소금장사를 하였는데 1971년 4월 봄날 소금을 지게에 걸머지고 광탄면 발랑리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소금을 팔고 돌아가는 도중 백경수가 흘러내리는 길목 현재 부곡3리 산기슭에 지게를 버티어 놓고 주저앉아 쉬다가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든채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거지 수십명이 일제히 달려와 죽은 그 자리에 장례를 지냈다. 조선행의 어린 자식은 성장하여 인천에서 소금장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며 결혼을 하고 아들 형제를 두어 큰아들 조장원은 의과대학을 졸업 인천에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작은 아들 조창원은 미국으로 건너가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자손들은 아버지 거지 무덤을 생각하고 찾아와 주위 임야 7,000여평을 구입 산소를 잘 복원하고 수호 관리하게 되었으며 명당자리 와복형국(蛙伏形局) 거지무덤으로 널리 알려지는 한편 받들고 있어 매년 봄 가을로 찾아와 정성껏 금초와 제사를 들여 효자들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는 유래가 내려오고 있다.

## ■ 가마울과 오봉산

파주읍 부곡1리와 2리에 걸쳐 다섯 개의 봉우리가 마치 가마솥을 걸어 놓은 듯하며 가운데 주봉은 아궁이 같다하여 마을 이름을 가마울이라 하고 마을 뒷산의 이름을 오봉산이라 부른다.

## ■ ‘가지마고개’ 이야기



가자밋고개, 가좌밋고개, 개재밋고개, 가좌현(加佐峴), 광탄고개라고 불리며 광탄면 방축리 검전동에서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63m. 조선시대 오위장 박창신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다가 그의 아버지 산소앞을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부하를 이끌고 성묘를 하려하니 참모가 “밋자리를 잡아준 지관이 앞으로 3년은 절대로 성묘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가지 마십시오”하고 극구 말리는 것을 기어이 물리치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성묘를 하였다 한다. 그때 조정에서는 박대장이 역적모의를 한다고 무고하여 군대를 보내어 이 고개에서 죽이고 그 아버지 묘를 파헤치니 시체가 거의 다 용이 되고 꼬리만 덜 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가지마 고개’라 불리다가 발음이 변화한것이라 한다.

### ■ 용주골(龍池洞)이야기

파주읍 연풍1리에 있는 마을. 반룡산 밑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어느날 뇌성벽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연못의 물이 솟구치면서 용이 승천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용짓골을 별말이라고도 한다. 용지골이 용짓골, 용쫓골, 용주골로 변한것이다.

### ■ 마산(馬山)

파주읍 파주1리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서원군과 파평현을 병합하여 원평군이 되었을 때 청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다시 현 청사를 파주향교 옆으로 이전한 후 파주목 관야에서 부리는 말을 길렀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파주초등학교와 파주교육박물관

1906년 4월 1일 신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지역 유지들에 의해 파주관아의 동헌 건물에서 광흥학원으로 개교하였다. 1909년 4월 4년제 파주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였고, 1923년 4월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1945년 9월 파주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광복 후 초대 교장에 성낙영이 취임하였다. 1950년 전란으로 교사가 소실되어 1951년 서울 수복 후 경기도 파주 주내면 부곡리에 임시교사를 설치하고 6학급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954년 11월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현재의 위치에 목조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64년 45학급(본교 35학급, 분교 10학급)으로 편성하고, 1982년 3월 병설유치원 1학급, 1983년 3월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하였다. 1996년 3월 파주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8월 체육관을 신축하였다. 2006년 4월 개교 100주년을 맞아 파주교육박물관을 개관하였다.

### ■ 봉서산(鳳棲山)과 성산(城山)

파주리, 봉서리, 봉암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215.5m.파주의 鎭山이다. 봉황새가 깃든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봉황새는 고귀함과 길함을 상징한다. 천지개벽 때 흘

러들어 왔다고 하여 외지인은 잘 살지만 토착인은 못 산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산(城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산 서쪽에 대산봉수(大山烽燧)가 있었으며 장단군의 도라산봉수와 대응하였다.

### ■ 봉서산 장사우물이야기

봉서산은 봉황새가 깃드려 즐기며 노래하던 곳으로 호칭하여 내려오고 있다. 이 산 정상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장사가 먹었다는 장사우물로서 산성에서 사용하였고 또 하나는 전대우물(帶水)로 수원이 많은 약수로 현재 문산과 파주읍 주민들이 즐겨 마시고 있으나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풀어도 닿지 않는다는 깊은 우물로 측량할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산마루에는 장사가 가지고 놀았다는 몇 개를 포개놓은 듯한 공기바위와 용마바위등이 있으며 별판 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300미터 가량의 산으로 산림이 우거진 아름다운 명산이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문산포구를 바라보는 군사 요충지로 산성이 있었으며 임진왜란당시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전을 거두고 이 산성으로 돌아와 수비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 ■ 향양리 서작포(西作浦)

파주읍 향양1리에 있는 마을. 문산포 동쪽에 자리한 마을. 반룡산 서맥의 외능. 내능. 발흥동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이 포구로 이어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마을입구에는 지금도 서작포 장승이 세워져 있으며 마을의 평안을 위한 마을고사를 해마다 지내고 있다.

### ■ 선유울(仙遊里)

본래 파주군 칠정면 지역으로 서낭당 밑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붙은 이름이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칠정면의 창내동 · 이천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선유리라 하였다. 예로부터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8선녀가 산봉에서 놀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선유동 · 선울 · 선울 · 선유울이라고도 한다.

### ■ 독서울(讀書洞)

4리에 있는 마을. 쌍백당 이세화가 새능에 안장되고 숙종이 이곳을 다녀간 후 주민들의 향학열이 더욱 높아져 서당을 건립하고 독서에 전념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仙人讀書'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파평면 이천리 배내의 아래쪽이어서 아랫배내 · 하이천 등으로도 불린다.

### ■ 장승백이

문산을 선유4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 ■ 칠정말(七井洞)

문산을 선유5리에 있는 마을.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양질의 물이 많이 나오고 일곱 개의 좋은 우물이 있었다 하여 유래됐다.

### ■ 울곡촌(栗谷村) ‘나도밤나무’ 이야기

울곡 선생의 본향 마을 울곡촌. 지금의 행정지명도 파평면 울곡리이다.

울곡리 마을은 마을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마을 뒤로는 임진강 줄기와 평행을 그리며 산자락이 내달리고 있는 형국의 시골 마을이다.

덕수이씨 가문의 세거지이면서 울곡 선생의 선대가 대대로 살아온 마을 울곡촌에는 선생의 조부를 비롯한 선대의 묘소가 있고 산자락엔 유난히 밤나무가 아직도 많다. 밤꽃이 피는 무렵에 이 마을은 온통 밤나무꽃 향기에 뒤덮이니 과연 밤나무골(울곡栗谷) 답다. 이 마을에 유난히 밤나무가 많은 것과 관련해 전해지는 일화가 있으니 울곡 선생이 어렸을 때 하루는 스님이 찾아와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혀를 쫓쫓 차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자 스님이 말하길 이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을 방법을 물었고 이에 스님은 아이를 살리려면 뒷산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잘 키우라고 말하고 3년후에 왔을 때 한 그루라도 모자라거나 남아서는 안된다고 사라졌다 한다. 이때부터 아이의 어머니는 뒷 산에 밤나무 천그루를 심고 잘 돌보았다. 어느새 3년이 되어 약속한 날이 되자 스님이 어김없이 찾아왔고 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가 꼼꼼이 나무를 세었는데 수를 다 센 스님이 갑자기 한그루가 모자란다고 소리치며 호랑이로 변신해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도밤나무요 나도밤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가보니 그곳에는 작고 비리비리한 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는데 이상한 밤나무였다. 비록 어머니가 심은 밤나무와 좀 다르긴 했으나 분명히 밤나무였다. 호랑이는 그 밤나무를 보자 도망을 치고 말았는데 밤나무가 모두 천 그루였기 때문이다. 그 이상한 밤나무가 바로 ‘물박달나무’ 혹은 ‘나도밤나무’라 불리는 나무이다. 아이는 무사히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울곡 선생이라는 이야기 이다.

울곡 선생은 어려서부터 이 마을에 살면서 자주 임진강변에 올라 장차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고 학문을 익히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셨을 게다. 지금까지도 선생이 자주 오르셨던 임진강변 언덕 화석정 정자에 선생이 8살에 지으신 화석정부시가 정자에 걸려 있으니 그 당시의 풍광을 가히 짐작 할 수 있게 한다.

### ■ 선조의 피난길 이야기

화석정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임진왜란때 선조 임금의 피난과 관련된 일화이다.

화석정에서 바라다보이는 임진강 남안에 임진나루가 있으니 고려 . 조선시대 개경과 남경을 오고가던 유일한 국도인 의주로 길이다. 즉 임진강 남안의 임진나루와 북안의 동파나루가 뱃길을 연결해주는 나루이니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던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은 율곡 선생이 돌아가신지 꼭 9년뒤의 일로 율곡 선생이 예언했던 10만 양병의 주장이 현실로 들어난 셈이다. 의주로의 피난길에 나선 선조가 임진나루에 도착한 것은 음력으로 4월 29일 그믐날 저녁 무렵인데 주위는 칠흑같은 어둠이 내리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악조건이었다. 이때 임진나루 남쪽 기슭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지르니 그 불빛이 강을 훨씬 비추어 선조가 무사히 강을 도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율곡이 살아 생전 이러한 일을 대비해 제자들에게 매일 같이 기름종지에 들기름을 가져오게 해 정자의 기둥에 바르게 했다고 하니 율곡 선생의 선견지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추측컨대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주장에 대한 예언적 통찰력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듯한 의도에서 비롯된 듯 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진실과는 차이가 있으니 당시 선조를 최 측근에서 호종한 영의정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돈의문을 지나 사현沙峴(모래내 고개)에 다다르니 동녘 하늘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머리를 돌려 성중을 바라보니 남대문 안 큰 창고에 불이 일어나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뽀뽀했다. 이때 왜적은 아직 서울에 침입하지 않았을 때이니 불은 난민들의 소행일 것이다. 사현을 넘어 석교石橋에 도착하니 비가내리기 시작했다. 경기감사 권징이 달려왔다. 벽제역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커져서 일해의 옷이 모두 젖었다. 이에 임금은 할 수 없이 역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니 이때부터 전송나왔던 중 관衆官이 성안으로 되돌아 가는 자가 많았다. 시종과 대간까지도 왕왕 뒤떨어지고 오지않은 자가 많아졌다. 혜음령惠陰嶺(파주 광탄)을 지나자 비는 점점 세차게 퍼부었다. 궁인들은 약한 말 뒤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산역馬山驛을 지날 때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며 통곡 하였다. ‘나랏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니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냐.’ 라고 하였다. 임진강에 이르도록 비는 멎지 않았다. 이때 임금은 배안에서 수상(유성룡)과 나졸을 불러 보셨다. 강을 건너니 이미 황혼이 지나 길을 찾기가 몹시 힘들었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승청丞廳이 있었다. 적이 나무를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올까 두려워서 재목에 불을 놓았더니 불빛이 강북을 비쳐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초경이 되어서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 보면 이미 강을 건넌 후 승청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은 길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이 뗏목을 만들어 뒤쫓아 오는 것을 두려워 해서였으며 마침 그 불빛이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승

청을 곧 화석정으로 보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 ■ 임진나루 뱃사공이야기

임진나루는 옛날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국도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 이었다. 여기에서 뱃사공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옷차림과 거동만 보아도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 맞추기로 유명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데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는 짓궂은 사람이 하루는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시험을 하고저 신분을 속이고 양반으로 가장 의관을 갖추고 임진나루 뱃사공을 찾아 ‘여보게 나를 좀 배로 건너 주게’ 하고 반말을 하였다.

그러나 김씨라는 뱃사공은 부지런히 배를 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구보고 반말 이냐’며 화를 내는지라 그리하여 변장한 양반이 하는 말이 ‘이놈아! 감히 누구 안전에 서 행패냐’ 하니 ‘너는 아무리 양반 인체하여도 나와 같은 뱃놈에 불과하다.’ 하였다. ‘그래 네가 어찌 그런것을 잘 아느냐!’ 하고 반문을 하자 임진강의 뱃사공이 하는 말이 ‘너는 수염이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이며 강바람에 수염이 돌아간 것을보아 너는 나와같은 뱃사공이 아니냐?’ 하니 참으로 귀신같이 맞힌다면서 꺾꺾대며 서로 웃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 임진강에 떠 있는 섬, ‘풀들섬’ 초평도(草坪島)

문산읍 장산리 216번지로 등재되어있는 임진강 한가운데 한가롭게 떠 있는 섬 초평도(草坪島). 풀이 무성하게 자라 평평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변부를 포함한 면적은 4백만 평방미터이고 수면위의 면적은 약 176만 5천평방미터(약 52만평)로 한국 전쟁 이후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에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고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온갖 기러기, 오리류와 도요, 흰꼬리수리, 원앙, 파랑새, 청호반새 등이 계절에 따라 들락거리고 사시나무와 갯버들 군락이 발달되어 있다.

최근에는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아 소유자(개인소유)에게 골재 채취권 부여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타진되는가 하면 낙하리에서 동파리 초평도까지 17킬로미터 구간의 준설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초평도를 활용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DMZ 생태공원 후보지 가운데 임진강내 자연섬인 초평도를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생태공원 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평도는 아직까지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지뢰와 불발탄이 초평도를 지키고 있다.

한강에 여의도가 있다면 임진강엔 초평도가 있다.

그러나 여의도엔 사람이 살지만 초평도에는 수많은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다.

### ■ 개바위(犬岩)와 마당바위(場岩)

문산읍 장산리 임진강변에 있는 개바위(犬岩)는 개세바위 또는 개혀바위(狗舌岩)이라

고도 불리는데 장산리 대호산의 마당바위 밑에 있다. 개가 북쪽을 향해 혀를 빼내고 있는 형상이라 붙은 이름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징조가 있으면 개울음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 바위와 함께 임진강 건너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북바위도 동시에 북소리를 냈다 한다. 이를 알고 중국의 장수 용골대(龍骨大)가 개바위의 혀처럼 생긴 부분을 칼로 쳐서 없앴다고 하며 지금도 칼로 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개바위 위에 위치한 마당바위(場岩)는 마당처럼 넓고 평평하다. 정재 박태보의 시가 새겨져 있으며 명석 열두 장을 깔 수 있을 만큼 넓었는데 1904년 경의선 철도 공사때 깨뜨려 쓰고 지금은 4평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

### ■ 장산리(長山里)

본래 파주군 신속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비인리 · 내벌리 · 임진리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장산리라 하였다. 장산에서 임진나루까지 약 2km 가량 높이가 같은 산이 임진강 가를 따라 길게 뻗었으므로 진동산 또는 장산이라 하였다. 1755년(영조 31)에 진과 보루를 설치하고 별장을 두어 지켰으므로 장산보 또는 장산진이라고 하다가 진을 폐한 후 다시 장산이라 하였다. 장산진 · 장산보 · 진동산이라고도 한다.

### ■ 말우물 마정(馬井)

본래 파주군 마정면 지역으로 말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마정면의 장지리 전부와 마정리 일부, 신속면의 내벌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그대로 마정리라 하였다. 옛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새벽 햇살 기둥이 우물에 꽂히자 그 안에서 갑자기 龍馬가 뛰어나왔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우물이라고도 한다.

## 3) 근·현대 자원(9)

### ■ 독립운동가 심상각(沈相恪) 선생

1888 ~ 1963.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송(靑松). 김포(金浦) 출생. 파주(坡州) 성장. 호는 우산(又山). 현감 정택(定澤)의 자.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10일 파주지역에서도 임명애(林明愛) 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3월 25일에도 구세군(救世軍)인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 · 김선명(金善明) · 임명애 · 김창실(金昌實) 등과 더불어 시위를 계획하여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만세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김웅권(金雄權)등과 함께 군내 월농(月籠).교하(交河).가동(街洞).조리(條理)면 등지의 시일을 이용하여 군 전체가 봉기할 것을 모이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7일 2천명의 시위군중이 광탄면 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奉日川里)장터로 행진하여 그 곳에 있던 1천여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봉일천 헌병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별였다. 이러한 시위를 주동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파주군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廣灘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그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옥영사업에 전념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 3.1운동발상비

파주 3.1운동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은 대규모 농민 조직이 봉기한 3.1운동의 발상지 광탄면의 3.1운동 발상비와 대규모 만세시위가 펼쳐진 봉일천 장날의 시위를 기념하기위해 세운 3.1운동 기념비를 들 수 있다.

3.1운동 발상비(發祥碑)는 현재 광탄면사무소 내에 있는데 1978년 3월 1일 광탄면민 일동으로 광탄중종교 교정내에 세운 것을 최근 광탄면사무소내로 옮겼다.

이 발상비는 2단으로된 비대위에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 머리를 올렸는데 전면에는 「3.1운동 발상비」라 새겼고 뒷면에는 광탄면민 일동으로 된 추모의 글이 담겨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기 1910년 경술(庚戌)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바다건너 잔악무도한 왜구(倭寇)들의 발길에 더럽혀지자 호국선열들은 한을 머금고 혹은 해외로 망명하여 각국을 순방하면서 독립을 호소하고 혹은 국내에서 끈질기게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서기 1919년 .....(중략) 때를 같이하여 파주군 3.1운동 발상지인 이 곳 광탄에서는 우산 심상각(又山 沈相恪), 석천 김웅권(石泉 金雄權) 양 선생의 주동으로 그 달 28일 봉일천 장날 19인 동지회원들이 앞장을 서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여 태극기를 높이드니 민족혼은 만장산하(萬丈山下)에 메아리치고 선열들의 우국충정은 강산도 감동 시켰다.....(하략)’ 이라고 기록해 파주 3.1운동 발상지인 광탄면민의 3.1정신 계승을 다짐하고 있다.

### ■ 경의선(京義線) 철길

경의선은 파주를 관통(30.9km)하는 철길로서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절에 신설된 역 중심으로 도로와 상가가 생기면서 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경의선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그 해 2월 21일 서울~의주(499.3km)간 군용철도 부설을 위한 임시 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한국주재 일본군사령관 예하에 전속시켰다.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관리권이 군용철도에서 통감부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1908년 4월 1일부터는 부산~신의주간 직통 급행열차인 용희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선화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 철도부설을 위해 일본은 농번기에 농민을 강제로 끌고 가고 식량과 가축을 징발하여 농촌은 공동화되었으며 1906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철도 지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기력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며 열집에 아

흡집은 텅 비었고, 천리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고까지 개탄했다.

일본은 이런 침탈 이외도 당시 철도역 부지를 넓게 책정하여 그 일대의 조선 농민을 내쫓은 후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넘기고 철도역 주변에 새로운 도로와 관공서를 세워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일본인들을 돈방석에 앉게 하였다.

파주의 경의선은 부설 당시 일산 다음역으로 금촌역과 문산역, 현재 휴전선 근처의 장단역이 있었으며 1956년 5월 11일 교하읍 야당리에 금촌역 관리의 운정역과 1967년 9월 1일에 월릉면 위전리에 문산역 관리의 파주역이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개설되었다.

경의선은 경성과 신의주를 잇는 남북 종단 철도로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되어 문산역이 종착역이 되었고 철도종단점이라는 간판이 민족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철도 종단점을 임진각 관광지로 옮겨 관광객들이 기념촬영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철도 연결을 명시하였고 2000년 7월 1차 남북장관급 회담때에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그해 9월에 임진각에서 경의선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그 후 2002년 9월 경의선 연결공사가 착수되고 2003년 6월 군사분계선 철로가 연결되었으나 핵문제 등 북미 관계 악화로 무산되었다. 남북은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군사보장 합의를 체결하면서 운행이 중단된지 56년만에 열차시험운행을 하였으며 7개월 후 2007년 12월 11일에는 개성공단의 자재와 생산 물량의 수송을 위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 하므로써 경의선의 유럽 연결을 위한 한 걸음을 나서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복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다.

## ■ 1번 국도의 끝길 통일로(統一路)

1번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평북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종단국도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되기 시작해 20세기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역사와 문화의 실크로드로, 근대화의 산실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1번국도는 서남단을 거슬러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 광명에 걸쳐 있으며, 서울을 경유해 다시 고양, 파주, 문산까지 이르러 휴전선까지 연결되고 마침내 서북단 끝인 신의주에 다다른다.

1번국도는 서울을 경유하면서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에서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임진각에 이르는 구간을 통일로라고 부른다. 49.2km에 달하는 통일로는 조선시대에도 중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인 의주로가 근간이 되어 이루어진 도로이다.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국도가 남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1972년 왕복 4차선의 통일로로 확장되었는데 이것이 파주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통일로 주변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초기에는 주택에 페인트칠만 하는 등 전시 위주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주택개량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통일로변 주택이 대폭 개량됐을 뿐만 아니라 주택자체가 신개축 되었다. 그리고 통일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교통이 원활해 진것이 파주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다. 서울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서울과의 교류가 원활해지기 시작했다.

### ■ 자유와 평화로 통하는 길, 자유로(自由路)

자유로는 통일동산 조성계획과 동시에 맞물려 추진된 도로다. 자유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간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되었다. 아울러 장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강 하류지역(행주대교-통일대교)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 수립도 그 건설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유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 하류 강변을 따라 임진각 통일대교까지 폭 51m, 도로높이 6.5m, 총연장 46.6km의 길이다. 1단계 공사가 행주대교에서 이산포간 도로가 1990년 10월 27일 착공해 1992년 9월 완공되었으며 이산포에서 통일대교까지 2단계는 1991년 착공되어 1994년 9월 16일 완공되어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최근에는 자유로 인근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하신도시에서 서울 상암까지의 제2자유로가 개통되었으며 현재 교하신도시에서 탄현면 갈현삼거리까지 제2자유로 2구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관광지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민족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는 곳이다.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다.(이곳의 임진철교는 2개의 다리가 나란히 있었으나 전쟁 시 하나는 파괴되어 철교의 교각만 남아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이곳에는 망배단이 있는데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가진 실향민들이 매년 설날과 추석 때나 가족이 보고싶을 때에 고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에서 이북에 계신 부모, 조부모에게 배례하는 장소이다. 소식이 끊겨 생사도 불명확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수백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 ■ 자유의 다리

지정 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162호

지정일: 1996년 12월 24일

조성 시기: 1953년

소재지: 문산읍 마정리 509-1

소유자: 국가

임진각 광장 앞 망배단 뒤편에 놓인 자유의 다리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어 남과 북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으로 전쟁 포로 1만 2,773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하였기 때문에 '자유의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원래는 경의선의 상·하행이 지

나는 2개의 철교였으나 전쟁 중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남아 있었는데,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쪽 교각 위에 철교를 복구했고 그 남쪽 끝에 임시 교량을 가설했다. 포로 교환 당시 포로들이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와서 걸어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는 나무를 짜 맞추어 만들었는데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철재를 혼합하여 사용했다. 자유의 다리는 임시로 설치한 다리이므로 건축적으로 뛰어난 점은 없으나, ‘자유로의 귀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 경의선 증기기관차 화통

지정 번호: 등록문화재 제78호

지정일: 2004년 2년 6일

소재지: 장단면 동장리 198

이 기관차는 한국전쟁 중 피폭·탈선된 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남북분단의 상징물이다. 2004년 아픈 역사의 증거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등록된 후 포스코의 지원으로 녹슨 때를 벗겨 내고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현 위치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당시 이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한준기, 1927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도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황해도 평산군 한포역에서 후진하여 장단역에 도착했을 때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기관차에 있는 1,020여개의 총탄 자국과 휘어진 바퀴는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 ■ 평화누리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된 3만평 규모의 대형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한 일상속의 평화누리는 2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 ‘음악의 언덕’과 수상카페 ‘카페안녕’, 3천여개의 바람개비가 있는 ‘바람의 언덕’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대립의 긴장이 흐르는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시대의 잔상이었던 임진각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리고 기부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

## 2. 스토리보드 제작 항목

### 1) 고양시(20건)

#### <1> 의주길의 역사적 의미(기설치)

‘의주대로’는 조선시대에 전국을 연결했던 여러 길 중에서 한양과 의주를 연결했던 길입니다. ‘관서대로’라고도 불렸던 이 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연결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옛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주대로의 역사적 가치는 무척 높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무대가 된 길이자, 이승훈과 김대건이 천주교를 배워온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주대로를 통해서 중국의 발달된 문물이 유입되어 조선 후기 북학운동을 자극했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이었던 역관들 역시 의주대로를 주 무대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의주대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역사의 무대이자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와도 같은 길입니다.

#### <2> 고양 밥할머니 석상(기설치)

동산동 밥 할머니의 본래 성씨는 밀양박씨 (일부에서는 해주오씨)로 알려져 있다. 장성한 뒤 남평문씨 문옥형(文玉亨)에게 출가하여 병자호란대에 크게 활약하는 외아들 문천립을 두었다. 조선조 선조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양과 서울 은평구, 양주군 일대에서 의병과 관군에게 큰 도움을 주어 나라에 공적을 세우게 된다. 현재 고양지역에서는 이 밥 할머니가 행주대첩, 승리의 주역인 행주치마 부대의 여성 의병장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조반정에 일부 참여하고 병자호란 전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구휼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아들인 문천립은 어머니인 밥 할머니를 도와 공적을 더 했으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연경에 볼모로 갔을 때 이들을 모신 공으로 하여 가선대부의 품계를 하사 받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밥 할머니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백성들의 빈민구제와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지역과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는 밥 할머니란 별칭을 얻게 되었다. 밥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묘소를 지금의 은평구 불광중학교 부근에 모시었다가 지금은 이장하여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조선조 후기 약사 보살상의 모습으로 세워진 여성의병장 밥 할머니의 석상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대단한 배려 속에서 유지 되었다. 중국의 사신들과 고위 관리들이 지나는 관서대로, 한양의 입구에 세워진 이 밥 할머니의 위상은 매우 컸다. 그 후손들도 묘소 인근에 머물며 조상의 공적을 기렸다. 그러나 나라를 일제에게 강점당한 후 밥 할머니의 목 부분이 훼손되어 얼굴과 머리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머리부분을 새로 만들어 드리면 자꾸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

고 옛 모습 그대로 있어야 민속, 문화적 가치가 높아 지금모습 그대로 모시고 있다고 전한다.

고양시에 있는 유일한 석불로 동산동 창릉 모퉁이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12월 정비한 이 공원 내에는 현재 이 석상 이외에도 3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총 4기의 석물 중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밥할머니석상은 다른 석물과는 달리 북한산을 바라 보며 45°정도 옆으로 세워져 있다. 석상의 옆에는 ‘동산동 밥할머니석상 이야기’라는 안내판이 있어 이 석상과 관련된 전설을 기록해두고 있다.

석상은 최근에 만들어진 대좌를 포함하여 총 높이 155.5cm이고 현재 얼굴 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석상의 팔목과 어깨 등은 매우 풍만하여 전체적으로 얇은 곡선들이 몸을 휘감은 듯 보인다. 수인의 경우 왼손은 施無畏印을 하고 오른손은 약함을 받치고 있다. 立像으로 생각되는데 무릎아래 부분이 결손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석상의 뒷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따로 광배를 만들어 받쳤을 가능성이 있다.

### <3> 역관 김지남 묘(金指南 墓)(기설치)

김지남(金指南, 1654~?)은 조선 후기의 역관으로 본관은 우봉(牛蜂), 자는 계명(季明)이며 호는 광천(廣川)입니다. 1671년(현종 12) 역과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초법(煮硝法 : 화약을 만드는 흙을 달이는 법)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정조로부터 금석(金石)과 같은 성헌이라고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1712년 청나라와 국경선을 확정짓기 위해 양국대표가 회동하는데, 아들 경문과 함께 수행하여 청나라 대표 목극등을 상대로 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문사(文詞)와 중국어에 유창하여 1714년에는 역관으로 사신을 수행하면서 보고들은 사실들을 참고로 하여 사대와 교린의 외교에 관한 연혁·역사·행사·제도 등을 체계화한 “통문관지(通文館志)”를 아들과 함께 편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외교에 종사하던 중신·사절·역관 등 실무진의 편람 및 사서의 구실을 하는 필수서가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까지 유포되어 그곳 외교관에게도 우리나라에 관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 <4> 덕명교비(德明橋碑)(기설치)

덕명교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비좌는 땅속에 묻혀 있어 문양을 판별할 수 없으며, 개석은 조선 후기 비석에 흔히 사용된 팔작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비신의 마멸상태가 심하여 비문을 판독하기 어렵습니다. 비의 앞면의 전액에는 ‘경기도 고양군 덕명교(京畿道 高陽郡 德明橋)’라 기록되어 있고 앞면에는 전액 이외에도 해서로 된 비문이 비신 전면에서 새겨져 있습니다. 비의 뒷면에도 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양 신원 덕명교량명(高陽 新院 德明橋梁銘)’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수십 명의 인명이 이두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의 내용

은 한양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관서로(關西路) 구간 중 신원동 공릉천(恭陵川) 위에 다리를 놓으면서 그 자세한 사항을 기록으로 표기해 둔 것입니다. 비문에 의하면 이 비의 건립자는 이한(李瀚)과 당시 고양군수(高陽郡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유후성(柳後聖, 생물년 미상), 그리고 정헌대부(正憲大夫) 윤면지(尹勉之), 이상식(李尙植), 홍시우(洪時雨)를 대표로 한 760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으며 760여명이 모두 힘을 합쳐 공릉천 위에 돌다리를 건립했고, 그 명단을 자세하게 표기해 둔 것입니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 비석에 흔히 사용되지 않은 이두문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이두문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5> 벽제관지(碧蹄館址)(기설치)

조선 성종 7년(1476) 11월에 세운 벽제관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사신의 공용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중국 사신들은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예를 갖추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이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들도 여기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곤 했으며 국왕이 제릉(齊陵) 친제(親祭)때 숙소로 이용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벽제관은 관서지방으로 가는 큰 길에 설치된 첫 역관이었으며, 또한 국왕이 중국 사신을 친히 배웅하고 맞이하던 모화관에 버금가는 곳입니다.

한편, 벽제관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명나라 군을 이긴 승전지로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허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에 의해 벽제관의 부속건물인 육각정(六角亭)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습니다.

이후 벽제관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60년대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삼문까지 허물어져 그 터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6> 벽제관 육각정터

벽제관 건물들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유일한 현존 건물이 된 육각정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허세가와 요시미치가 왜군이 명나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벽제관전투를 기념하고자 벽제관앞 연지터에 있던 육각정을 반출하여 자신의 고향에 있는 공원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벽제관 육각정은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이지만 현존하는 벽제관의 유일한 잔존 건물로 고양시에서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모미지다니 공원에 있는 이 육각정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7> 고양향교(高陽鄕校)(기설치)

고양향교는 최초 건립 당시에는 관아가 있던 월당리 서삼릉터에 세워졌으나, 몇 번의 이전 끝에 1625년 현 위치인 덕양구 고양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불

타버린 명륜당, 전사청, 외삼문은 1984년에 새로 만들었고, 그 외 건물들은 여러 차례 보수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배치는 교육 공간을 앞쪽에, 제사 공간을 뒤쪽에 둔 전학후묘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쪽에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있으며, 뒤쪽에는 대성전과 동무·서무, 전사청이 있습니다.

#### <8> 최영장군묘(崔瑩將軍墓)

최영장군(1316~1388)은 고려 후기의 명장이며 충신으로 고려를 끝까지 받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처형된 인물입니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분으로 부인 문화 유씨와 합장하였습니다.

묘소에는 묘비, 충혼비, 상석,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으며 장방형의 2단 돌레석을 두른 방형묘로서 주위에 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성 당시의 석물로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묘비가 있으며 기타 다른 석물은 1970년에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전형적인 고려 양식의 장방형묘입니다.

위편에는 최영의 부친인 동원부원군 최원직의 묘가 있습니다.

#### <9> 성령대군묘

설령대군은 태종의 넷째 아들이자 성녕군에 봉해졌다가 1414년(태종 14)에 대군이 되었으며 대광보국대부의 위계에 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태도가 의젓하고 총명하여 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14살 때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장대석 3단을 쌓았으며 주위에 호석(護石)을 둘렀으며 묘소의 좌우에는 석호와 석양이 세워져 있고 묘 앞에는 상석, 장명등을 두었고 좌우로는 문인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신도비는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석과 거북모양의 귀부를 갖추고 검은 수석으로 된 비신을 화강암 우주석에 끼워 넣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418년(태종 18)에 세웠으며 비 전체 높이 300cm, 비신 높이 163cm, 폭 130cm, 두께 25cm의 규모로 비문은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글씨는 성개가 썼습니다.

#### <10> 김홍집 선생 묘

김홍집은 고종 5년(1867) 문과에 급제하여 1880년 예조참의로서 수신사(修信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왔고 중국인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소개하여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한 공으로 예조참판에 승진했으나 개화를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배척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사직했습니다. 고종 19년(1882)에 구미열강이 통상요구와 임오군란(壬午軍亂)의 뒷처리 등 복잡한 국제문제에 부딪친 정부에 다시 기용되어 한미, 한영 등 조약체결의 부사(副使), 1882년에는 이유원(李裕元)과 함께 조선전권(朝

鮮全權)으로 일본과 제물포 조약 체결의 부관으로 외교수완을 발휘, 경기도 관찰사로 승진하였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우의정, 좌의정 등으로 전권대신(全權大臣)이 되어 한성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한 뒤 사임했습니다.

묘소에는 최근 새로 만들어진 묘갈, 상석,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 1쌍이 있으며 묘는 대자동 대자골에 위치하여 배(配) 정경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의 묘가 부좌(附左)되어 있습니다.

### <11> 연산군시대금표비(燕山君時代禁標碑)(기설치)

연산군시대금표비는 조선시대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입니다.

현재 비는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빛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비의 크기는 높이 1.38m 폭 0.54m 두께 22.5cm로 대좌 위에 비신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의 대좌는 장방형이며 후에 새롭게 세운 것으로 보이며 비신의 앞면에는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울처참’(禁標內犯入者 論棄毀制書律處斬)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볼 때 이 금표비는 조선조 연산군 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문은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은 기훼제서울에 의해 처참한다.’는 내용입니다.

### <12> 숲돌고개 이야기

숲돌고개는 삼송동과 오금동, 신원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 고개로 고개 정상부로는 국도 1호인 통일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1월 여석령 숲돌고개 전투(일명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 크게 패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의 칼을 이 고개에서 갈았다고 하여 숲돌고개라고 부른답니다.

### <13> 벽제(碧蹄)

벽제동은 고양시의 가장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파주시,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명산, 우암산, 앵무봉 등 높은 산들이 주위에 있으며 응달촌, 목암동, 상곡촌, 전마을 등의 자연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곳의 지명유래는 첫째, 조선시대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인 후 이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시호를 사도(思悼)라 내리고 세자의 혼을 달래던 중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위의 숲이 너무도 울창하고 골이 깊어 벽제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옛날 고위관리가 길을 지날 때는 이를 큰 소리로 알렸는데 이 소리를 내는 기구를 벽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곳 벽제는 중국 북부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이 벽제 소리가 끝없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 <14> 대자동(大慈洞)

대자동은 고양동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이곳에는 쌍궁말, 고골, 대적골, 빈정동, 용복원, 한오동, 새원, 간촌등의 자연 촌락 마을이 있습니다. 대자동에는 최영장군 묘를 비롯해 연산군시대 금표비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대자동이란 유래설은 조선조 태종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태종 임금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상심한 태종은 무덤 근처에 암자를 세워 불공을 드리기로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길이 너무 멀어 임금이 이곳을 자주 왕래하면 혹 나라 일을 소홀히 할까봐 잦은 행차를 삼가도록 진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태종은 무덤 근처에 큰 자비를 내린다는 뜻으로 대자사(大慈寺)라는 절을 지어 성령대군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때부터 이 절의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대자리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 <15> 고읍(古邑)마을(기설치)

고읍마을은 조선시대에 고양군 전체를 다스리던 고양군청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그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국사봉아래 대자동 고읍 고양군청은 서기 1544년부터 1625년까지 81년간 입니다. 처음 이곳에 고양군청이 들어선 시기는 조선 중종 39년(1544) 5월 10일로 당시 고양군청은 현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부근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조선조 12대 인종의 어머니인 장경왕후 윤씨의 희릉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양군청 이전의 왕명이 내려 이 곳 대자동 고읍마을로 군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양군청은 국사봉 아래 산기슭에 있었는데 주초와 기와편 등을 통해 볼 때 위용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군청 관아 이외에도 향교, 감옥, 포청, 남별관, 사직단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이와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80년 넘게 이 곳에 있던 고양군청 관아는 이곳에 효종의 부마인 정제현의 묘소와 원찰인 백련암이 들어서면서 1625년 현 고양동 벽제관 부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 <16> 관청령(官廳嶺)

관청령(관청재)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고읍마을과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이곳을 관청고개라 부르는 것은 고개 아래 고읍에 옛 고양 관아를 비롯한 주요한 관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고읍(古邑), 읍내, 관청재, 향교골 등 옛 관청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17> 교외선 벽제역

벽제역명은 이 지역의 원래 행정구역인 벽제읍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벽제'는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이 머물며 휴식을 취했던 벽제관(碧蹄館)이라는 곳의 이름을 딴 것입



니다. 현재는 무인역이지만 TMO는 있으며, 역 건물은 화물업무를 하는 물류업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열차 운행 당시에는 인근에 벽제유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고양동과 가장 가까운 역이지만 2004년 교외선이 여객영업을 중지한 이래 이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객열차는 영업하지 않으나, 인근에 국군고양병원과 정비대 및 보급대가 있어서 군용 화물열차가 하루에 1~2번 정도 벽제역에 정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18> 고양초등학교

고양초등학교는 1909년 5월 1일 사립 명륜학교(明倫學校)로 설립되었습니다. 1911년 4년제 고양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공립으로 전환되어 고양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51년 10월 고양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1981년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으며 1996년 고양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른생활 습관 훈련으로 도덕적 신념과 실천의지를 기르는 어린이, 새로운 지식으로 탐구력을 길러 창조할 줄 아는 어린이, 튼튼한 몸으로 기능을 연마하여 건전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 서로 돕고 남의 의사를 존중하며 솔선수범하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9> 고양 감리교회

고양 감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남감리 교회로 1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서 미국 남부의 에모리(Emory)대학과 벤더빌트(Vanderbilt)에서 공부했던 윤치호 선생이 바로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선교를 당했던 북감리교(아펜젤러), 북장로교(언더우드)와 달리 남감리교의 선교는 한국인 윤치호의 촉구와 주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교회의 분열이 조선 땅에서도 이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남감리회 소속의 양주삼 목사와 윤치호 선생 등이 노력하여 1931년 통합된 <조선감리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1896년 8월, 리드 선교사가 내한하여, 윤치호와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선교의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1897년 5월 2일, 이곳 고양동에 남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매서인들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온 리드와 콜리건은 곧바로 세례식을 집례하고 속장을 선출해 완벽한 조직을 갖춘 감리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결국 한국인들의 노력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 무임승차한 교회가 바로 이곳 고양지역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 <20> 중남미문화원

중남미문화원은 1992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이복형 대사와 그의 부인 홍갑표 이사장이 그 지역의 풍물을 모아 세운 문화의 장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꿈과 이상과

건전한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중남미박물관에서는 마야, 잉카, 아즈테카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남미 각국의 찬란했던 고대 문화유산과 역사, 생활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아세아 권에서도 유일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문화관련 박물관입니다.

중남미 미술관에서는 근·현대의 중남미 작가들의 그림, 조각 등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는 중남미의 12개국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과 인디오풍의 인디헤나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코요아칸 대문과 산책로 등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 2) 파주시(20건)

### <1> 고려시대 국립 숙박시설 혜음원(기설치)

혜음령은 고려시대 국립 숙박 시설이었던 혜음원이 있던 곳입니다. 혜음원은 혜음령 고개 좌측 능선에 있었는데 남경(지금의 서울)과 개경을 오가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을 위해 고려 예종 16년(1120)에 착공해 1122년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남쪽 순행시 머물렀던 숙소인 별원도 함께 있던 곳입니다. 혜음원은 1999년에 명문 기와가 발견돼 그 터가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한 발굴조사 및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혜음령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일본군에게 크게 패배한 곳입니다.

이 곳 용미4리 마을을 ‘진대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여송 장군이 이 마을에 진(陣)을 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아직까지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 대동굿인 ‘진대굿’을 하고 있습니다.

### <2> 신탄막(새술막) 마을 유래(기설치)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피해 의주로 향하던 선조의 피난길은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주막거리에서 쉬어가던 피난 일행은 갑작스런 비 때문에 불을 피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때 마을 사람들이 숨겨놓고 아껴 쓰던 숯을 가져온 덕에, 비로소 불을 피워 젖은 몸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선조 임금님이 숯은 처음보는 새로운 탄(炭)이라 하여 그 때부터 이 마을 이름을 ‘신탄(新炭)’ 또는 ‘새술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 <3> 봉서산에 얽힌 이야기(기설치)

봉서산은 봉황이 즐기며 노래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장사가 먹었다는 장사우물이고, 다른 하나는 명주실 한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대우물입니다. 또한 산마루에는 장사가 가지고 놀았다

는 공기바위가 남아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군사 요충지로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행주대첩 이후 주둔했던 봉서산성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4> 임진나루 뱃사공 이야기(기설치)

임진나루는 임진강의 대표적 나루로 관북과 관서의 분기점이자 한양에서 의주로 가는 의주대로의 주요 길목이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곳의 뱃사공이 임진나루의 뱃사공을 시험하기 위해 양반으로 변장하고 나타났지만, 지혜로운 임진나루 뱃사공은 “너의 수염이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것을 보니 너도 나와 같은 뱃놈이구나!” 하고 속아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 <5> 혜음령 고개와 수령령 고개 이야기

혜음령 고개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와 고양시 고양동을 넘나드는 고개입니다. 혜음령고개를 수령령(授令嶺)고개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영조가 그의 어머니 숙빈최씨가 죽자 충청도 지방의 지관과 함께 광탄면 영장리 산 1번지에 묘자리를 잡고 그곳에 어머니의 무덤을 만들고 소령묘라 하였습니다. 아들 영조는 소령묘에 묘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며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하였는데 시묘살이 하던 어느 날 궁궐에 들어가던 중 이 곳 혜음령 고개에서 관원을 만나 임금으로 추봉되는 왕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음령 고개를 수령령 고개라고도 부른답니다.

#### <6> 용미4리 진대박이 마을이야기

1592년 임진왜란시 이여송(李如松)제독이 이끄는 명군 들은 광탄면 용미리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당시 왜군들은 한양으로 전부집결 군사를 정돈, 정비하는 한편 벽제관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장 처영(僧將 處英)이 이끄는 승병들과 아울러 치열한 격투를 벌였으나 명군 수만명이 희생되는등 고령산 전역에 걸쳐 시체가 늘비하였다 하며 신음소리와 함께 피바다를 이루어 하늘을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여송 제독의 아우 이여백(李如伯)과 이여매(李如梅)가 전사하니 이여송 제독은 비참한 슬픔 속에 평양성으로 명군을 이끌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 후 용미4리 주민들은 그 당시에 진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동리명을 진대박이라 호칭하는 한편 400여년 이 지난 오늘까지 수호·보존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7> 용미리마애이불입상의 전설

고려 13대 왕 선종은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를 못내 걱정하던 궁주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두 도승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 남쪽 기슭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인데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궁주가 하도 이상하여 선종에게 고하자 선종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냈는데 장지산에 다녀온 사람이 “장지산 아래에 큰 바

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선종은 즉시 이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러자 그해에 왕자 한산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자(祈子) 전설이지만,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불상이 조성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8> 파주삼릉

파주삼릉은 공릉, 순릉, 영릉의 조선왕릉 3기를 합해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릉(恭陵)은 예종(睿宗)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으로 장순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1460년(세조6) 16세로 세자빈이 되어 이듬해 인성대군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며 1472년(성종3)에 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순릉(順陵)은 성종(成宗)의 원비인 공혜왕후 한씨의 능으로 공혜왕후도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자매지간입니다. 1467년(세조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 즉위 5년인 1474년 4월 후사 없이 춘추19세로 승하 하였습니다.

영릉(永陵)은 영조(英祖)의 맏아들인 효장세자 진종(眞宗.추존)과 그 비 효순왕후 조씨의 능입니다. 진종은 1719년(숙종45)에 태어나 1724년 영조 즉위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 춘추 10세의 나이로 돌아가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습니다.

파주삼릉은 1970년에 국가 사적 제2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9> 명필 한석봉의 글씨 이회 신도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1호인 이회선생 신도비는 명필 한석봉 선생의 글씨입니다.

이회 선생은 성종의 8번째 왕자로 1488년 7월 1일 숙의 홍씨淑儀洪氏 몸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익양군에 봉해진 인물입니다. 이회는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가 계속되자 문밖출입을 하지 않다가, 1506년 중종 반정에 가담하여 원종공신이 되었고 종부시 제조, 종친부 유사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충효덕행의 으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신도비는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데 비는 널찍하고 네모진 받침 위에 비몸과 머릿돌을 하나의 돌로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비몸의 앞면 윗부분에 머리글을 새기고, 그 아래와 뒷면에 비문을 새겼습니다. 머릿돌에는 두 마리의 용을 대칭적으로 조각했는데 용 비늘과 구름 등의 묘사가 매우 섬세하게 조각 되었습니다.

이회가 사망한 지 35년 후인 선조 20년(1587)에 세운 이 신도비의 비문은 좌의정 김귀영이 짓고 명필 한석봉이 글씨를 쓰고 도승지 김응남이 머리글을 썼습니다.

#### <10> 해동의 명장 윤관장군

해동의 명장이라 불리는 윤관은 문무를 겸한 고려 때의 공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입니다. 윤관은 1107년 대원수大元帥가 되어 부원수 오연총吳延寵과 함께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창설해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탈환한 각지에 장수를 보내 국토를 획정하고 9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곳의 윤관 묘역은 상당히 크고 웅장하며 봉분과 석물이 단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분은 아래에 장대석 모양의 호석을 두르고 봉분 뒤로는 담장을 둘렀습니다.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 왼쪽에 묘비가 서 있으며 그 아래로 망주석이 서 있고 더 아래에는 장명등을 중심으로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 등이 양편으로 있습니다. 묘역 아래에는 윤관의 영정이 봉안돼 있는 여충사(麗忠祠)가 있는데 매년 음력 3월 10일 제사를 지냅니다.

### <11> 3.1운동 발상지 광탄

광탄면은 파주 3.1운동의 발상지입니다. 현재 광탄면사무소내에는 3.1운동 발상비(發祥碑)가 1978년 3월 1일 광탄면민들이 조성한 3.1운동 발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발상비는 2단으로 된 비대위에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 머리를 올렸는데 전면에는 「3.1운동 발상비」라 새겼고 뒷면에는 광탄면민 일동으로 된 추모의 글이 담겨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기 1910년 경술(庚戌)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바다건너 잔악무도한 왜구(倭寇)들의 발길에 더럽혀지자 호국선열들은 한을 머금고 혹은 해외로 망명하여 각국을 순방하면서 독립을 호소하고 혹은 국내에서 끈질기게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서기 1919년 .....(중략) 때를 같이하여 파주군 3.1운동 발상지인 이 곳 광탄에서는 우산 심상각(又山 沈相恪), 석천 김웅권(石泉 金雄權) 양 선생의 주동으로 그 달 28일 봉일천 장날 19인 동지회원들이 앞장을 서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여 태극기를 높이드니 민족혼은 만장산하(萬丈山下)에 메아리치고 선열들의 우국충정은 강산도 감동 시켰다.....(하략)’ 이라고 기록해 파주 3.1운동 발상지인 광탄면민의 3.1정신 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12> 명당자리 거지무덤의 일화

1970년대 금촌 아동리(안산동) 부락에 연자방앗간이 있어 수십명의 거지들이 정착하며 살았는데 이곳에 있던 조선행이라는 거지는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소금장사를 하였답니다. 1971년 4월 봄날 소금을 지게에 걸머지고 광탄면 발랑리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소금을 팔고 돌아가는 도중 백경수가 흘러내리는 길목 현재 부곡3리 산기슭에 지게를 버티어 놓고 주저앉아 쉬다가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든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거지 수 십명이 달려와 죽은 그 자리에 장례를 지내주었는데 조선행의 어린 자식은 성장하여 인천에서 소금장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손들은 아버지 거지 무덤을 생각하고 찾아와 주위 임야 7천여평을 구입해 산소를 잘 가꾸어 명당자리 와복형국(蛙伏形局) 거지무덤으로 널리 알려지는 한편 매년 봄 가을로 찾아와 정성껏 금초와 제사를 지내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하다는 유래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 <13> 율곡선생의 화석정

화석정은 세종 25년(1443) 율곡의 5대 조부인 이명신이 이곳에 정자를 세운 후 성종 9년(1478) 율곡의 증조부 이의석이 보수하면서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율곡 선생은 국사를 돌보면서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곳에서 제자나 벗들과 함께 시와 학문을 논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그의 학문에 반한 중국의 칙사 황홍헌이 찾아와 시를 읊고 자연을 즐겼다고도 전합니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80여 년간 터만 남아 있다가 현종 14년(1673) 율곡 선생의 증손들이 다시 세웠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불에 타 1966년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복원했습니다. 화석정 안에는 율곡 선생이 여덟 살에 지었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 <14> 율곡촌 ‘나도밤나무’ 이야기

덕수이씨 가문의 세거지이면서 율곡 선생의 선대가 대대로 살아온 마을 율곡촌은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栗谷)이라 부릅니다. 이 마을에 유난히 밤나무가 많은 것과 관련해 전해지는 일화가 있으니 “율곡 선생이 어렸을 때 하루는 스님이 찾아와 마당에서 노는 어린 율곡을 보며 이 아이는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관상이니 아이를 살리려면 뒷산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으라고 하고 사라졌다 한다. 이때부터 아이의 아버지는 뒷산에 밤나무 천그루를 심고 잘 돌보았다. 3년이 지난 어느날 스님이 찾아와 뒷산으로 올라가 밤나무를 세었는데 수를 다 센 스님이 갑자기 한그루가 모자란다고 소리치며 호랑이로 변신해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도밤나무요 나도밤나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그 곳에는 작고 비리비리한 밤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호랑이는 그 밤나무를 보자 도망을 치고 말았는데 밤나무가 모두 천 그루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무사히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율곡 선생이라는 이야기 이다.

### <15> 임진강에 떠 있는 섬, ‘풀들섬’ 초평도(草坪島)

문산을 장산리 216번지로 등재되어있는 임진강 한가운데 한가롭게 떠 있는 섬 초평도(草坪島). 풀이 무성하게 자라 평평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평도는 수변부를 포함한 면적이 4백만 평방미터이고 수면위의 면적은 약 176만 5천평방미터(약 52만

평)로 한국전쟁 이후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에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고 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온갖 기러기, 오리류와 도요, 흰꼬리수리, 원앙, 파랑새, 청호반새 등이 계절에 따라 들락거리고 사시나무와 갯버들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 <16> 덕진산성(德津山城)

사적 제537호 덕진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입니다.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성은 최고봉인 해발 65m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라 돌며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외성에는 두 개의 문 지가 완연하게 남아있고 성 위에 담을 낮게 쌓았던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임진강의 북쪽 해안이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덕진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처음 소개되었고 그 외 다른 지리지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덕진산성은 2012년부터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결과 내성 전체 구간(600m)에 걸쳐 고구려 성벽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은 흙을 다져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후 앞면에는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부를 쌓을 때에는 할석(조개 돌)이나 가공석 사이사이에 점토를 채워가면서 쌓는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 <17> 경의선(京義線) 철길

경의선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그 해 2월 21일 서울~의주(499.3km)간 군용철도 부설을 위한 임시 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였으며,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1908년 4월 1일부터는 부산~신의주간 직통 급행열차인 융희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되어 문산역이 종착역이 되었다가 2000년 7월 1차 남북장관급 회담때 철도연결에 합의하고 그해 9월에 임진각에서 경의선복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후 2002년 9월 경의선 연결공사가 착수되고 2003년 6월 군사분계선 철로가 연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군사보장 합의를 체결하면서 운행이 중단된지 56년만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에는 개성공단의 자재와 생산 물량의 수송을 위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경의선의 유럽 연결을 위한 한 걸음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 <18> 1번 국도의 끝길 통일로(統一路)

1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평북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종단국도로 일제강점기에 건설

되기 시작해 20세기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역사와 문화의 실크로드로, 근대화의 산실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1번 국도는 서울을 경유하면서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에서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임진각에 이르는 구간을 '통일로'라고 부릅니다. 49.2km에 달하는 통일로는 조선시대에도 중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인 의주로가 근간이 되어 이루어진 도로입니.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국도가 남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1972년 왕복 4차선의 통일로로 확장되었는데 이것이 파주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9> 자유와 평화로 통하는 길, 자유로(自由路)

자유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간 연결도로의 필요성과 아울러 장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강 하류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자유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 하류 강변을 따라 임진각 통일대교까지 폭 51m, 도로높이 6.5m, 총연장 46.6km의 길이다. 1단계 공사가 행주대교에서 이산포간 도로가 1990년 10월 27일 착공해 1992년 9월 완공되었으며 이산포에서 통일대교까지 2단계는 1991년 착공되어 1994년 9월 16일 완공되어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로 인근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상암까지의 제2자유로가 개통되었으며 현재 운정신도시에서 탄현면 갈현삼거리까지 제2자유로 2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20>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관광지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민족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아로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망배단이 있는데 망배단은 휴전선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이면 고향과 가까운 이곳에서 북에 계신 부모, 조부모에게 차례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임진각관광지는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로 매년 수 백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